2015학년도
대학입시정보설명회
핵심자료집

주최 | tbs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Standard Board for Korean Certified Education Consultants 넘어선 노원

CONTENTS

2015학년도 대학입시정보설명회

Part 1. 2015학년도 대입 변화와 이해

Part 2. 2015학년도 수능전망과 대입합격 전략

Part 3. 학생부 종합전형 전략 (구 입학사정관전형 전략)

CONTENTS

2015학년도 대학입시정보설명회

Part 1. 2015학년도 대입 변화와 이해

Part 2. 2015학년도 수능전망과 대입합격 전략

Part 3. 학생부 종합전형 전략 (구 입학사정관전형 전략)

Part 1

2015학년도 대입 변화와 이해

안 연 근

- 잠실여고 교사
-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자문위원
- 한겨레신문 '안연근 교사의 대입 나침반' 고정 필자

〉 2015학년도 이후 대입 전형 특징

》 고 2, 3 학생의 대입 준비

I. 2015 학년도 이후 대입 전형 특징

1. 대입 제도 기본 원칙과 주요 변경 사항

원칙	세부사항
학교교육 정상화 사교육비절감 추진	-고교교육 활성화 / 3불 정책유지 /사전 예고제 * 교과 외 활동: 학교장 허가활동 중심 반영 * 학생부종합전형 다양한 전형자료 활용
대학의 사회 책무성 강화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구 분	2015, 2016학년도	2017학년도
대입 전형 간소화	수시4개, 정시2개 이내 전형방법 사용 (대학 별 6개 이내) 핵심 전형 요소 표준화 (학생부/ 논술/ 실기 / 수능)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및 수능 우선선발 폐지	
학생부 반영 비중 강화	수시 및 정시 반영 내실화 서술형 기록 적정화 및 내실화	
수능 개선	영어 수준별 수능 폐지	국어, 수학 수준별 수능 폐지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
대학별 고사	교육과정 총론의'일반과목'수준 이내에서 출제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과 적성고사 지양	
모집시기	수시 원서접수 기간 통합 정시모집 모집단위내 군별 분할모집 폐지 수능 11월 둘째 주 실시(2017학년도는 11월 셋째 주)	

2.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선

1) 수준별 수능의 점진적 폐지

■ 2015 · 16학년도 수능에서 영어의 A/B 수준별 구분 폐지

- 영어 영역 출제범위 : 영어 Ⅰ (A형) + 영어 Ⅱ(B형)
  영어 Ⅱ: 독해와 작문, 심화영어회화는 빠짐
  듣기 17문항으로 감소, 독해 28문항 증가.
- 쉬운 영어 출제 : 빈칸 추론 7개 (정답률 34%) ⇒ 4개

▶ 상대 평가는 유지. 실수? 풍선 효과?

■ 국어 · 수학의 수준별 수능은 2015-16학년도 까지 유지

- 2017학년도부터 수준별 수능 전면 폐지

2) 수능-EBS 강의/교재 70% 연계는 현행 상태 계속 유지
3)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의 수능 연계 없음

[참고] 수능 시험 어떻게 바뀌나?

<table>
<tr><th>영 역</th><th>현재 고3,2</th><th>현재 고1 ~ 중1학년</th><th>현재 초등 6학년 이하</th></tr>
<tr><td>한국사</td><td>선택</td><td>필수(절대평가. 9등급제)</td><td rowspan="7">-문 · 이과구분 폐지
-융합형 교육과정 개발 :
2013.11~15. 5
-융합형 교과서 개발 :
2015. 3~16. 9
-교과서 검정 :
2016. 9~17. 8
-개편된 교육과정 적용 :
2018. 3. 고1
-문 · 이과 융합형 수능 실시 :
2020.11</td></tr>
<tr><td>국어 · 영어</td><td>국어A/B유지
영어A/B폐지</td><td>공통(수준별 수능 폐지)</td></tr>
<tr><td>수학</td><td>A/B 유지</td><td>문 · 이과 구분 (나/가형)</td></tr>
<tr><td>탐구</td><td colspan="2">선택 2과목 응시</td></tr>
<tr><td>제2외/한문</td><td colspan="2">9과목 중에서 1과목 응시</td></tr>
<tr><td>수능 최저</td><td colspan="2">완화. 등급 활용 (백분위 금지)</td></tr>
<tr><td>수능 시험일</td><td>11월 둘째 주
2014.11.13
2015.11.12</td><td>11월 셋째 주
2016. 11.17</td></tr>
</table>

3. 수시 4개, 정시 2개 이내로 전형방법 간소화(정원내)

<table>
<tr><th></th><th>전형 유형</th><th>전형 요소</th><th>전형 방법</th></tr>
<tr><td rowspan="3">수시</td><td>학생부 위주</td><td><u>학생부 교과</u>
학생부 종합(비교과, 자, 추, 면접)</td><td><u>학생부 교과80+면접20</u>
1단계(3배수) - 학생부 교과 100
2단계- 서류 80 +면접20</td></tr>
<tr><td>논술 위주</td><td>논술 등 * 논술 지양 권고</td><td>논술 80+ 학생부 교과 20</td></tr>
<tr><td>실기 위주</td><td>실기 등(특기 등. 증빙자료 활용)</td><td>특기(어학/수학/과학)70+면접30</td></tr>
<tr><td rowspan="2">정시</td><td>수능 위주</td><td>수능 등</td><td>수능 80+ 학생부 교과 20</td></tr>
<tr><td>실기 위주</td><td>실기 등(특기 등. 증빙자료 활용)</td><td>특기(어학/수학/과학)60+수능40</td></tr>
</table>

■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전형방법'으로 계산함
- 단, **예체능계열, 사범계열의 인적성검사, 종교계열의 교리문답, 정원외 특별전형** 등은 전형 방법 수 기준(6개) 계산시 예외를 인정
■ **'입학사정관 전형"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 포함
■ 기존 '특기자 전형'은 실기 전형에 포함됨
- 특기자 전형은 모집단위별 특성(외국어 계열, 국제학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 운영.**

[참고] 수시 및 정시 전형 유형별 모집인원 비교

구분	전형유형	2015학년도	2014학년도	증감 (%)
수시	학생부(교과)	145,576명(38.4%)	116,110명(30.6%)	+29,466명 (+7.8%)
	학생부(종합)	59,284명(15.6%)	46,932명(12.4%)	+12,352명 (+3.2%)
	논술 위주	15,107명(4.0%)	17,737명(4.8%)	-2,630명 (-0.8%)
	실기 위주	17,359명(4.6%)	9,551명(2.5%)	+7,808명 (+2.1%)
	기타	6,007명(1.6%)	60,890명(16.0%)	-54,883명 (-14.4%)
소계		243,333명(64.2%)	251,220명(66.2%)	+7,887명 (-2.0%)
정시	수능 위주	118,905명(31.4%)	91,530명(24.1%)	+27,375명 (+7.3%)
	실기 위주	14,793명(3.9%)	17,770명(4.7%)	-2,977명 (-0.8%)
	학생부(교과)	569명(0.2%)	3,226명(0.9%)	-2,657명 (-0.7%)
	학생부(종합)	1,335명(0.4%)	2,256명(0.6%)	-921명 (-0.2%)
	기타(재외국민)	172명(0%)	13,512명(3.6%)	-13,340명 (-3.6%)
소계		135,774명(35.8%)	128,294명(33.8%)	+7,480명 (+2.0%)
합계		379,107명	379,514 명	- 407명

4. 수시 모집인원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수시모집에서 전년 대비 2.0% 감소한 64.2% 선발
- 수시모집: 전체 모집인원(379,107명)의 64.2% (243,333)
- 정시모집: 전체 모집인원의 35.8%인 135,774명을 선발

학년도	수시모집		정시모집		계(명)
	모집인원(명)	비율(%)	모집인원(명)	비율(%)	
2015	243,333 (-7,887명)	64.2	135,774 (+7,480)	35.8	379,107 (-407명)
	일반전형: 136,377 명 특별전형: 106,956 명		가군 : 53,493 명 나군 : 51,989 명 다군 : 30,292 명		2014 합은 경북외대 폐교로 인한차이(166명)
2014	251,220	66.2	128,294	33.8	379,348

[참고] 2014/2015학년도 수시 및 정시 모집인원 비교

대학명	2015학년도			2014학년도			정시 변화(%)
	모집인원(명)	수시(%)	정시(%)	모집인원(명)	수시(%)	정시(%)	
서울시립대	1,882	36.9	63.1	1,898	54.2	45.8	17.3
숙명여대	2,383	51.4	48.6	2,435	63.3	36.7	11.8
중앙대(서)	3,729	71.4	28.6	3,323	80.9	19.1	9.5
홍익대(서)	2,755	56.8	43.2	2,789	61.7	38.3	4.9
서울대	3,317	76.2	23.8	3,386	80.3	19.7	4.1
건국대(서)	3,324	53.9	46.1	3,363	57.2	42.8	3.2
서강대	1,782	61.7	38.3	1,770	64.5	35.5	2.8
동국대(서)	3,063	55.1	44.9	3,095	57.4	42.6	2.3
한국외대(서)	1,793	61.0	39.0	1,809	62.3	37.7	1.2
이화여대	3,272	56.9	43.1	3,193	54.5	45.5	-2.4
경희대	5,493	59.3	40.7	5,335	56.3	43.7	-3.0
한양대(서)	3,314	70.0	30.0	3,305	64.0	36.0	-6.0
연세대(서)	3,690	72.8	27.2	3,794	66.6	33.4	-6.2
고려대(서)	4,184	73.6	26.4	4,211	65.5	34.5	-8.1
성균관대	3,716	75.7	24.3	3,775	65.0	35.0	-10.7
계	47,697			47,481			

5. 학생부 위주 전형 비중이 전년보다 증가

■ 전년보다 10.1% 증가 (전체 모집인원의 54.6%인 206,764명)

	전형유형	2015학년도	2014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	145,576명 (38.4%)	116,110명 (30.6%)
	학생부(종합)	59,284명 (15.6%)	46,932명 (12.4%)
정시	학생부(교과)	569명 (0.2%)	3,226명 (0.9%)
	학생부(종합)	1,335명 (0.4%)	2,256명 (0.6%)
합계		206,764명 (54.6%)	168,524명 (44.5%)

수시 모집 학생부 반영비율	100%	80%~	60%~	50% ~	40% ~	40%미만
2014학년도	81개교	23개교	17개교	20개교	10개교	6개교
2015학년도	87개교	13개교	25개교	8개교	12개교	11개교

[참고] 2015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 100% 반영 대학

※ 학생부를 가장 높게 반영하는 모집단위 기준임(단계별 전형은 2단계 기준)

대학명	합계
〈국공립〉 **경남과학기술대**, **경북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목포대, **부산대**, 순천대 제주대, **창원대**, **충남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국공립 : 13교 사립 : 74교 합계 : 87개교
〈사립〉 **가천대**, **강남대**, 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동대, 경일대, 경주대, **계명대**, **고려대(세종)**, 관동대, **광운대**, 광주대, 남서울대, **단국대(죽전)**,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신대, 대전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경주), **동덕여대**, 동양대, **명지대**, 목포가톨릭대, 배재대, 백석대, 삼육대, **상명대(서울)**, **상명대(천안)**, 상지대, 서남대, 서울신학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세한대, 송원대, 수원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신경대, 신라대, 안양대, 영남대, 예수대, 용인대, 우석대, 울산대, 을지대, **인하대**, 전주대, 조선대, 차의과학대, 청운대, 청주대, 평택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남대, 한려대, **한성대**, 한신대, 한일장신대, 협성대, 호서대, 호원대, **홍익대(서울)**	

[참고] 2015학년도 학생부 위주 전형 수능 최저

수능 최저 등급	대학명 (모집단위)
3개 각 2등급	서강대(학생부 교과 인문), 서울대 (지균)
3개 **合 6** 등급	연세대(학생부 종합, 인문), 중앙대(서울, 학생부 교과, 인문)
3개 **合 7** 등급	성균관대(학생부 종합, 지역리더 인문/ 자연),
2개 각 2 등급	서강대(학생부 교과 자연, 수B 또는 과탐 포함) 이화여대(학생부 종합, 인문/자연) 중앙대(서울, 학생부 교과, 자연, 수B 또는 과탐 포함)
2개 평균 2등급	고려대(학생부 종합, 학교장추천 전형, 인문/자연)
2개 **合 4** 등급	연세대(학생부 교과, 인문, 학생부 종합, 자연) 한국외대(서울,학생부 교과, 인문/ 자연),
2개 **合 5** 등급	연세대(학생부 교과, 자연, 수B 또는 과탐 2등급)
2개 **合 6** 등급	중앙대(안성, 학생부 교과)
1개 1등급	성균관대(학생부 종합, 성균인재 인문/ 자연),
1개 3등급	한국외대(글로벌,학생부 교과, 인문/ 자연),

6. 논술 모집인원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 및 우선선발 폐지

■ 논술시험을 실시하는 대학 수는 전년 수준
모집인원은 17,489명으로 전년보다 소폭(248명) 감소

※신규 : 경북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세종대, 한양대(에)

※폐지 : 국민대, 동국대(경), 상명대(서울), 성신여대, 서울대

구분	2015학년도		2014학년도	
	대학 수	모집인원	대학 수	모집인원
수시	**29개교**	**17,489명**	28개교	17,534명
정시	**0개교**	**0명**	1개교	203명
합계	**29개교**	**17,489명**	29개교	**17,737명**

논술 반영비율	100%	80%~	60%~	50%~	40%~	30%~	30%~
2014학년도	3	4	20	3			
2015학년도	**2**	**1**	**19**	**3**	**4**		**1**

[참고] 2015학년도 논술 반영 비율

반영비율	대학명	합계
100 %	〈국공립〉 경북대, 서울시립대	**2교**
80 %	〈국공립〉 부산대	**1교**
70 %	〈국공립〉 서울과학기술대 경희대(서울), 서울여대,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이화여대, 인하대, 한국외대(글로벌), 한국외대(서울)	**9교**
60 %	건국대(서울), 광운대, 단국대(죽전), 동국대(서울),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서울/안성(자연)), 한국항공대(자연), 한국항공대, 한양대(에리카), 홍익대(서울)	**13교**
50 %	가톨릭대, 세종대, 한양대(서울)	**3교**
45 %	고려대(서울)	**1교**
40 %	경기대(인문), 아주대, 울산대	**3교**
22.1 %	덕성여대	**1교**

[참고] 2015학년도 논술 수능 최저 *우선선발 폐지

수능 최저 등급	대학명 (모집단위)
3개 각 1 등급 (의예과)	가톨릭대, 중앙대(서울), 인하대, 이화여대, 울산대, 연세대 (서울), 아주대, 성균관대(서울)
4개 슴 6 등급	연세대(서울,인문), 연세대(서울,자연 4개 합 7등급)
3개 슴 4 등급	경희대(의치한), 고려대(의예), 부산대(의/치), 한국외대(LD), 이화여대(스크랜튼 인문)
3개 슴 5 등급	건국대(서울, 수의예), 고려대(경영,정경,자전), 부산대(자연), 이화여대(스크랜튼 자연)
수B +과탐 합 3	경북대(모바일), 성균관대(반도체, 소프트)
2개 슴 3 등급	인하대(에너지 자원, 아태물류, 글금)
3개 각 2 등급	고려대(서울, 인문), 이화여대(인문), 서강대(인문)
3개 슴 6 등급	경북대(국교,영교,경상,행정), 부산대(생명자원), 중앙대(서울, 인문), 성균관대(인문/자연)
2개 각 2 등급	경희대(국제/서울 인문), 고려대(자연), 중앙대(서울, 자연), 이화여대(자연), 서강대(자연)
2개 평균 2등급	가톨릭대(간호), 홍익대(서울, 인문)
2개 슴 4 등급	동국대(서울, 인문), 부산대(경영,경제통상), 한국외대(서울,인문), 숙명여대(인문/자연), 서울시립대(인문/자연)
2개 슴 5 등급	건국대(서울, 인문/자연), 경희대(국제/서울 자연), 동국대(서울, 자연), 부산대(인문/사회), 인하대(인문), 아주대(자연), 숭실대(인문), 세종대(인문), 서울과기대(인문)
2개 슴 6 등급	광운대(인문/자연), 한양대(에리, 인문/자연), 한국외대(글로,인문), 중앙대(안성, 자연), 연세대(원주, 인문/자연), 아주대(인문), 숭실대(자연), 세종대(자연), 서울과기대(자연)
2개 평균 3등급	가톨릭대(인문,사회, 미디어)
2개 슴 7 등급	서울여대(인문/자연. 수B 또는 과탐 포함 시 8등급)
1개 1 등급	홍익대(서울, 건축학부)
1개 2 등급	홍익대(서울, 자연), 인하대(자연), 연세대(원주, 인문/자연)
1개 3 등급	가톨릭대(자연,이공), 경희대(국제, 체육)
미적용	건국대(영문, 중문, 일교, 영교, 국제), 경기대(인문, 사회), 단국대(죽전), 덕성여대, 한양대 (서울, 인문/자연), 한국항공대

[참고] 대학별 고사의 활용과 제한

논술	■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함 - 모집인원 축소 - 고교 교육과정 / 일반과목 수준에서 출제 - 지나친 논술 유형 다양화 지양/수능일 이후 논술실시 - 문항 해설과 채점 기준 빠른 시일 내 공고 - 논술 난이도에 대한 고교 교사의 의견 반영 및 고교 교사의 논술 자문위원 위촉 권장 ■ 학생 : 수능 최저장벽 완화 →지원자 증가 ■ 대학 : 고사장 운영 및 채점 어려움→ 정시모집 인원 확대
면접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은 지양 사회 이슈 문제 질문 가능
적성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식 적성고사/약술형 지양 학생부 60+적성 40 가능할까? - yes

[참고] 2009 개정 교육과정(보통교과)

교과 영역	교과(군))	과 목		
		기본	일반	심화
기초	국어		국어 I , 국어 II,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	
	수학	기초 수학	수학 I ,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 미적분 II, 기하와 벡터	**고급 수학 I , 고급 수학 II**
	영어	기초 영어	실용 영어 I , 실용 영어 II, 실용 영어 회화, 실용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 , 영어 II,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심화 영어 회화 I , 심화 영어 회화 II, 심화 영어 독해 I , 심화 영어 독해 II, 심화 영어 작문**
탐구	사회 (역사 /도덕)		사회, 한국 지리, 세계 지리,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법과 정치, 사회 · 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 관계와 국제 기구, 세계 문제, 비교 문화, 사회 과학 방법론, 한국의 사회와 문화, 국제법, 지역 이해, 인류의 미래 사회, 과제 연구**
	과학		과학, 물리 I , 물리 II, 화학 I , 화학 II, 생명 과학 I , 생명 과학 II, 지구 과학 I , 지구 과학 II	**고급 물리, 물리 실험, 고급 화학, 화학 실험, 고급 생명 과학, 생명 과학 실험, 고급 지구 과학, 지구 과학 실험, 환경 과학, 과학사 및 과학 철학, 정보 과학, 과제 연구**

[참고] 면접 고사 (2014학년도 서울대 의대 상황 면접)

- 수험생이 1명이 10분씩 6개 면접실을 도는 방식
-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은 지양

〈2014학년도 면접 문항〉

- 서울대 의예과에 지원한 이유는?
-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
- 친구와 인도 여행을 떠날 때 어떻게 경비를 마련하고 일정을 정할 것인가?
-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독감 발병률이 표시된 세계지도를 2분간 검토하게 한 뒤 지역별 원인과 어떤 의료행위가 가능할지 8분간 답변
- 3명이 협업해 제한된 시간 안에 대입 과학 실험을 하는데, 한 학생이 늦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 회원들과 잦은 마찰을 겪은 동아리회장이 자기소개서에 원만하게 지냈다고 적은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013학년도 면접 문항〉

- 특정 장소를 가정해 오랜 시간 줄을 대기해 화가 난 전문 연기자가 수험자에게 항의를 할 때 대처 능력을 평가함
- 케치볼 연습을 하다가 지나가는 후배를 일부러 맞혀 다치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 과학대회에서 대다수가 자신을 팀장으로 추천하는데, 자신은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7. 적성시험 실시 대학 수 및 모집인원 대폭 감소

■ 적성시험 : 13개 대학 5,850명으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

〈실시대학〉
가천대, 고려대, 금오공대, 대진대, 서경대, 성결대, 수원대, 을지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성대, 한신대, 홍익대

〈미실시 대학〉
가톨릭대, 강남대, 강원대, 경기대, 경북대, 단국대,동덕여대,명지대, 세종대, 안양대, 울산대, 충북대,
평택대, 한국외대(글로벌), 한밭대, 한양대 (에리카), 호서대

구분	2015학년도		2014학년도	
	대학 수	모집인원	대학 수	모집인원
수시	13개교	5,850명	30개교	19,420명
정시	0개교	0명	0개교	0명
합계	13개교	5,850명	30개교	19,420명

[참고] 2015학년도 적성시험 반영 비율과 모집인원

반영비율	대학 명 (수능 최저)	합계
61.2 %	〈국공립〉 금오공대 (400명. 공/이학-2개 등급 합 9, 경영-합 8)	1교
45%	고려대(세종, 445명, 1개 3등급), 홍익대(세종 216명, 2개 4등급(인문), 1개 4등급(자연), 1개 3등급 (자유전공))	2교
41.2%	수원대 (996명, 미적용)	1교
40%	가천대(1,403명, 미적용), 대진대 (362명, 미적용), 서경대(246명, 미적용), 성결대(164명, 미적용), 을지대(성남(420명)/대전(21명), 미적용), 한국기술교대(272명, 2개 합 7/8등급), 한국산업기술대(363명, 미적용), 한성대(364명, 미적용), 한신대(178명, 미적용)	9교

8. 2015학년도 정시모집 수능 시험 반영 형태와 반영 방법

〈국어,수학 A/B형 선택 현황〉

구분		국어			수학		
		A	B	A/B	A	B	A/B
2014 학년도	인문계열	0	51	144	54	0	111
	자연계열	47	1	99	1	48	118
	예체능계열	4	2	140	5	1	74
2015 학년도	인문계열	3	42	152	42	3	123
	자연계열	41	4	118	3	39	137
	예체능계열	1	3	153	5	1	90

〈2015학년도 정시모집 수능 시험 반영 비율 현황〉

학년도	100%	~80%	~60%	~50%	~40%	~30%	30% 미만
2014	107교	16교	35교	19교	8교	5교	3교
2015	**89교**	**60교**	28교	7교	3교	3교	1교

[참고] 2015학년도 정시모집 수능 반영 영역 수 (2~3개)

〈인문 /자연에서 2개 영역만 반영〉
그리스도대, 부산장신대, 영동대, 예원예술대, 청주대, 추계예술대, 호원대
〈인문 /자연에서 3개 영역만 반영〉 *군별 및 모집 단위에 따라 다름
가야대, 가톨릭대, 감리교신학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남과학기술대, 경남대, 경동대, 경운대, 경일대, 경주대, 관동대, 광주여대, 극동대, 금강대, 김천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남부대, 남서울대, 대구외국어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대전신학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서대, 동양대, 루터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배재대, 백석대, 삼육대, 상명대(천안), 상지대, 서남대(남원), 서남대(아산), 서울기독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울장신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한대, 송원대, 순천대, 순천향대, 신경대, 신한대, 아세아연합신대, 안동대, 안양대, 예수대, 용인대, 우석대, 우송대, 장로회신학대, 중부대, 중원대, 차의과학대, 청운대, 평택대, 한경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성서대, 한남대, 한라대, 한림대, 한서대, 한세대, 한신대, 한영신학대, 한중대, 협성대, 호남신학대, 호서대, 홍익대(서울), 홍익대(세종)

9. 정시 분할모집 대학 감소

학년도	가	나	다	가/나	가/다	나/다	가/나/다
2015	27교	23교	17교	**37교**	**28교**	**28교**	**47교**
2014	14교	18교	11교	28교	37교	32교	68교

※15~16학년도에는 모집단위 입학정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만 2개 군까지 분할 모집 가능.
('17학년도부터 금지)

학년도	수시모집	정시모집		
		가군	나군	다군
2015 379,107 명	207개교 243,333명	139개교 53,493 명	136개교 51,989 명	120개교 30,292 명
2014 378,844 명	205개교 251,220명	147개교 46,840	146개교 47,265	148개교 33,519

※ 제2캠퍼스 별도 대학으로 간주. ※ 분할모집 대학도 포함

[참고] 2015학년도 분할모집 하지 않는 대학

모집 군	대 학 명
가 (27개교)	경주대,광신대,광주가톨릭대,광주대,김천대,대전가톨릭대,목포가톨릭대,목포해양대, 부산가톨릭대,부산장신대,서강대,서울대,수원가톨릭대,영남신학대,예원예술대, 울산과학기술대,이화여대,제주국제대,창신대,청운대,총신대,충북대,한경대,한국교원대, 한국체육대,한세대,한일장신대
나 (23개교)	경인교대,고려대(서울),공주교대,광주과학기술원,광주교대,꽃동네대,대구교대,부산교대, 서울교대,세명대,아세아연합신학대,연세대(서울),장로회신학대,전주교대,중앙승가대, 진주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한국교통대,한국국제대,한국기술교육대,한려대,한중대
다 (17개교)	가야대,건국대(글로컬),대구외대,대신대,대전신학대,루터대,서남대,서울장신대,영동대, 영산대,영산선학대,예수대,차의과학대,침례신학대,칼빈대,한국성서대,한동대

[참고] 2015학년도 분할모집 하는 대학

분할	대 학 명
가/나 (37교)	강원대,경북대,경희대,고려대(세종),공주대,관동대,광주여대,금오공과대,남부대,덕성여대 동국대(서울),동아대,동의대,백석대,부경대,부산대,상명대(천안),서울시립대,성균관대(나) 세한대,송원대,숙명여대,연세대(원주),용인대,을지대,전남대,전북대,조선대,중앙대(안성), 충남대,한남대,한밭대,한양대(서울),한양대(에리카),호남대,호남신학대,호원대
가/다 (28교)	강릉원주대,경상대,경일대,계명대,군산대,나사렛대,동국대(경주),동신대,동양대,목포대, 부산외대,삼육대,상지대,서경대,서울신학대,성결대,순천대,숭실대,신경대,인제대,인천대, 중원대,창원대,한국해양대,한라대,한성대,한신대,호서대
나/다 (28교)	감리신대,강남대,경남과기대,경운대,고신대,그리스도대,극동대,금강대,남서울대, 대구가톨릭대,동덕여대,상명대(서울),서울기독대,서울여대,선문대,성공회대,수원대, 순천향대,신라대,안양대,우석대,위덕대,전주대,제주대,한국산기대,한림대,한영신대, 홍익대(서)
가/나/다 (47교)	가천대,가톨릭대,건국대(서울),건양대,경기대,경남대,경동대,경성대,광운대,국민대, 단국대(죽전),단국대(천안),대구대,대구예술대,대구한의대,대전대,대진대,동명대,동서대, 명지대,목원대,배재대,서울과학기술대,서원대,성신여대,세종대,신한대,아주대,안동대, 영남대,우송대,울산대,원광대,인천가톨릭대,인하대,중부대,중앙대(서울),청주대,초당대, 추계예술대,평택대,한국외대(글, 서울),한국항공대,한서대,협성대,홍익대(세종)

[참고] 2015학년도 정시모집 일정

구 분		종 전(2014학년도 기준)	개 선 (2015학년도 기준)
원서접수		1)가, 나, 가나군 :12.19~ 23 2)다, 가다, 나다, 가나다군 : 2013.12.20.(금) ~ 24(화)	2014.12.19(금)~12.24(수) (4일 이상) 전형기간 : 35일 → **28일 단축**
전형 기간	가 군 나 군 다 군	2014.1.2(목) ~ 1.13(월) (**12일**) 2014.1.14(화) ~ 1.24(금) (**11일**) 2014.1.25.(토) ~ 2.5(수) (**12일**)	2015.1.2(금) ~ 1.11(일) (10일) 2015.1.12(월) ~ 1.20(화) (9일) 2015.1.21.(수) ~ 1.29(목)(9일)
합격자발표		2014.**2.5(수)** 까지	2015.**1.29(목)** 까지
합격자등록		2014.2.6.(목) ~ 2.10(월) (5일)	2015.1.30.(금) ~ 2.3(화)(5일)
충원합격자 발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마감 : 2014.2.19.(수)21:00시까지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마감 : 2015.2.11.(수) 21:00시 까지
충원합격자 등록		미등록 충원등록 마감 : 2014.**2.20.(목) 까지**	미등록 충원등록 마감 : 2015.**2.12.(목) 까지**
추가모집		2014.2.21~2.26 / 등록27	2015.2.16(월)~2.23 / 등록 25

모집	전문대 정시모집 원서접수	최초 합격		충원 합격	
		발표	등록	발표	등록
1차	12.19~1.2	1.24까지	1.26~28	2015년 1.29~2.26	
2차	2015.2.10~14	2015. 2월 26일 까지			

10.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 통합

■ 4년제 : 1회차, 2회차 통합 / 전문대 : 모집 횟수 구분

구 분	종 전 (2014학년도 기준)	개 선 (2015학년도)
원서접수	수시 1회차 : 9.4(수)~9.13(금) 중 3일 이상 수시 2회차 : 11.11(월)~11.15(금) 중 3일 이상	9.6(토)~9.18(목) 중 4일 이상 ※추석 및 토 · 일요일 제외(9.7~10) 실제 : 9.11 -18일 8일간
전형기간	9.4(수)~12.2(월)(90일)	9.6(토)~12.4(목) (90일)
수능시험	**11.7(목)**	**11.13 (목)**
합격자 발표	**12.7(토)까지**	**12. 6(토)까지**
합격자 등록	12.9(월)~11(수)(3일)	12. 8(월)~10(수) (3일)
충원합격자 발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마감 : 12.16(월)21:00시까지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마감 : 12.15(월) 21:00시까지
충원 등록	미등록 충원등록 마감 :12.17(화)까지	미등록 충원등록 마감 : 12.16 (화)까지

모집	전문대 수시모집 원서접수	최초 합격		충원 합격	
		발표	등록	발표	등록
1차	9.3(수)~27(토)	2014년 12.7까지	2014년 12.8~10	2014년 12.17까지	2014년 12. 18까지
2차	11.4(화)~18(화)				

11. 고른기회 모집인원 전년 대비 소폭 증가

■ 고른기회 모집인원 : 정원 내 + 정원 외 = 5.2% 증가

구분	모집인원	
	2015학년도	2014학년도
정원내 (고른기회)	4,805명	0명
정원외 (특별전형)	25,591명	28,904명
합계	30,396명	28,904명

전형명 (정원 내)	수시	모집인원	정시	인원	대학수	총인원
농어촌학생	5	173	-	-	5	173
저소득층(기회균형선발)	23	871	2	5	24	876
특성화고교졸업자	7	414	-	-	7	414
특성화고교졸재직자	17	87	4	-	17	87
국가보훈대상자	80	2,293	8	63	88	2,356
만학도및주부	16	223	1	2	17	225
지역고교학생(수도권제외)	8	674	-	-	8	674
소계	**101**	**4,735**	**13**	**70**	**108**	**4,805**

[참고] 고른 기회 입학 전형 확대 예정

■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차원에서 농어촌 출신 학생, 저소득층 학생, 고졸 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함

■ 국립대가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에 주도적 역할

■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은 학생부 위주 전형에 포함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통과

- 의/치/한, 법과대, 의전, 법전, 약학대 등 지방 고교 /대학 출신에서 모집인원 일정 비율 선발

12. 대학입학 사전 예고제 실시

구분	대 입 정 책 (정 부)	대입전형기본사항 (대교협)	대입전형시행계획 (대 학)	모집요강 (대 학)
2017 학년도	중 3, 11월말까지 (3년 3개월 전)	고 1, 8월말까지 (2년 6개월 전)	고 2, 4월말까지 (1년 10개월 전)	고3, 4월말까지 (10개월 전)
2016 학년도		2014. 4 (1년 10개월 전)	2014. 7 (1년 7개월 전)	

※ ( ) 안은 입학년도 3월 1일 기준, 사전예고 시점
※ 개선된 사전 예고제는 2017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
◎ **시행계획 항목 예**: 모집단위(계열)별 모집인원, 지원자격, 수능 필수 응시영역,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학생부의 반영 교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및 가산점 등**
◎ 대입전형 발표 후에는 예외적인 경우 (법령제개정, 행정처분(구조조정))에만 변경 허용

[참고] (가칭)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원서접수, 합격자 사정, 대입정보 제공, 중복 등록자 검증 등 종합적 지원체제

대입상담 → 전현계획 → 원서접수 → 사정지원 → 등록 → 위반자예방 → 학적생성

진로상담	전형계획 수립	원서접수	전형자료 취합	유사도 검색	등록	위반자예방	미충원이월
커리어넷 연계	시행계획 제출	원서접수	수능성적 연계	유사도 검색	합격자 제출	합격자/ 등록자 제출	이월자료 제출
진학상담	시행계획 확정	원서수합	학생부 연계		등록금 납부	위반자 검색	진학률제공
교육청/ 대교협/ 진학상담 안내	입학정보 서비스					위반자 조회	진학률 통계 생성
							고교별 진학률 제공

■ 대학, 대교협, 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장학재단 등 연계
■ 전년도 대입전형 분석 결과 공개
· 모집단위별,전형유형별 경쟁률/실제 등록 인원, 학과별 자료 등
■ 등록 충원 절차 반복에 따른 수험생 및 대학의 불편 해소

[참고] 대학 지원 시 유의해야 할 사항

1) 원서 접수를 부모님 ID로 접수했어요!
인터넷 원서접수는 회원과 원서접수자가 동일해야 하므로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ID로 로그인한 후 접수하자.
2) "전형료 결제하다 비밀번호를 틀렸어요"
비밀번호를 3회 이상 틀리면 해당 통장과 카드로 결제할 수 없음.
해당 원서접수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를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결제 완료 즉시 접수취소가 불가능. 사진도 미리 스캔 필요
3) 전문대/ 산업대/ 특수목적대는 수시모집에 6회 지원 을 받나요
4) 수시 합격자가 또 다른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할 수 있나요
5) 수시모집 전문대 /산업대 / 특수목적대 / 일반4년제 대학에 합격하면 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나요
6) 수시모집 합격자가 미등록하면 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나요
7) 정시모집에 합격/등록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나요?
8) 충원 합격자는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9) 수시 복수 합격자의 등록예치금은 1군데만 납부해야 하나요
10) 반수생은 반드시 자퇴를 해야 하나요

II. 고2,3 학생의 대입 준비

1. 방향잡고 대입 준비하기! -목표대학 설정은 어떻게?

- 희망 대학이 합격 가능 대학은 아니다 !
- 대학 입시는 상대평가이다!
- 내신 성적이 수시 합격 가능선 아니다 !

1) 목표 대학을 냉정하게 설정하고, 방향잡고 준비해라.

◈ 대학 합격은 점수가 아니라, 석차이다.

◈ 모의고사 성적 백분위에 기준을 두고 목표대학을 정하라.

- 학생부 종합 전형/특기자 전형은 상향 지원 가능

◈ 전략적인 수능 공부 (2+1형태, A/B 형 선택)

2) 수시 목표 대학도 모의고사 성적이 기준이다.

◈ 수시 목표대학은 정시 합격 가능 대학과 비교해라

-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모집에 지원 못함.(전문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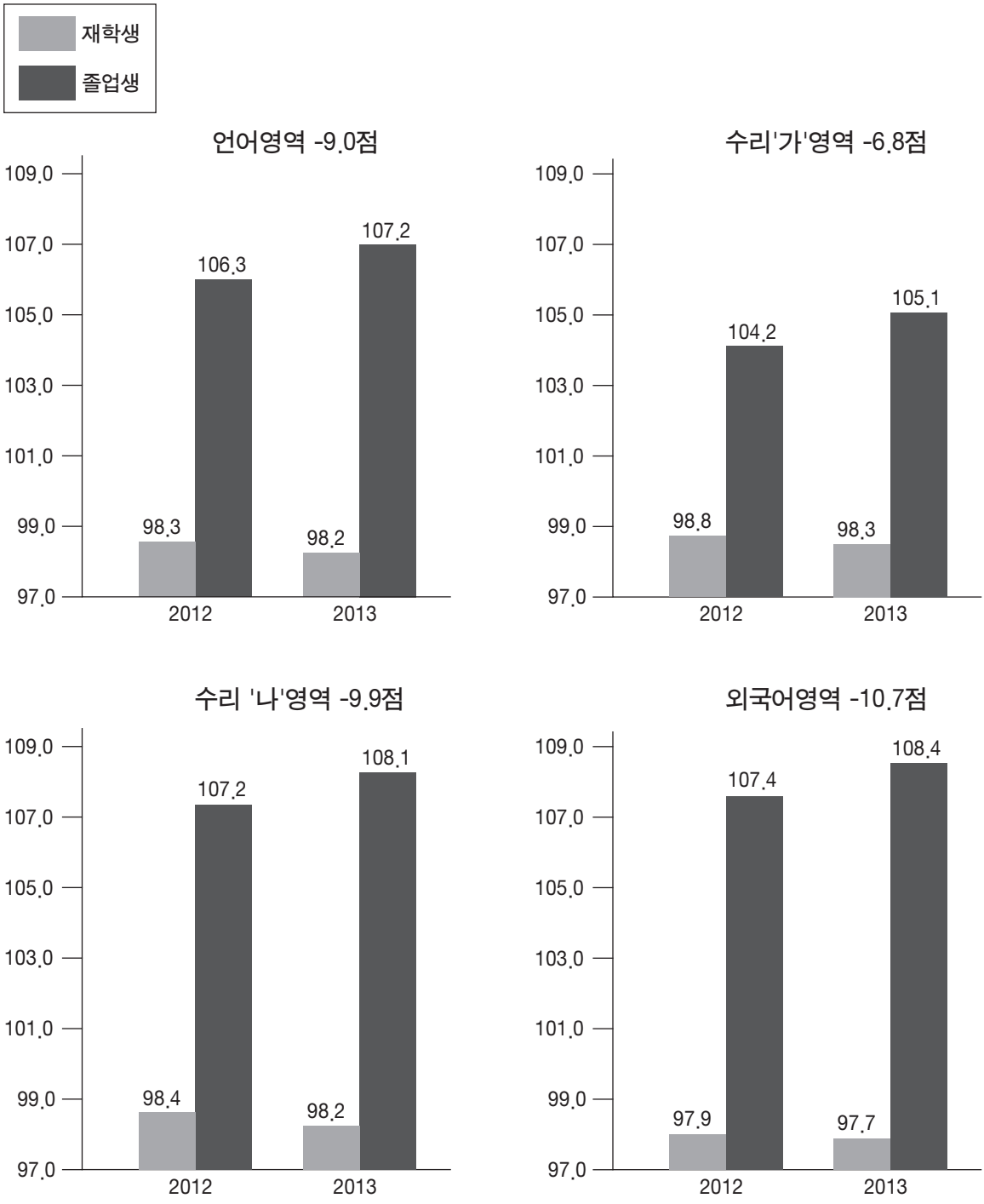
◈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조건 반드시 고려

[참고] 대수능 응시자 수로 본 수능 성적의 변수

구분		2014학년도	2013학년도	차
3월 학평	재학생 응시자	528,367	535,623	-7,256
4월 학평		514,391	523,475	-9,084
9월 모평 응시자	재학생	520,035	530,991	-10,956
	졸업생	74,293	82,786	-8,493
	계	594,328	613,777	-19,449
금년도 수능 지원자 응시자	재학생	509,081(78.2%) 477,297(78.7%)	510,972(76.4%) 476,449(77%)	-1,891 +848
	졸업생	141,666(21.8%) 129,516(21.3%)	157,550(23.6%) 144,887(23%)	-15,884 -15,371
	계	650,747명 606,813명	668,522명 621,336명	-17,775 -14,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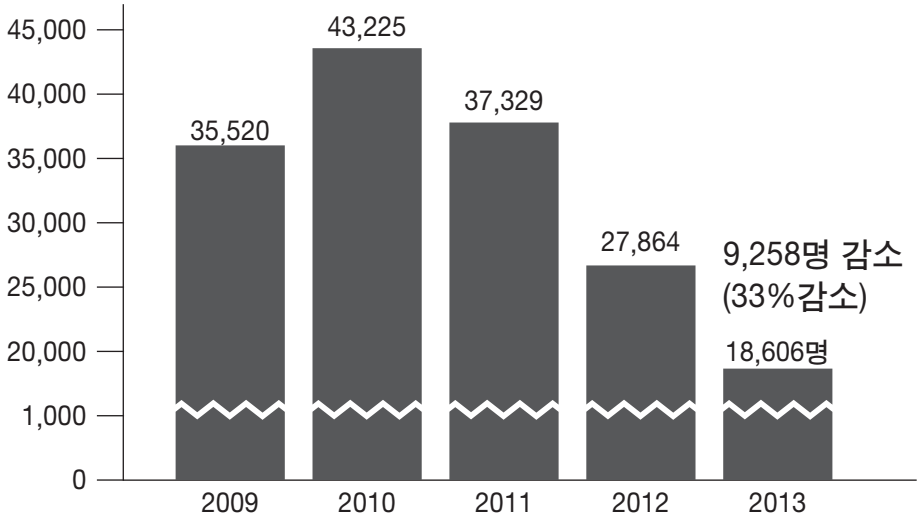
▶ 직탐 수능 지원자 수: 1만3천100명(9월모평: 3만1천635명)

[참고] 2012 / 2013학년도 재학생, 졸업생의 표준점수 평균 비교



[참고] 직업 탐구 응시자 수 변화

학년도	6월 모평	9월 모평	대학수학능력 시험
2014	38,962	24,359	13,100 (**-25,862**)
2013	50,390	34,728	18,606
2012	67,608	49,733	27,864



[참고] 고교 종류(2,318교. 학년당 약 62만 9천 5백명) 2013. 5

일반고등학교 1,524 개교(65.7%) 1년 학생수 : 약 45만명	평준화 고 (1,294) / 비평준화 고 (230) 일반고 (1,389) / 종합고 (135)
특수목적고등학교 135개교 (5.8%) 학생수: 약 2만 2천명	외고(31) / 국제고(7) /과학고(21) 영재고 (4) 예술고 (27) / 체육고 (14) / 마이스터고 (35)
자율고등학교 165개교 (7.1%) 학생수: 약 4만9천8백	자율형사립고 49/ 자율형공립고 116/ 혁신고/ 자립형사립고/ 기숙형공립고 / 농어촌자율고
특성화고등학교 494개교 (21.3%) 학생수: 약 10만7천5백	직업학교 473 / 대안학교 21
기타	외국인학교/ 각종학교

2. 학교 공부가 곧 대입이다!

1) 수능과 논술의 출발점
   수능 → 암기가 아니라, 이해력과 사고력 문제
   논술 → 단독 교과형 문제로 출제 경향 변화(탐구활동)
2) 수시 모집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는 절대적
3)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중요
4) 2015수능개편 : 교과중심 출제←범교과적 출제
5) 정시 모집 : 물 수능. 중위권 대학, 국립대는 중요

[TIP] 교과 성적 올리는 비법

학교 시험은 교사가 출제한다.
수업에 충실하려면 예습을 하자.
복습은 쉬는 시간에 즉시 하자.
실력향상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다.
오답 노트 정리를 습관하자
시험 공부는 거꾸로 해보자.

3.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자. - 대입에서 학생부 평가 방법

학생부 항목	평가 요소
1. 인적사항	학습 환경 파악, 환경 극복 의지
2. 학적사항	학교환경 파악, 준법성, 인성 등
3. 출결상황	성실성, 학업의지, 준법성 등
4.수상경력(모범상,선효행 등)	자기주도성, 학업역량, 전공적합 등
5.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 파악
6. 진로희망사항	갈등 관리 등
7.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리더십, 나눔과 배려, 사회성 등
8. 교과학습발달상황 (세특)	성실성, 도전정신, 의사소통 등
9. 독서활동상황	지적 호기심, 전공적합성 등
1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책임감, 공동체, 리더십, 사회성

[참고] 입학사정관 전형 어떤 자료를 갖고 평가하나?

자료	주요 평가 내용 및 활용 방법
1)학교생활기록부	- 교과 성적 : 지원한 전공과 관련된 과목의 성취 여부 - 학년 변화에 따른 성적의 변화 추세 - 비교과 영역 : 각종 교내 활동 등
2)자소서	- 학교생활충실도, 인성, 학습환경, 잠재 능력 등
3)추천서	- 학교생활충실도, 인성, 학습환경 등
4)포트폴리오	- 학교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의 증빙자료 -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의 소명자료
5)Edupot	- 비교과 영역 : 독서, 동아리, 봉사, 특별활동 등
6)프로파일	- 학습환경 확인 자료로 활용
7)심층 면접	-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인성, 학업적성, 탐구, 대인, 내적, 특정 역량, 잠재력 등)

[참고] 누가 학생부 종합 전형감인가?

1) 분명한 진로 목표를 갖고 관심 분야에 열정을 쏟은 학생
2) 독서나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면접에 자신있는 학생
3) 지원학과 관련된 교과성적, 봉사, 동아리, 체험활동이 우수한 학생
4) 교내 경시대회 수상 실적이 우수한 학생
5) 학교생활에 성실하고, 성적이 꾸준히 향상된 학생
6) 어려운 교육적 환경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학생
7) 사교육 도움 없이 자기주도학습을 한 학생
8)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학생
9) 적극적이고 도전적이며 리더로 인정받는 학생
10) 지원 대학 인재상에 부합한 학생

◈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관심 가지지 말아야 할 학생
1) 진로 목표가 불분명하고, 성적이 하향한 학생
2) 모의고사 성적은 좋으나 교내 활동이 없는 학생

[Tip] 입학사정관 전형은 스펙 경쟁이 아니다!
▶ 2013년 대학 입학사정관 역량 강화 지원 사업 가이드라인(2013. 5. 8)

▲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학생부 기록 이외에 교외 활동 미반영
- 학생부에 미기록된 활동을 자기소개서 '입증자료'제출 엄격히 금지 (모집요강에 명시)
-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외부 스펙 기재 · 서류 점수 0점
- 공인어학성적 및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올림피아드,KMO 등), 영재교육원 이수 여부 등
- 2017 학년도에는 특기자 전형에서도 적용
- 입학사정관제는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으로 운영
▲ 유사도(표절) 검색시스템 및 유사도 검증 가이드라인 준수
▲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공통양식 활용

[참고] 자기소개서 평가 시 식상한 문구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했다.	학교생활을 3년간 충실히했다.
사교육의 도움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구성원 사이의 의견 다툼을 중재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따돌림 당하는 학생을 잘 도왔다
대학원에 진학하겠다.	합격만 시켜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남을 배려하는 마을을 길렀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4. 수학! 독서!가 중요하다.

1) 학생의 가장 큰 장벽! 수학
- 이번 겨울 방학은 중학교 수학 정복
- 고교 수학은 한 학기 정도만 예습

2) 독서를 하자.
- 고교 공부는 이해력과 사고력이 중요

[참고] 수학 과목에서 좋은 등급이 나온다!

등급	언어 (국어)						수리 '나' (A)					수리 '가' (B)					외국어(영어)					
	10	11	12	13	2014		10	11	12	13	14	10	11	12	13	14	10	11	12	13	2014	
					A	B															A	B
1	94	90	94	98	**96**	**96**	**90**	**90**	**95**	**92**	**92**	90	79	89	92	**92**	92	90	97	93	95	93
2	89	85	88	95	**91**	**92**	**83**	**76**	**87**	**81**	**83**	82	72	83	83	**84**	85	83	94	84	89	88
3	84	79	81	90	**84**	**87**	**70**	**61**	**73**	**70**	**70**	73	64	75	76	**74**	75	74	87	75	83	81
4	76	72	72	83	**76**	**79**	**49**	**43**	**54**	**53**	**48**	64	55	65	65	**62**	64	64	75	64	71	72
5	67	62	61	73	**64**	**68**	**30**	**26**	**33**	**35**	**30**	52	44	52	52	**47**	50	51	59	52	57	62

[참고] 탐구 과목은 쉽지 않다!

■ 탐구과목 응시자 수의 감소
- 등급이나 백분위 성적에서 전년도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
■ 받쳐주는 과목 상실
- 상위 등급이나 백분위에서 전년도보다 불리할 수 있다.
▶ 과탐 과목은 대입에서 반영 비율도 높은 편
▶ 사탐 선택 방법
1) 지원학과와 관계되는 과목
2) 3학년 때 배우는 과목
3) 전국적으로 응시 인원이 많은 과목

[참고] 수능 사탐 과목별 응시자 전년대비 비율

학년도 응시생	생활과 윤리	한국사	한국 지리	경제	사회 문화
2014 응시생	**137,054 (40.7%)**	42,529 **(12.6%)**	112,459 **(33.4%)**	13,420 **(4.0%)**	**155,249 (46.0%)**
2013 응시생	윤리: 150,657 **(44.1%)**	국사:43,918 (12.8%) 근현:158,269 (46.3%)	172,165 **(50.4%)**	32,701 (9.6%)	221,473 **(64.8%)**
응시생 수 차	- 13,603	- 1,389	- 59,706	- 19,281	- 66,224
증가율	91%	96.8%	65.3%	41.0%	70.1%

[참고] 수능 과탐 과목별 응시자 전년대비 비율

학년도 응시생	물리 I	화학 I	생학 I	지학 I	물리 II	화학 II	생학 II	지학 II
2014 응시생	52,692	**136,761**	**137,375**	78,836	5,758	10,200	**39,676**	10,442
2013 응시생	85,635	155,597	170,909	140,779	21,121	34,540	72,416	27,550
응시생 수 차	-32,943	-18,836	-33,534	-61,943	-15,363	-24,340	-32,740	17,108
전년대비증가율	61.5%	87.9%	80.4%	56%	27.3%	29.5%	54.8%	37.9%

[TIP] 제 2외국어도 대입 전략 과목

백분위	사탐	제2외국어 /한문	과탐
	최고점(윤사/한자) : 69 최저점(국사/경제) : 64	**최고점 (기베트) : 89 최저점 (독일어) : 65**	**최고점 (지학1) : 73 최저점 (물리2) : 66**
100	66.4	73.33	69.62
99	66.2	72.72	68.5
98	65.85	71.88	67.25
97	65.48	71.05	66.46
96	65.1	69.97	65.83
95	64.7	69.2	65.32
94	64.33	68.13	64.81
93	64.02	67.09	64.36
92	63.7	65.93	63.91
91	63.38	64.58	63.53
90	63.02	63.16	63.13
89	62.74	62.52	62.78

[참고] 탐구 과목의 보정 점수 실제 적용 시 점수 변화

인문계열 최고 표준점수						최저 표준점수		
국어B	수학A	영어B	윤사	한지	**총점**	한국사	경제	**총점**
131	143	136	69	69	**548**	64	64	**538**
	인문계열 변환표준점수 산출					**- 6.5 + 3.5**		
	국어B	수학A	영어B	한지(100)	한국사(96))	**총점**		
	131	143	136	66.4	65.1	**541.5**		
자연계열 최고 표준점수						최저 표준점수		
국어A	수학B	영어B	지학1	화학2	**총점**	생물2	물리2	**총점**
132	138	136	73	72	**551**	67	66	**539**
	자연계열 변환표준점수 산출					**- 5.76 +6.24**		
	국어A	수학B	영어B	탐구1(100)	화학2(100)	**총점**		
	132	138	136	69.62	69.62	**545.24**		

5.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시험이 아니다.

전국연합학력 평가 일정 표 (2014년)				
월	1 · 2학년		3학년	
3월	12 (수)	서울 교육청	12 (수)	서울 교육청
4월			10 (목)	경기도 교육청
6월	12 (목)	부산 교육청	12 (목)	수능 모의평가
7월			10 (목)	인천 교육청
9월	3 (수)	인천 교육청	3 (수)	수능 모의평가
10월			7 (화)	서울 교육청
11월	18 (화)	경기도교육청	13 (목)	대학수학능력시험
횟수	학년별 4 회		총 6 회	

※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 횟수 및 시행일은 추후 조정 가능

6. 진로 목표를 갖고 공부하자

〈 진학 및 진로 상담 사이트 소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 : 1600 -1615 · http://univ.kcue.or.kr · 진로진학정보 - 입학관련자료실 · 대학입학정보, 전형정보안내, 대입자료안내, 입학사정관제
〈각 시도 교육청 진학진로정보센터〉 · 진학진로상담실(온라인상담, 방문상담): 현직교사, 전문인상담
〈EBS 교육 방송〉 http://www.ebsi.co.kr
〈커리어넷〉 http://www.careernet.re.k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02-3485-5000/5100 · 종합심리검사(아로플러스), 직업사전, 학과사전

※ 부모님이 학생에게 투자하는 돈은 얼마일까?

〈 1인당 양육비 (보건사회부, 복지부) 〉

시기	2007년	2009년	2013년
영아기(0~2세)	2,264만원	2,466만원	3,063.6만원
유아기(3~5세)	2,692만원	2,938.6만원	3,686.4만원
초등학교(6~11세)	5,652만원	6,300만원	7,596만원
중학교(12~14세)	3,132만원	3,535.2만원	4,122만원
고등학교(15~17세)	3,592만원	4,154.4만원	4,719.6만원
대학교(18~21세)	5,865만원	6,811.2만원	7,708.8만원
전체(출생~대학졸업)	**2억3천197만원**	**2억6천205만원**	**3억897만원**

Part 2

2015학년도 수능전망과 대입합격 전략

오 종 운

-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이사
-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출연 中

〉 2015학년도 수능 경향 분석과 대책

〉〉 2014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과 성적 결과 분석

〉〉〉 2015학년도 대학별 논술 전형 분석과 대책

〉〉〉〉 2015학년도 대학별 적성 전형 분석과 대책

1. 2015 수능 경향 분석과 대책

2015학년도 수능은 국어, 수학은 수준별 수능(A/B형)으로, 영어는 통합하여 실시된다.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에서 최대 2과목까지 응시할 수 있다.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은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2014 수능과 비교할 때, 영어 영역 A, B형이 통합되어 실시되는 것을 제외하면 출제 범위, 배점, 문항 수 및 시험 시간은 동일하다.

유형 선택에서도 국어B와 수학B를 동시에 선택하는 것은 전년도 수능과 마찬가지로 제한되고, 다른 것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응시할 수가 있다.

2015 수능 시험일은 11월 13일(목)이고 성적 통지는 12월 3일(수)이다.

〈2015 수능 시행 방안 개요〉

교시	영 역		문항수	시험 시간(분)	배점(점)	비 고
1	국어		45	80	100	· A/B형 중 택1 (A형 : 화법과작문I, 독서와문법, 문학I) (B형 : 화법과작문II, 독서와문법II, 문학II)
2	수학		30	100	100	· 주관식 30% 출제(9문항) · A/B형 중 택1 (A형 : 수학I, 미적분과통계기본) (B형 : 수학I, 수학II, 적분과통계, 기하와벡터)
3	영어		45	70	100	· 듣기평가 축소 : 17문항 · 통합형 (영어I, 영어II)
4	탐구 (택1)	사회 (10과목)	과목당 20	과목당 30	과목당 50	· 10과목 중 최대 2과목 선택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한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 (8과목)	과목당 20	과목당 30	과목당 50	· 8과목 중 최대 2과목 선택 (물리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물리II, 화학II, 생명과학II, 지구과학II)
		직업 (5과목)	과목당 40	과목당 60	과목당 100	· 5과목 중 1과목 선택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5	제2외국어/ 한문		과목당 30	과목당 40	과목당 50	· 제2외국어 8과목 및 한문 중 택 1 (독일어I, 프랑스어I, 스페인어I, 중국어I, 일본어I, 러시아어I, 아랍어I, 기초베트남어, 한문I)

(1) 국어 영역

국어A형의 출제 범위는 화법과 작문I, 독서와 문법I, 문학I, 국어B형의 출제 범위는 화법과 작문II, 독서와 문법II, 문학II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한다.

A, B형 각각 화법(듣기, 말하기) 부문에서 5문항이 출제되고, 작문 부문 A, B형 각각 5문항, 문법 부문 A형 5문항, B형 6문항, 읽기 부문이 A, B형 각각 문학 15문항, 독서(비문학)는 A형 15문항, B형 14문항 등 총 45문항이 출제된다.

[표] 2015 수능 국어A/B 문항별 구성 비교

유형	문항수	
	A형	B형
화법	5 문항	5 문항
작문	5 문항	5 문항
문법	5 문항	6 문항
문학	15 문항 (5세트)	15문항 (5세트)
독서(비문학)	15 문항 (5세트)	14 문항 (5세트)
전체	45 문항	45 문항

국어 A형은 I과목, 국어 B형은 II과목 범위에서 나오면서, A형은 쉬운 수능의 취지에 맞추어 개념과 지식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B형은 개념과 원리를 실제 담화나 글에 적용하는 활동을 중시하여 출제된다. 그리고 국어 I과목과 II과목에 공통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기본 내용에 대한 이해 평가를 위하여 A형, B형의 공통 문항이 30% 범위내에서 15개 문항이 출제될 예정이다.

다만, 국어 A형은 주로 의대 지망생을 포함한 자연계 학생들이, B형은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므로 문항 유형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인 난이도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습 방법] 국어 A/B형 각각의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과목별 교육과정의 기본 지식과 개념,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국어 A형에서는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과목별 교육과정의 기본 지식과 개념, 원리에 대한 이해와 탐구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국어 B형에서는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과목별 교육과정의 기본 지식과 개념, 원리에 대한 이해와 탐구 능력은 물론 새로운 상황에의 적용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기초적인 어휘의 의미와 용법을 정확하게 습득하고 문장 및 문단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글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 다양한 담화 원리를 이해하여 담화의 내용과 형식을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다양한 목적의 글쓰기에 맞게 내용을 생성・조직・표현하고, 잘못된 내용을 고쳐쓰도록 한다.

비문학 읽기에서는 여러 분야의 글을 폭넓게 읽으면서 기본 개념이나 대상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비판할 수 있도록 한다.

문학은 교과서 내외의 다양한 작품들을 폭넓게 읽으면서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감상을 하도록 한다.

* [학습 방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학습방법 안내 자료 참조(이하 마찬가지)

(2) 수학 영역

수학 A형의 출제 범위는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며, 수학 B형은 수학Ⅰ,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에서 출제된다. 2014 수능 수학부터 A, B형 모두 세트형 문항이 출제된 점이 특징이다.

단원별로 수학 A형 시험은 수학I 15문항, 미적분과 통계 기본 1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수학 B형은 수학I 7문항, 수학II 8문항, 적분과 통계 7문항, 기하와 벡터 8문항으로 고르게 구성되었다.

A형과 B형이 같은 내용을 다루는 문제라고 하여도 수준별로 문항 출제를 달리한 점도 특징인데, 행렬의 계산, 확률의 계산, 확률밀도함수 등을 묻는 문항에서 A형은 기본 개념 위주로 쉽게, B형은 약간 난이도가 있는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였다.

난이도로 보면 수학 A형은 수학 B형에 비해 종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 보다는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 중심으로 출제한다.

[학습 방법] 수학 대비 방법은 가장 상투적인 말이 될지라도 가장 기본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 특히, A형은 단원별 기본 개념 학습에 충실해야 하고, B형도 과목수가 4개 과목에 달하지만 단원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 능력을 기른다고 하면 충분히 대비가 될 것이다.

수준별로는 수학 A형의 경우에 '미적분과 통계 기본' 과목에서 지나치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

수학B형은 종전 수리가형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전 수능 수준 정도에서 준비하면 될 것이다.

수학 문제해결의 기본 수단인 기본적인 계산 능력과 전형적인 문제해결 절차인 알고리즘 구사 능력을 기른다. 문제 상황에서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수학의 기본 개념 · 원리 · 법칙의 이해 능력을 기른다.

수학적 개념 · 원리 · 법칙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성질로부터 특수한 성질을 연역하기, 반례 찾기, 관찰 등을 통해 유사성을 유추하기, 상황을 단순화하거나 특수화하여 규칙성 찾아보기 등의 수학적 추론 능력을 기른다.

여러 가지 수학적 개념 · 원리 · 법칙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문제, 다른 교과 상황을 소재로 한 수학 문제, 수학을 적용하는 다양한 실생활 문제 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하나의 상황에 대한 2개 이상의 문항(세트형 문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어진 상황을 보다 깊이 탐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3) 영어 영역

2015 수능 영어는 2014 수능과 달리 통합형으로 시행된다. 이전 수능과 비교하여 세부 유형별 문항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수능 영어 2014 수준별과 2015 통합형 세부 유형 문항수 비교

구분	세부 유형	2014 수준별 수능	2015 통합형 수능	비교(증감)
듣기	대의 파악	5 문항	3 문항	**2문항 감소**
	세부 사항	9 문항	7 문항	**2문항 감소**
	간접 말하기	6 문항	5 문항	**1문항 감소**
	복합	2 문항	2 문항	동일
	[소계]	22 문항	17 문항	**5문항 감소**
읽기	대의 파악	3 문항	6 문항	3문항 증가
	문법.어휘	3 문항	3 문항	동일
	세부 사항	2 문항	4 문항	2문항 증가
	빈칸 추론	7 문항	4 문항	**3문항 감소**
	간접 쓰기	3 문항	6 문항	3문항 증가
	복합	5 문항	5 문항	동일
	[소계]	23 문항	28 문항	5문항 증가
전체		45 문항	45 문항	90동일

먼저, 영어 듣기 17문항은 대의 파악(하향 이해) 3문항, 세부 사항(상향 이해) 7문항, 간접 말하기 5문항, 복합(세트형 문항, 1대화 · 담화문 2문항) 2문항 등으로 종전과 비교하여 듣기 대의 파악과 세부 사항은 각각 2문항 감소하고, 간접 말하기는 1문항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종전 듣기 22문항과 비교하여 5문항 감소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2014 수능 영어 A형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지도를 활용한 길 찾기'문항은 더 이 상 출제되지 않고, 둘째, 대의 파악, 세부 사항, 간접 말하기에 해당하는 문항 수가 각각 2개, 2개, 1개씩 줄어든다. 셋째, 대의 파악 유형에서는 '대화 · 담화 주제'문항이 2문항에서 1문항으로 줄어들고, 넷째, 세부 사항 유형에서는 '한 일/할 일/부탁한 일'과 '담화 내용 일치/불일치'문항이 각각 2문항에서 각각 1문항으로 줄어든다. 다섯째, 간접 말하기의 '짧은 대화 응답' 문항의 경우 3문항에서 2문항으로 줄어든다.

다음으로 영어 읽기 28문항은 대의 파악(하향 이해) 6문항, 문법 · 어휘 3문항, 세부 사항(상향 이해) 4문항, 상호 작용(빈칸 추론) 4문항, 간접 쓰기 6문항, 복합(1지문 2문항, 1지문 3문항) 5문항 등으로 종전과 비교하여 읽기 대의 파악과 간접 쓰기는 각각 3문항씩 증가하고, 세부 사항은 2문항 증가한 반면에 상호 작용(빈칸 추론)은 3문항 감소하였다.(* 비교 대상은 2014 영어B형 기준). 전체적으로는 종전 읽기 23문항과 비교하여 5문항 증가하였다.

확대되는 문항 유형을 살펴보면, 목적/주장/시사점/주제/요지/제목 등의 대의 파악 문항 유형에서 3문항, 내용 일치/불일치 등의 세부 사항 문항 유형에서 2문항, 그리고 무관한 문장 찾기/글의 순서 배열/문장 삽입/문장 요약 등의 간접 쓰기 문항 유형에서 3문항이 늘어난다. 반면에 단어/구/절/문장/연결사 등의 빈칸 추론은 3문항 축소된다.

전체적인 시험지 구성과 듣기 평가 시간은 총 문항 수가 45문항으로 동일하지만 듣기 문항 수가 종전 22문항에서 5문항 감소한 17문항이 출제되므로 듣기 평가 시간이 종전과 비교하여 5분 감소한 25분 이내가 된다. 이에 따라 읽기 시간은 총 시험 시간이 70분으로 동일한 관계로 45분 정도(종전은 40분 정도)가 되어, 문항 수 증가에 따라 읽기 시간도 자연히 5분 정도 늘어났다.

[표] 수능 영어 2014 수준별과 2015 통합형 시험지 구성 비교

구분		2014 수능		2015 통합형 수능
유형		A형	B형	통합
출제 범위		영어, 영어I	영어II, 영어독해와작문 심화영어회화	영어I,영어II
문항수	총 문항	45 문항		45 문항
	듣기	22 문항		17 문항
	읽기	23 문항		28 문항
시험시간		70분 (듣기평가 : 30분 이내)		70분 (듣기평가 : 25분 이내)
총점		100점		100점
배점		2, 3점		2, 3점

2015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세부 유형의 문항 수 변화에 맞추어 읽기 부문에서 대의 파악, 간접 쓰기, 세부 사항 등의 문항 수 증가에 대비하고, 빈칸 추론은 문항 수는 축소되었지만 변별력이 높은 유형이므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난이도 높은 문제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의 파악'은 일상생활 관련 소재를 비롯하여 인문, 사회, 예술, 과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핵심 내용을 유추해 보며 글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사항을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세부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직접적으로 제시된 정보를 사실적 이해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한 데, 평소 광고문, 안내문 등과 같은 실용문을 포함한 다양한 읽기 자료를 자주 읽고, 글의 특성에 따른 정보 제시 방식을 고려하여 내용을 파악해 보는 연습이 효과적이다.

'간접 쓰기'는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문학, 시사 문제 등의 다양한 글을 읽으면서 글의 중심 내용과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문장과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여 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판단해 보는 연습이 도움이 된다.

'빈찬 추론'은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글의 주제나 요지와 관계가 있거나 주요 세부 사항과 관련된 것이다. 사실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논리적으로 추론함으로써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나 구, 절, 문장, 연결사를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평소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문학, 시사 문제 등의 다양한 소재의 글을 빠르게 읽어 가면서 글의 중심 내용과 전체적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이 효과적이다.

(4) 탐구 영역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 영역, 과학탐구 영역, 직업탐구 영역으로 구성되는 데, 수험생들은 이 중 한 영역을 택하여 최대 2과목까지 응시할 수 있다.

사회탐구 영역의 시험은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윤리적(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역사적(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지리적(한국지리, 세계지리), 사회적 상황(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을 소재로 제시하고, 사회과학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대학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사회과학적 탐구 능력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사회탐구 시험은 개념・원리의 이해, 문제 파악 및 인식,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평가, 가치 판단 및 의사 결정 등 6가지 평가 요소를 고르게 측정한다.

과학탐구 영역의 시험은 대학 교육을 이수하는 데 요구되는 과학 개념(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단순한 과학적 사실뿐만 아니라 개념, 원리, 법칙, 이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 및 과학적 탐구 사고력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다양한 탐구 상황에서 측정한다.

과학탐구 영역의 평가 문항은 다양한 탐구 상황에서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의 요소를 평가 하도록 구성한다. 내용 영역에는 과학 교과 각 과목(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며, 행동 영역에는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평가와 같은 탐구 기능요소뿐 아니라 주요 과학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을 함께 평가한다. 또한, 탐구 상황 영역에는 순수 과학적 상황뿐 아니라 실생활 상황의 소재도 사용한다.

직업탐구 영역의 시험은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기초한 직업기초능력평가의 문제해결 영역(전공필수) 교과 내용을 보다 쉽게 학습하고 더욱 발전 심화시킬 수 있는 각종 문제 상황을 바탕으로 산업수요맞춤형 특수목적(마이스터) 및 직업계열 특성화 고등학생이 동일・유사계열 대학에서 전공 내용을 수학하는데 필요한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직업탐구 영역 시험 과목별 출제 범위는 '농생명 산업' 시험 과목에는 '농업 이해' 및'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시험 과목에는 '공업 입문' 및' 기초 제도', '상업 정보' 시험 과목에는 '상업 경제' 및 '회계 원리', '수산・해운' 시험 과목에는 '해양 일반' 및 '수산・해운 정보 처리', '가사・실업' 시험 과목에는 '인간 발달' 및' 컴퓨터 일반 과목'이 출제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학습 방법]
〈사회탐구 영역〉
사회탐구 영역을 구성하는 교과목 내용의 핵심 개념과 원리를 이해한다. 이를 위해 해당 교과서의 단원별 목표와 주요 개념들을 요약 · 정리해 본다.

교과서에 소개된 각종 도표, 지도, 연표, 그림, 그래프 등의 작성 과정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 본다. 특히, 통계 자료의 경우 경향성을 파악하여 예측해 본다.

사회탐구 영역의 교과목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서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 매체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사회적 쟁점이나 소재 등에 대한 기사를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해 본다.

하나의 사실이나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가지의 사실이나 개념을 서로 관련 지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관련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본다. 단원 간 통합 문항의 출제가 권장되므로 여러 단원에서의 관련 내용을 종합하는 연습을 해본다.

〈과학탐구 영역〉
과학의 탐구 과정인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평가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탐구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적용해 본다.

수능에서는 측정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석하는 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교과서에 제시된 그림, 그래프, 표 등을 해석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 과정에 대한 이해 및 실험 도구의 사용법을 익히고, 과학에서 사용하는 단위, 기호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한다.

수능은 과학적 상황뿐만 아니라 실생활과 관련된 상황도 문제 상황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과학 개념을 실생활의 문제나 자연 현상 설명에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한다.

〈직업탐구 영역〉
각 선택과목 출제 범위에 속하는 과목들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 근거하여 해당 과목의 내용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상의 학습 내용 전반에 걸쳐 고르게 학습한다.

각 출제 범위에 속하는 과목들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 및 원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학문 · 이론, 실험 · 실습, 일상생활, 직장생활 등과 관련 있는 지문 및 자료들로 구성된 각종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문제해결능력을 키운다.

각 출제 범위에 속하는 과목들의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근거하는 각종 실험 · 실습 상황 및 방법과 그 속에 내포된 개념 및 원리, 그리고 기자재 종류와 용도, 사용법 및 유의 사항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험 · 실습 활동을 통해 실제로 적용해본다. 최근에 전공과 관련된 각종 법률이나 제도, 규칙, 용어, 기술 등이 어떻게 변화되고 발달되었는지를 정확히 이해한다.

[* 2015 수능 대학별 반영, '탐구의 역습' : 탐구 과목의 중요성이 커졌다]
최근까지 수능에 대한 정부의 학습 경감 정책에 의하여 2005 선택형 수능 실시 이후 탐구 최대 선택 과목수가 초창기 4과목에서 3과목, 2과목으로 축소되어 국어, 수학, 영어 영역에 비하여 탐구 영역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

그런데, 2015 대입 전형에서 우선선발 금지와 수능 최저학력기준에서 백분위 활용 지양 및 완화 방침에 의하여 대학들이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반영에서 일반적으로 탐구 과목을 포함하고, 정시에서도 탐구 반영 비중이 종전보다 늘어나 '탐구 과목의 중요성'이 종전보다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이른바 "탐구의 *역습"이 나타난 것이다.

[표] 2015 수시 서울 주요 대학별 인문계열 수능 최저학력기준 변화 비교

대학	수능최저학력기준	비고(2014 수시)
고려대	[인문계] 국어B, 수학A, 영어, 사탐 중 3개 영역 2등급 이내 [경영, 정경, 자유전공] 국어B, 수학A, 영어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5이내	[우선] 국어B, 수학A, 영어B 등급합 4 [일반] 국어B, 수학A, 영어B, 사회탐구 중 2개 영역 2등급
서강대	국어B, 수학A, 영어, 탐구 중 3개 영역 각각 2등급 이내 (제2외 탐구 대체 가능)	[우선] 국어B, 수학A, 영어B 백분위 합 286(경영, 경제), 284(인문, 사회)내 [일반] 국어B, 수학A, 영어B, 탐구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서울시립대	국어B, 수학A, 영어, 사회/과학 중 2개 등급합 4이내	[인문] 국B, 수A, 영B 중 2개 등급합 4 이내 [경영,도시행정] 국B, 수A, 영B 등급합 6 이내
연세대	[인문] 국어B, 수학A, 영어, 탐구(1과목) 중 4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6이내	[우선] 국어B, 수학A, 영어B 등급합 4 [일반] 국어B, 수학A, 영어B, 탐구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역습 [逆襲] : 공격을 받던 쪽이 갑자기 역으로 공격에 나섬.

예를 들어 연세대는 2014 인문계 열 수시 우선선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국수영 등급의 합 4이내로 탐구 영역은 배제되었지만 2015 대입 전형에서는 국수영탐(1) 4개 영역 등급의 합 6 이내로 탐구 영역이 포함되었다. 서강대 인문계열도 국수영탐 중 3개 영역 2등급, 서울시립대는 국수영탐 중 2개 영역 등급합 4이내 등으로 올해부터는 탐구 영역이 포함되어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설정되었다. 고려대는 인문계열 일반학과 기준으로 국수영탐 중 3개 영역 2등급으로 탐구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자연계열은 계열의 특성상 수능 최저학력기준 반영시 과학탐구가 포함되어 반영되었고, 정시에서도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중요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정시에서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성균관대는 2014 인문계열 우선선발 기준에서 탐구가 배제된 국어, 수학, 영어 3개 영역을 반영하다가 2015 정시에서는 탐구가 포함되어 반영되며 나군 기준으로 국어 20, 수학 30, 영어 30, 탐구 20으로 반영된다.

한양대는 2014 정시에서 탐구 반영 비중이 인문계열은 10%에 불과하였지만 2015 정시에서는 국어 25, 수학 25, 영어 25, 탐구 25로 반영 비율이 대폭 늘어났다.

또한,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국어A형도 영어가 A, B형 통합되어 실시되는 관계로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할 때 일반적으로 국어A형을 포함하는 대학들이 많고, 정시에서도 반영 비중이 종전보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4 수능에서 수준별 수능 시행에 따라 쉬운 국어A형이라고 약간의 차별(?)받은 것과 비교하면, 2015 대입 전형(수시 및 정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 이른바 "진격의 국어A형"이 되어가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고려대는 2014 수시 자연계열 우선선발 수능 최저학력기준에서 국어A형은 배제되어 수학B 1등급이고 영어B 1등급 또는 과탐 2과목 등급합 3 이내였지만 2015 수시에서는 국어A, 수학B, 영어, 과탐 중 2개 영역 2등급 이내로 바뀌어 국어A형이 포함되었다.

연세대는 2014 수시 자연계열 우선선발 기준이 수학B 1등급, 과탐 2과목 등급합 3이내에서 올해는 국어A, 수학B, 영어, 과탐(1과목) 4개 영역 등급합 7이내이고 수학B 및 과탐(1과목) 등급합 7 이내로 바뀌었다.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등도 2015 수시에서는 국어A형이 포함되어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특히, 2015 전국 의학계열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할 때, 국어A, 수학B, 영어, 과탐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1등급 이내를 요구하는 대학들(가천대, 가톨릭대, 경북대, 동아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이 많아서 자연계열의 특성상 국어A형 1등급이 더욱 절실한 편이다.

따라서, 2015 수능과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어느 해보다 탐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으므로 인문, 자연계열 모두 국어, 수학, 영어 못지않게 처음부터(고2 겨울방학 또는 고3 신학기) 준비해야 하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고르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종전과 비교하여 인문계열은 사회탐구, 자연계열은 국어A형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

(5)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

제2외국어 및 한문에서는 2014 수능에서 기초베트남어가 추가되어 올해도 응시 과목은 모두 9과목(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기초베트남어, 한문)이다.

제2외국어 교과는 개정 교육과정의 정한 각 교과별 '기본 어휘표'와 '의사소통 기본 표현', 제외 문법 사항을 참고하여 출제하였고, 한문 교과는 새롭게 조정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를 사용하여 출제하였다.

문항 유형으로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서술문과 대화문 등을 활용하여 출제하였다.

[학습 방법] 〈제2외국어〉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별' 의사소통 기본 표현'과' 기본 어휘표'를 충실히 학습한다.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어휘의 경우 의사소통의 맥락 속에서 관련 표현과 함께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일상생활 문화 및 관련 외국어 표현을 익히고,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대표적인 언어 문화, 지역문화(지리, 예술, 축제, 전통 등)에 대한 내용을 두루 학습하도록 한다.

〈한문〉
한자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음과 뜻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단어 또는 한문 문맥 속의 쓰임과 연계하여 이해한다. 한자의 짜임 및 단어의 짜임은 기초적이고 대표적인 것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성어는 속뜻을 알고 언어생활과 문장 독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단문, 산문, 한시는 정확한 내용 파악과 감상 능력을 기르도록 학습하고, 처음 보는 지문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독해 능력을 배양한다.

[2015 수능 유형별 선택 전략]
2015학년도 수능은 국어, 수학은 수준별 수능(A/B형)으로, 영어는 통합하여 실시된다.

먼저, 국어의 유형별 선택은 사실상 계열별로 인문계는 어려운 국어B형, 자연계는 쉬운 국어A형이 무난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선택 이유는 주요 대학들이 인문계는 국어B을 지정하거나 A/B형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들도 B형에 대한 가산점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국어A형 지원자 가운데는 자연계 상위권(의학 계열 지원자 등)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어B형 지원가가 A형으로 바꾼다고 해도 상위 등급 따기가 쉽지가 않다. 여기에다 B형에 대한 가산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더욱 그렇다.

다음으로 수학의 유형별 선택도 국어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계열별 선택으로 인문계는 쉬운 수학A형, 자연계는 어려운 수학B형이 무난할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주요 대학들의 수학 지정(인문계는 수학A, 자연계는 수학B)에 따른 영향이 크고, A/B형을 모두 허용하는 경우에도 B형 가산점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수험생들의 실질적인 선택도 국어, 수학과 달리 대거 중위권 이상 학생들이 어려운 영어B형을 선택하고, 중하위권 이하로 영어A형을 선택하기 때문에 A형으로 선택을 바꿀 때 적어도 2개 등급 이상은 성적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탐구 과목은 가능하면 2과목을 모두 선택하고, 과목 선택에서는 자신있는 과목,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응시자가 많은 과목을 중심으로 선택한다. 다만, 대학에 따라서는 과목 선택을 제한하기도 하므로 지원 대학의 탐구 반영 과목 수와 지정 여부를 꼭 살펴야 한다.

제2외국어 및 한문은 인문계열 지원자 경우에 탐구 대체가 가능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에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탐구를 2과목 반영하게 되어 1과목이 기대만치 성적이 안나올 경우를 대비한다고 보면 된다.

대체로 인문계 지원자는 국어B형, 수학A형, 영어, 사회탐구(2과목) 4개 영역을, 자연계 지원자는 국어A형, 수학B형, 영어, 과학탐구(2과목) 4개 영역 선택이 무난하다.

2. 2014 수능 출제 경향과 성적 결과 분석

[국어영역]

2014 수능 국어영역의 난이도는 국어A형, 국어B형 모두 지난 9월 모의고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었고, 전년도 쉬었던 수능과 비교해서는 약간 어렵게 나왔다.

국어 영역의 EBS 교재 연계 비율은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연계가 많아 7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국어 수준별 수능(A/B형)에 따른 문항 유형 차이는 문법 문제에서 A형은 독서와 문법I, B형은 독서와 문법II 수준에 맞추어 출제되어, A형 11번은 음운 변동에 대한 문제, B형 11번은 한글맞춤법 파생어와 합성어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문학 부문에서도 A형은 현대시 31번부터 33번까지 이형기의 '낙화'라는 시를 주고 시의 표현상의 특징, 감상, 이해를 묻는 문항이 나온 반면에 B형은 41번부터 43번까지 조지훈의 '파초후',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라는 두 개의 시를 주고 종합적인 감상, 이해를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비문학 지문에서도 A형은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시험의 특성에 따라 28번부터 30번까지 CD 드라이브에 관한 과학, 기술 지문이 나온 반면에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B형은 28번부터 30번까지 베토벤 교향곡에 대한 예술 지문이 나온 점이 특징이다.

화법에서도 A형은 화법과 작문I, B형은 화법과 작문II 교육과정에 맞추어 A형 1번부터 3번까지는 친구간의 대화, 라디오 담화 등의 문제가 출제되었고, B형은 협상에 관한 의도와 제안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A, B형 공통으로 출제된 문항으로는 화법의 발표 문제(4번, 5번), 쓰기의 도서관을 소개하기 위한 글(9번, 10번), 문법의 높힘 표현(15번), 비문학 독서 부문의 간접 광고에 대한 문제(A형 24번-27번, B형 22번-25번), 문학 지문으로 현대소설 이상의 '권태'(44번, 45번) 등이 있다.

[수학 영역]

2014 수능 수학 영역의 난이도는 수학A형이 지난 9월 모의, 전년도 수리나형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었고, 수학B형도 쉬웠던 9월 모의고사보다는 약간 어렵게, 전년도 수리가형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수학A형에서 다소 어렵게 나온 문항으로는 30번 지수함수의 활용 문제, 27번 확률변수 문제와 20번 로그와 극한의 융합 문제, 17번 무한급수의 도형에의 응용 문제 등이다.

수학B형에서 어렵게 나온 문항으로는 29번 공간도형의 방정식과 벡터의 최댓값 구하는 문제, 30번 변곡점과 접선의 개수에 관한 문제와 28번 초월함수의 극한, 21번 정적분의 응용 문제 등이다.

올해 들어 2014 수능 수학에서 셋트형 문항이 처음 등장하여 수학A형은 13번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와 14번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고, 수학B형은 13번 이차곡선에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와 14번 회전변환에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다.

수학 문제의 특성상 EBS 교재와 연계되어 출제되어도 수식 등의 문제 변형이 있으면 수험생들은 대체로 어렵게 느끼며 수학B형의 경우는 중간 난이도의 문제라고 해도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항이 나오면 시간이 부족하여 이번 수능과 같이 어렵다고 반응하는 편이다.

[영어 영역]

2014 수능 영어 영역의 난이도는 영어 B형 기준으로 어렵게 출제되었던 지난 9월 모의와 2013 수능 외국어와 "비슷한 수준"으로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영어A형도 B형보다 대폭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EBS 교재 연계는 듣기와 독해 문항 전반적으로 고교영어듣기,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등의 교재에서 지문이나 문항 유형이 대체로 비슷하게 출제되어 체감 연계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영어 영역은 A형 단독인 유형 및 문항으로 29번부터 31번까지 안내문에 대한 실용문 지문이 나왔는 데 반하여 B형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려워 하는 빈칸 완성 문제가 3문항(32번, 33번, 35번 등) 더 출제되어 나왔다.

세트형 문항도 새롭게 출제되어 A형, B형 모두 21-22번에서 나왔으며 1개의 담화문에서 2문항(한 문항은 중심 내용 파악, 다른 한 문항은 세부 사항 파악 등)이 출제되었다.

문항 유형을 영어B형 기준으로 상세하게 보면, 듣기에서 대화를 듣고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문제, 목적, 주제 찾기, 의견, 관계 설정, 그림을 보고 내용 일치 문제, 할 일, 부탁할 일, 상품 구매 이유, 지불 금액, 도표 문제 등 다양한 유형의 듣기와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말하기 응답하기 문제,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듣기 셋트형 문제가 나왔다.

독해에서는 글의 요지, 주제, 글의 제목, 지칭 찾기, 도표의 내용 일치 등과 빈칸 완성 문제, 글의 순서, 장문 독해 등이 나왔고, 문법으로는 관계사, be 동사, have 동사의 용법 등이 출제되었다.

영어 A형과 B형 난이도는 대체로 듣기보다는 독해 부문에서 차이가 났고, 특히, 빈칸 완성 문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대체로 어려워하는 빈칸 완성(빈칸 채우기) 문제가 영어A형은 4문항이 나왔지만 영어B형은 모두 7문항이 나와 A형보다 3문항이 많기 때문이다.

영어A형은 그 대신에 실용문으로 29번부터 31번까지 안내문과 광고에 관한 내용 일치 문제가 3문항 별도로 출제되었다.

듣기에서는 A, B형 모두 실용 영어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온 점이 특징이다. A형 듣기에서는 100%(22문항)가 실용 영어에서 출제되었고, B형 듣기에서는 실용 영어에서 70-80%, 나머지 20-30%가 기초 학술 내용에서 출제되었다.

상위권은 영어B형 빈칸 완성 문제에서 1, 2등급 등 고득점 달성 여부가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국어, 수학, 영어 성적 결과 분석]

1) 국어, 수학, 영어 만점자 비율 - 작년보다 하락

: 전년도 수능보다 대체로 어렵게 출제

2014 수능 최종 결과 국어, 수학, 영어의 만점자 비율은 지난해 수능보다는 감소하여 국어A형 1.25%, 국어B형 0.92%로 전년도 언어 영역 만점자 2.36%에 비하여 절반 이하 수준이고, 수학A형은 0.97%, 수학B형은 0.58%로 전년도 수리나형 만점자 0.98%, 수리가형 만점자 0.76%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이다.

영어A형 만점자는 1.13%, 영어B형 만점자는 0.39%로 선택자가 많은 영어B형을 기준으로 전년도 외국어 영역 만점자 0.66%에 비하여 절반 정도 감소하였다.

[표1] 2014 수능 국어, 수학, 영어 만점자 비율 비교(최종)

구분	국어A	국어B	수학A	수학B	영어A	영어B
만점자 (비율)	**1.25**	**0.92**	**0.97**	**0.58**	**1.13**	**0.39**
9월 모의	0.58	0.86	1.41	3.76	0.12	0.29
2013 수능	2.36		0.98	0.76	0.66	

[표2] 2014 수능 국어(A/B), 수학(A/B), 영어(A/B) 만점자 표준점수 비교

구분	국어A	국어B	수학A	수학B	영어A	영어B
만점자 표준점수	**132**	**131**	**143**	**138**	**133**	**136**
9월 모의	132	129	144	133	145	135
2013 수능	127		142	139	141	

만점자 표준점수로 비교하면 국어 영역은 A형, B형 모두 전년도 수능보다 각각 6점, 5점 상승하여 그만큼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이고, 수학은 전년도 수능과 비슷하여(A형은 1점 상승, B형은 1점 하락) 변별력 있게 출제되었다.

영어는 B형 기준으로 보면 5점 하락하여 외형상으로는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보이지만 영어B형 응시자가 중위권 이상 응시하였고, B형 1등급 원점수 컷트라인도 93점으로 전년도 외국어 영역 1등급 컷 93점과 동일한 것으로 볼 때,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점수 기준으로 각 영역별 1등급 구분 점수는 국어A형 96점, 국어B형 96점으로 전년도 언어 영역 1등급 구분 점수 98점 보다 2점 하락하여 쉬웠던 전년도 수능에 비하여 다소 어려웠다.
수학은 수학A형 1등급 구분 원점수가 92점, 수학B형은 91점으로 전년도 수리나형 92점, 수리가형 92점과 동일하여 비슷한 난이도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영어는 응시자가 많은 영어B형 1등급 구분 원점수가 93점으로 전년도 통합하여 실시한 1등급 컷 점수 93점과 동일하여 올해 중위권 이상 학생들이 응시한 영어B형의 특성상 그만큼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영어A형은 1등급 구분 원점수는 95점으로 어려운 B형에 비하여 쉽게 출제되었다.

영역별 등급 구분 점수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2014 수능 국어, 수학, 영어 등급 구분 점수(최종 기준)

구분	국어A		국어B		수학A		수학B		영어A		영어B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만점	100	132	100	131	100	143	100	138	100	133	100	136
1등급	**96**	128	**96**	127	**92**	137	**92**	132	**95**	129	**93**	**129**
2등급	**91**	123	**92**	122	**83**	130	**84**	125	**89**	124	**88**	**124**
3등급	**84**	116	**87**	117	**70**	120	**74**	117	**83**	118	**81**	**117**
4등급	**76**	108	**79**	109	**48**	103	**62**	107	**71**	108	**72**	**108**
5등급	**65**	97	**68**	98	**30**	89	**47**	95	**57**	95	**62**	**97**
6등급	**53**	85	**56**	86	**21**	82	**30**	81	**43**	83	**50**	**85**
7등급	**40**	72	**43**	72	**15**	77	**19**	72	**31**	72	**37**	**72**
8등급	**27**	60	**30**	59	**12**	75	**13**	67	**22**	64	**26**	**61**
9등급	0	33	0	28	0	66	0	56	0	45	0	34
평균	67.6		70.06		44.6		53.26		62.47		64.56	
표준편차	20.06		19.55		25.9		24.46		22.52		19.58	

2) 사회탐구 영역 - 한국사, 경제, 세계사 등이 쉽게 출제
수능 최종 결과, 한국사는 만점자 비율이 8.94%로 만점자 백분위가 96점(표준점수는 64)에 불과하고, 실수로 2점짜리 1문제를 틀리면 2등급, 백분위는 90점(표준점수 63)을 받는다.

한국사를 필수로 지정한 서울대를 비롯하여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은 탐구 영역에 한하여 백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변환표준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쉬운 한국사 시험을 실수로 틀린 학생들은 정시 지원시 저조한 백분위 점수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사회탐구 과목에서는 한국사 이외에 세계사(만점자 5.79%), 경제(만점자 8.37%) 등도 1등급은 만점을 받아야 한다.

사회탐구 과목별 만점자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비교하면 생활과 윤리 표준점수 67점, 백분위 98, 윤리와 사상 표준점수 69점, 백분위 99, 한국지리 표준점수 69점, 백분위 100, 세계지리 표준점수 66점, 백분위 99, 동아시아사 표준점수 66점, 백분위 98, 세계사 표준점수 64점, 백분위 96, 법과 정치 표준점수 67점, 백분위 98, 경제 표준점수 64점, 백분위 96, 사회문화 표준점수 66점, 백분위 98 등이다.

[표4] 2014 수능 사회탐구 만점자 수 및 비율

과목명(사탐)	만점자 수	만점자 비율(%)
생활과윤리	4,296	3.13
윤리와사상	1,104	1.55
한국사	3,803	8.94
한국지리	816	0.73
세계지리	853	2.26
동아시아사	1,288	3.48
세계사	1,665	5.79
법과정치	1,155	3.02
경제	1,123	8.37
사회 · 문화	5,275	3.40

과목별 등급 구분 점수는 다음 [표5]와 같다.

[표5] 2014 수능 사회탐구 과목별 등급 구분 점수(최종 기준)

구분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한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만점	50	67	50	69	50	64	50	69	50	66
1등급	48	65	47	66	50	64	46	65	48	65
2등급	44	62	44	64	46	62	43	63	45	62
3등급	41	59	38	59	44	60	39	59	41	59
4등급	35	54	31	53	37	55	33	54	36	55
5등급	27	47	23	46	22	45	26	47	28	48
6등급	22	42	17	41	15	40	19	41	20	41
7등급	16	37	12	37	11	37	13	36	14	36
8등급	11	32	9	34	8	35	9	32	9	32
9등급	0	22	0	26	0	29	0	24	0	24
평균	30.99		27.89		29.63		29.02		30.58	
표준편차	11.25		11.82		14.36		11.08		11.87	
구분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만점	50	66	50	66	50	67	50	64	50	66
1등급	48	64	50	66	47	65	50	64	48	65
2등급	45	62	47	64	45	63	48	63	44	62
3등급	42	60	41	60	41	60	43	59	40	59
4등급	36	55	33	54	33	54	38	55	34	54
5등급	26	47	20	45	24	47	27	47	26	48
6등급	17	40	13	40	17	41	19	41	16	40
7등급	12	36	9	37	12	37	13	36	11	36
8등급	8	33	6	35	8	34	9	33	7	33
9등급	0	27	0	30	0	28	0	26	0	27
평균	29.72		27.67		28.46		31.47		29.14	
표준편차	12.83		14.15		12.8		13.13		12.71	

3) 과학탐구 영역 - 화학1, 지구과학1, 화학2 등 어렵게 출제

수능 최종 결과, 과탐 영역 중 화학1, 지구과학1, 생명과학1 등이 어렵게 출제되어 1등급 컷트라인이 화학1 43점, 지구과학1 44점, 생명과학1 45점 등이다. 이에 따라 만점자 표준점수는 지구과학1이 73점으로 가장 높고, 화학1, 생명과학1 등도 71점으로 높은 편이다.

과탐II 영역 중에는 화학2가 어렵게 출제되어 1등급 컷트라인이 44점 정도, 만점자 비율은 0.37%로 낮다.

반면에 생명과학2와 지구과학2는 평이하게 출제되어 만점자 비율이 생명과학2 3.09%, 지구과학2는 2.23%이다.

[표6] 2014 수능 과학탐구 만점자 수 및 비율

과목명(과탐)	만점자 수	만점자 비율(%)
물리 I	697	1.32
화학 I	76	0.06
생명과학 I	1,278	0.93
지구과학 I	159	0.20
물리 II	113	1.96
화학 II	38	0.37
생명과학 II	1,226	3.09
지구과학 II	233	2.23

어렵게 나왔다고 하는 수학B형의 만점자 표준점수가 138점이어서 과탐 2과목 합산의 표준점수가 최대 144점, 과탐1 과목 기준으로는 평균 142점으로 수학B보다 높다.

이에 따라 자연계열은 정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은 수학과 과탐 반영 비중이 30%로 각각 같고, 서울대는 수학B형 30%, 과탐 25% 등으로 과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들을 지원할 때는 탐구 영역 점수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데, 종전보다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과목별 등급 구분 점수는 다음 [표7]과 같다.

[표7] 2014 수능 과학탐구 과목별 등급 구분 점수(최종 기준)

구분	물리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만점	50	69	50	71	50	71	50	73
1등급	**47**	67	**43**	65	**45**	67	**44**	67
2등급	**43**	64	**40**	62	**41**	63	**39**	62
3등급	**37**	59	**37**	59	**36**	59	**36**	59
4등급	**30**	53	**32**	55	**29**	53	**30**	54
5등급	**22**	46	**24**	47	**21**	46	**23**	47
6등급	**16**	41	**17**	41	**16**	41	**17**	41
7등급	**11**	37	**12**	36	**12**	38	**12**	36
8등급	**8**	34	**9**	33	**9**	35	**9**	34
9등급	0	28	0	25	0	27	0	25
평균	26.83		27		26		26.18	
표준편차	11.96		10.71		11.21		10.46	
구분	물리II		화학II		생명과학II		지구과학II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만점	50	66	50	72	50	67	50	68
1등급	**46**	63	**44**	67	**47**	65	**48**	66
2등급	**45**	62	**40**	63	**45**	63	**45**	64
3등급	**41**	59	**35**	59	**39**	59	**40**	60
4등급	**36**	55	**29**	53	**33**	54	**33**	54
5등급	**27**	48	**22**	47	**22**	46	**23**	46
6등급	**18**	41	**15**	41	**15**	41	**15**	40
7등급	**11**	35	**11**	37	**10**	37	**12**	37
8등급	**8**	33	**7**	34	**6**	34	**9**	35
9등급	0	27	0	28	0	29	0	28
평균	29.89		25.29		27.54		28.01	
표준편차	12.76		11.26		13.33		12.56	

4) 직업탐구 영역 - 최고점 표준점수 공업 높고 수산.해운 낮아

직업탐구 영역은 응시자의 특성상 만점자가 없는 과목도 있고, 전반적으로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원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농생명산업은 최고점 표준점수가 144점(원점수 83점 추정)이었고, 1등급 구분 점수는 표준점수 135점(원점수 75점 추정)이었다.

공업은 최고점 표준점수가 154점(원점수 97점 추정)이었고, 1등급 구분 점수는 표준점수 141점(원점수 84점 추정)이었다.

상업정보는 최고점이 만점(100점)을 받았고, 표준점수는 143점이었고, 1등급 구분 점수는 표준점수 137점(원점수 94점 추정)으로 나타났다.

수산해운은 최고점 표준점수가 139점, 1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132점이었고, 가사실업은 최고점 표준점수는 152점(원점수 96점 추정), 1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137점(원점수 83점 추정)으로 나왔다.

과목별 등급 구분 점수는 다음 [표8]과 같다.

[표8] 2014 수능 직업탐구 과목별 등급 구분 점수(최종 기준)

구분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최고점	83	144	97	154	100	143	81	139	96	152
1등급	**75**	135	**84**	141	**94**	137	**77**	135	**83**	137
2등급	**67**	126	**74**	130	**85**	129	**67**	124	**75**	128
3등급	**58**	116	**60**	115	**73**	117	**61**	118	**64**	116
4등급	**49**	106	**47**	101	**59**	104	**50**	105	**53**	104
5등급	**39**	94	**38**	92	**46**	92	**39**	93	**43**	92
6등급	**30**	84	**31**	84	**36**	83	**30**	84	**35**	84
7등급	**21**	74	**25**	78	**29**	76	**21**	75	**29**	77
8등급	**13**	65	**20**	72	**22**	70	**12**	66	**20**	67
9등급	0	50	0	51	0	49	2	54	0	44
평균	43.98		45.92		54.41		44.79		49.72	
표준편차	17.70		18.80		21.43		18.72		17.90	

(* 수산해운 등급 구분 원점수 추정은 표본 수의 한계로 최종 결과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에 유의 바람)

5)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 - 기초베트남어 최대 응시

제2외국어 영역 및 한문 영역에서는 올해 신설한 기초베트남어가 2만 2천 865명(제2외국어 응시자 중 38.0%)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아랍어 9천 969명(16.6%), 일본어 7천 884명(13.1%), 한문 6천 329명(10.5%), 중국어 5천 782명(9.6%) 순이었다.

[표9] 2014 수능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 응시 인원

과목명	인원(명)	과목명	인원(명)
독일어 I	1,734	러시아어 I	1,745
프랑스어 I	2,007	아랍어 I	9,969
스페인어 I	1,894	기초 베트남어	22,865
중국어 I	5,782	한문 I	6,329
일본어 I	7,884		

1등급 구분 원점수는 기초베트남어가 43점(50점 만점)이었고, 아랍어는 44점이며 만점자 비율 및 표준점수는 기초베트남어 0.79%(180명), 표준점수 89점이며 아랍어는 0.62%(62명), 표준점수는 87이었다.

만점자 표준점수는 기초베트남어가 89점으로 가장 높았고, 독일어가 65점으로 가장 낮아 최대 차이는 24점이었다.

과목별 등급 구분 점수는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2014 수능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 과목별 등급 구분 점수(최종 기준)

구분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만점	50	65	50	68	50	66	50	71	50	66
1등급	47	63	46	65	48	64	45	67	49	65
2등급	45	61	42	62	46	63	42	64	45	62
3등급	43	60	40	60	42	60	36	59	41	59
4등급	39	57	34	55	35	55	28	53	36	55
5등급	24	46	23	46	22	45	19	45	26	47
6등급	14	39	17	41	16	40	14	41	17	40
7등급	10	36	12	37	11	37	10	38	13	37
8등급	8	35	10	35	9	35	8	36	9	34
9등급	0	29	1	27	1	29	0	29	0	27
평균	29.44		28.18		29		24.97		30.05	
표준편차	13.96		11.96		13.29		12.04		12.78	

구분	러시아어		아랍어		기초베트남어		한문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만점	50	77	50	87	50	89	50	71
1등급	48	75	44	81	43	81	48	69
2등급	42	70	21	57	21	57	44	66
3등급	18	51	15	51	16	52	34	58
4등급	14	48	13	49	13	49	24	50
5등급	10	45	10	46	11	47	18	45
6등급	9	44	9	45	9	44	14	42
7등급	7	42	7	43	7	42	10	39
8등급	5	41	5	41	5	40	8	37
9등급	0	37	0	35	0	35	0	31
평균	16.67		14.04		14.21		24.14	
표준편차	12.46		9.66		9.2		12.44	

3. 2014년 수능 모의고사 일정

2015 수능 대비 2014년 고3 모의평가 일정이 평가원 주관으로 6월 12일(목), 9월 3일(수)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고, 교육청 주관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3월 12일(수), 4월 10일(목), 7월 10일(목), 10월 7일(화)에 네 차례 등 모두 6회 실시된다.

평가원 주관 수능 모의평가는 고3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이 모두 참가하는 반면에 교육청 주관 학력평가는 고3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고1, 2 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는 3월 12일(수), 6월 12일(목), 9월 3일(수), 11월 18일(화) 등 네 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이상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12월중 공지한 2014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 일정에 따른다.

고3은 시행 횟수 및 주관이 종전과 동일하지만, 고1, 2는 *서울, 광주, 경기 등 일부 지역은 종전 2차례 시행(6월, 11월)에서 내년부터는 ※4차례 시행(3월, 6월, 9월, 11월)으로 바뀌는 점이 특징이다.

[표] 2015 수능 대비 2014년 고3 및 고1, 2 모의고사 일정

구분	고3	고1, 2	주관 (비고)
3월 학력평가	3월 12일(수)	3월 12일(수)	서울시교육청
4월 학력평가	4월 10일(목)		경기도교육청
6월 학력평가 (고3 모의평가)	6월 12일(목)	6월 12일(목)	고3 평가원 (졸업생 포함) 고1, 2 부산시교육청
7월 학력평가	7월 10일(목)		인천시교육청
9월 학력평가 (고3 모의평가)	9월 3일(수)	9월 3일(수)	고3 평가원 (졸업생 포함) 고1, 2 인천시교육청
10월 학력평가	10월 7일(화)		서울시교육청
11월 학력평가	**11월 13일(목)**	11월 18일(화)	**고3 평가원 '2015 수능'** 고1, 2 경기도교육청
횟수	총 6회	학년별 4회	

* 2015 수능 대비 2014년 고3 시기별 학습 전략

2015 수능이 2014년 11월 13일(목) 시행되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차근차근 실천을 해야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졸업생들의 입장에서는 2015 입시를 곧바로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이번 2014 입시 결과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수를 하는 수험생들을 나누어 볼 때, 각자 처한 여건에 따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가야 한다.

먼저 3월, 4월은 3월 12일과 4월 10일 두 차례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학력평가 등을 통해 부족한 영역과 단원을 확인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보완한다. 아직 시험 진도가 끝나지 않은 영역 및 과목에 대하여는 시간을 정해 한 단원, 한 단원을 학습해 나간다.

5월 이후는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수능 대비 학습을 하는 기간이다. 특히, 6월 모의평가는 졸업생도 함께 치르는 시험이므로 어느 정도 전국적인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전형별로 수시에 집중할 지, 정시까지 병행할 지 등을 정하고 지원 대학별로 맞춤형 학습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7월, 8월 여름방학 동안에는 최종적으로 취약한 단원에 대하여 영역별로 보완학습을 하고, 9월 초 수시 지원에 맞추어 지원 대학 및 전형 등을 정하고 이에 맞추어 준비해야 한다. 또한 9월 3일 시행되는 평가원 모의평가에 대비하여 마무리 학습을 한다. 이 때,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오답노트를 활용하여 취약한 단원 및 문제 유형을 익히도록 한다.

9월, 10월은 수능 마지막 정리 학습 기간으로 영역별 총정리와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실전 감각을 기르도록 한다. 또한 수시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들은 대학별고사 일정에 맞추어 논술, 면접, 적성검사 등의 기출 문제 및 모의고사 문제를 통하여 마무리한다.

11월은 수능일까지 모든 시간을 수능 당일에 맞추어 연습한다. 수능일 이후에는 가채점한 결과를 가지고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 대비하고, 수능 성적 발표 후에는 수시 합격에 따른 상황을 보고, 수시 불합격시 2015 정시 지원에 대한 최종 전략을 세운다.

[표] 2015 수능 대비 고3 2014년 시기별 학습 전략

기간	3, 4월	5, 6월	7, 8월	9, 10월	11, 12월
교육 및 입시	신학기	1학기 중간고사 이후	여름방학	2학기 중간고사, 수시	수능일 : 11월 13일, 정시
학습 전략	3, 4월 학력평가 대비 학습, 중간고사 대비	수능 영역별 집중 학습, 6월 모의 수능 대비	수능 영역별 보완학습, 9월 모의 수능 대비	수시 지원, 수능 정리 학습, 수시(수능전) 대학별고사	수능 실전마무리, 수시(수능후) 대학별고사, 정시 지원

4. 2015 대학별 논술 전형 분석과 대책

(1) 2015 수시 논술 전형 분석

수시 논술 시험으로 모집하는 인원은 1만 7천 489명으로 종전보다 248명 감소하는 데 그쳤는 데, 이는 정시에서 서울대가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수시에서는 국민대, 상명대, 성신여대, 동국대(경주)가 논술고사를 폐지하였지만, 새롭게 경북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세종대, 한양대(에리카) 등이 논술고사를 신설하여 주요 대학들이 논술 선발 인원을 10% 정도 감소하였지만 전체 선발 인원으로 보면 큰 변동이 없게 된 것이다.

[표] 2015 대입 논술고사 실시 대학 비교

구분	15학년도		14학년도	
	대학 수	모집인원	대학 수	모집인원
수시	29개교	17,489명	28개교	17,534명
정시	0개교	0명	1개교	203명
합계	29개교	17,489명	29개교	17,737명

※ 신규 : 경북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세종대, 한양대(에리카)
※ 폐지 : 국민대, 동국대(경주), 상명대(서울), 성신여대, 서울대

2015 수시 서울 주요 14개 대학별 논술 전형을 분석한 결과, 모집인원은 9천 196명으로 전년도 1만 805명과 비교하여 1천 609명(14.9%) 감소하였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영어가 통합(A/B형통합)되어 실시되는 것까지 고려하면, 전년도와 비교하여 대체로 우선선발 기준 보다는 대폭 완화되고, 일반선발 기준 보다는 소폭 상향되어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논술 전형 선발 인원이 1천명을 넘는 학교로는 고려대가 1천 227명(전년도 1천 366명)으로 가장 많고, 성균관대 1천 171명(전년도 1천 315명), 경희대 1천 40명(전년도 1천 250명) 등이다.

우선선발 금지 등 전형 간소화 정책에 의하여 대체로 학생부과 논술의 일괄합산 전형으로 선발하고, 서울시립대는 논술 100%로 전형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백분위 사용 지양 방침에 의하여 모든 대학들이 등급을 사용하고, 수준은 대체로 수능 우선선발과 기준과 일반선발 기준 사이 정도에서 설정되었다.

대학에 따라 탐구 반영 과목 수가 상위 1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난 점도 특징인데, 연세대를 비롯하여 동국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이 해당된다.

또한 인문계열의 경우에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을 탐구 1과목으로 대체하여 반영하는 대학으로 서강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등이 있다.

[표] 2015 수시 서울 주요 14개 대학별 논술 전형 비교

대학	전형유형	모집인원	전형 방법	비고(2014,정원)
건국대	KU논술우수자	550	학생부 40 + 논술 60	570
경희대	논술우수자	1,040	학생부 30 + 논술 70	1,250
고려대	일반전형	1,227	학생부 55 + 논술 45	1,366
동국대	논술우수자	499	학생부 40 + 논술 60	522
서강대	논술전형	468	학생부 40 + 논술 60	536
서울시립대	논술전형	201	논술 100	411
성균관대	논술우수자	1,171	학생부 40 + 논술 60	1,315
숙명여대	논술우수자	350	학생부 40 + 논술 60	500
연세대	일반전형(수시)	750	학생부 30 + 논술 70	833
이화여대	일반전형(논술)	600	학생부 30 + 논술 70	670
중앙대	논술전형	883	학생부 40 + 논술 60	1,011
한국외대	논술전형	511	학생부 30 + 논술 70	527
한양대	논술전형	585	학생부 40 + 논술 60	840
홍익대	논술전형	361	학생부 40 + 논술 60	454
[14개, 소계]		**9,196**		**10,805**

연세대는 전년도 우선선발 기준이 인문계 국수영 등급합 4이내, 자연계는 수학과 과탐(2과목) 등급합이 3이내, 일반선발은 인문계 3개 영역 등급합 6이내, 자연계 2개 영역 등급합 4이내에서 올해 2015학년도는 인문계 4개 영역 등급합 6이내, 자연계는 4개 영역 등급합 7이내로 바뀌어 인문계 기준으로는 4개 영역 평균 1.5등급 정도, 자연계는 4개 영역 평균 1.75 등급 정도로 전년도 우선과 일반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고려대도 일반학과 기준으로 전년도 우선선발 기준이 인문계 국수영 등급합 4이내, 자연계 수학B 1등급, 영어B 1등급 또는 과탐(2과목) 등급합 3이내, 일반선발은 인문, 자연 모두 2개 영역 2등급 이내에서 올해 2015학년도는 인문계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자연계는 2개영역 2등급 이내이므로 인문계 기준으로 전년도 우선과 일반 중간 정도 수준이고, 자연계는 일반선발 기준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단, 주요 대학들이 논술 전형에서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한 것과 비교되어한양대는 수시의 모든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두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전년도 우선과 일반선발 수준 정도에 걸쳐 있으므로 논술 전형에서는 상대적으로 논술의 영향력이 종전보다 커졌다고 볼 수 있고, 학생부의 반영 비율도 종전보다 다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수시 논술 전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능최저학력기준 통과 여부를 판단하고 수시 대학별 논술고사 출제 경향에 맞추어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한다.

2015 수시 서울 주요 14개 대학별 논술 전형을 분석한 결과, 모집인원은 9천 196명으로 전년도 1만 805명과 비교하여 1천 609명(14.9%) 감소하였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영어가 통합(A/B형통합)되어 실시되는 것까지 고려하면, 전년도와 비교하여 대체로 우선선발 기준 보다는 대폭 완화되고, 일반선발 기준 보다는 소폭 상향되어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논술 대책]

논술의 채점 기준이자 출제 기준으로는 첫째, 독해력으로 주어진 제시문의 논지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여러 제시문에 공통된 주제의 파악, 각 제시문이 공통된 주제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논증력으로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이 주장을 입증하는 능력인데. 주장의 논리적 구성인 〈논〉과 적절한 예나 인용을 통한 주장의 입증 〈증〉이다.

셋째, 표현력으로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능력이다. 이를 위하여 문장을 쓸 때, 가능하면 단문 중심으로 쉽게 쓰고, 글을 쓰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창의력으로 독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를 위하여 평상시에도 “왜”라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연습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논술 시험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요구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논제에서 요약을 요구하는 경우와 비교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설명이나 논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각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유의해야 한다.

둘째,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고, 논리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상투적인 견해나 예를 드는 것보다는 주어진 제시문 및 논제의 이해에 기초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제시문을 참고하되, 제시문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다시피 해서는 안 된다. 제시문의 내용이 갖는 의미를 이해한 후 이를 자신의 표현으로 정리하여 활용해야 한다.

넷째,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분량 등 글의 형식적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더불어 자연계 논술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논리적 문장 전개로 답의 도출 과정 제시, 과학적 용어와 개념 사용, 근거와 적절한 이유를 제시한다.

둘째, 수리 계산에서 답안 도출 과정 기술, 정확한 계산, 단위에 유의한다.

셋째, 시간 안배로 제시문의 요점을 메모하고, 시간을 정해서 글쓰기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2014 연세대 수시 논술 시험 출제 의도
: 자료 출처 〈연세대, 입학처〉

(1) 인문계열 논술시험

[출제 의도]

1)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제시된 다양한 형식의 글들을 읽고 그 내용을 적절히 파악하는 한편, 제시된 글들을 비교, 분석, 종합하여 문제가 요구하는 수준의 추상적 개념화에 도달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2) 공감과 관련된 주체, 상상, 폭력 등의 개념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그 여러 측면을 이해하고 의의를 도출해 정확하고 풍부하게 서술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3) 주어진 주제에 대한 상식적, 기계적, 일면적인 관점을 탈피하여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견해를 능동적으로 창출해 내어 설득력 있게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설명 및 분석]

〈문제 1〉 '공감' 개념을 실마리로 삼아 제시문 (가), (나), (다)를 읽을 수 있다. (가)의 아이히만 및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와 비교하여 (다)의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에 대해 보이는 태도의 특징들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을 지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1,000자 안팎으로 쓰시오. 50점)

1) 제시문 (다)에서 아킬레우스는 절친한 친구 헥토르를 죽인 트로이아의 장수 뤼카온을 적으로서 죽이지만, 죽음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실존성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타자에 대한 공감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이 문제의 골자는 제시문 (다)의 모순적 양면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 (나)의 대조적인 일면성과 비교 설명하는 것이다.

3) 제시문을 평면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되며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문제 2〉 '상상','주체','폭력'개념을 모두 사용하여'공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제시문 (가), (다), (라)의 사례를 활용하시오.(1,000자 안팎으로 쓰시오. 50점)

1) 이 문제는 '공감' 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상상', '주체', '폭력'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묻고 있다.

2) 수험생은 네 개념을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공감에 대한 전체상을 드러내고 제시문 (가), (다), (라)의 사례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2) 사회계열 논술시험

[출제 의도]
1) 사회계열 출제는 사회과학 분야의 중요한 쟁점인 사회와 개인의 관계, 사회적 갈등의 배경과 해결에 대해 다양한 사상적 입장을 대변하는 논의들을 읽고, 이러한 논의들에 담긴 기본적 생각의 흐름들을 구별하고 적용해 보는 능력을 시험하고자 하였다.

2) 제시문으로 활용된 글들은 사회사상 혹은 사회철학의 중요한 논자들의 글이며, 이 글들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것들이다. 이 글들에서 출제자들은 제시문 자체의 불분명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수정하는 한편, 원본과 대조하여 번역상 오해 소지가 있는 단어나 내용을 원본의 의미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개선하였다.

3) 질문 내용은 이해수준을 구별하기 위한 질문(우선 순위 및 근거)과 지적 능력(내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적용)을 시험하도록 제시하였다.

[문제 설명 및 분석]
〈문제 1〉 개인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부터 낮은 것으로 네 제시문들의 순서를 정한 뒤,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1,000자 안팎으로 쓰시오. 50점)

1) 집단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개인이 갖는 자율성'의 정도가 강한 순서대로 지문의 순서를 정하고 그렇게 순서를 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여기서 '개인 자율성'의 의미는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또는 개인의 사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도)이다. 문제에서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개인 자율성'이란 용어를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라고 풀어 썼다.

3) 바람직한 답안은 (가)-(라)-(다)-(나)이며, 반드시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여야만 한다.

〈문제 2〉 현대 사회에서는 구성원 상호간에 서로 상충된 요구와 주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 상황에 대해 네 제시문들에 내포된 해법이 각각 어떤 것인지 서술하시오. (1,000자 안팎으로 쓰시오. 50점)

1) 지문과 연계된 사회이슈에 대한 처방(방안,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추상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현대 사회가 복잡다기해 지면서 다양한 사회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 네 개의 지문들은 다양한 사회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해법을 내포(암시)하고 있다.

3) 지문에 내포된 내용과 개념들을 일정 수준 추상화하여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3) 자연계열 논술시험

I. 수학

[출제 의도]

1) 고등학교 수학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집합, 함수, 수열과 급수, 미분과 적분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출제하였다.

2) 교과과정에서 습득한 함수의 개념과 기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설명 및 분석]

〈문제 1〉 이 문제는 함수의 미분과 곡선의 접선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아는지를 측정하는 문제이다.

〈문제 2〉 제시문에 주어진 정의와 원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문제이다.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의 최댓값을 구하는 단순한 문제이나, 식의 전개를 통하여 규칙성을 파악하고 최댓값의 특성을 이해하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적분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주어진 함수의 특성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문제 3〉 간단한 경우의 규칙성을 발견하고,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문제를 단순화하여 분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문제이다. 또한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함수의 연속 단원의 최대.최소의 정리를 이용하여 최댓값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복합된 문제를 적절히 분류하여 단순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과학

① 물리

[출제 의도]

고등학교 공통 과학 및 물리 교과 과정의 기본 개념과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복합적인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여, 문제 이해력, 논리적 분석력, 문제 통합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골고루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본 개념으로부터 시작하여, 복잡한 개념의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설명 및 분석]

〈문제1〉 분석 장치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첫 번째 요소로서, 수소 원자의 이온화 및 가속을 통한 이온선 형성 방법을 사고하는 문항으로, 물질의 구조와 성질에 관한 핵심 개념인 에너지 양자화, 수소 원자 모형 및 전기장 내에서의 대전 입자의 운동에 대한의 이해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2〉 산란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서, 실험 용기 내부의 조건을 이해하는 문항이다. 수소 이온을 시료로 조사 하려면, 공기 분자와의 충돌이 없어야 가능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험 용기내의 기압을 추론하도록 하여, 물질의 밀도 및 열역학 개념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3〉 수소 이온과 원자핵 간의 산란과정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입사하는 수소 이온이 시료의 원자핵으로부터 산란될 때의 운동 에너지 보존 및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4〉 전기장 하에서 전하를 띤 입자의 운동 및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여 속도 선택기의 특성을 논하고, 속도 선택과 질량 분해능 사이의 관계를 도출하도록 하여, 복합적인 관계로 얽혀있는 물리량을 올바르게 이해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5〉 1~4번 문항의 사고 과정을 통해 이해한 분석기의 특성을 바탕으로, 특정한 구조의 시료 분석 시 예상되는 수소 이온의 에너지 분포를 추론하는 문항으로, 제시문에 제시된 시료내 원자핵에 의한 산란과 전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 손실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② 화학

[출제 의도]

1) 물 분자의 수소결합을 이해하고 대표적인 분자간의 힘들의 특성을 적용해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고등학교에서 배운 화학의 기초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때 분자들의 상호작용 과정과 관련된 응용 분야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 설명 및 분석]

〈문제 1〉 제시문 (가)에서 주어진 분자간의 힘을 근거로 분자들이 서로 뭉치는 과정을 이해하고 분자들 간의 힘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물과 유기용매에서 수소결합과 분산력의 세기를 비교하고 용매에 따라 강하게 작용하는 힘을 구분할 수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 온도와 압력에 따른 분자 간의 힘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보고자 하였다.

〈문제 2〉 제시문 (라)에서 주어진 상평형 그림 4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안정한 조건을 이해하고,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안정도와 온도, 압력과의 관계와 결정구조의 저해제 또는 강화제에 대한 실험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 상평형 그림을 이해하고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안정한 구조를 유지하려면 낮은 온도와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결정구조를 이해하고 상대적인 안정도를 그림 4로부터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3〉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밀도를 계산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보고, 밀도 차이에 따른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특히, 탄소화합물의 작용기의 길이에 따른 구조 변화를 이해하고, 분자간의 작용하는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응용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문제 4〉 제시문 (라)에서 주어진 상평형 그림 4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안정한 조건을 이해하고, 제시문 (다)에 제시한 내용을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안정도와 결정구조의 저해제 또는 강화제에 대한 실험 내용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상평형 그림과 제시문 (라)에 제시한 메탄 하이드레이트 결정구조를 이해하고 상대적인 안정도를 유추할 수 있어야한다.

〈문제 5〉 용매화 과정에서 생기는 분자 간의 힘의 균형을 이해하고 이를 에너지 변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용매와 용질 간의 힘의 변화와 관련하여 화학반응의 자발성에 대한 개념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온도와 압력에 따른 분자 간의 힘의 변화를 이해하여야 한다.

③ 생명과학

[출제 의도]

1) 고등학교에서 배운 생명 과학 교과 과정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한 단순 지식보다는 학습 내용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2) 고교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출제하면서도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과학 교과서 및 교양 도서에서 발췌하여 편집한 내용과 가공된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성된 제시문을 활용하여 주어진 정보, 제시한 조건, 실험과 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 볼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문제 설명 및 분석]

〈문제 1〉 주어진 제시문들과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윈과 멘델이 이룩한 발견의 핵심 내용과 이후 생명 과학의 발달 과정에서 발견 또는 규명되었던 주요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2〉 제시문 (나)에서 설명한 유전물질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구조적 특징을 파악한 다음, 주어진 제시문들과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모든 생물에 적용되는 복제 원리와 유전물질인 DNA로서 이것이 지니는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3〉 고등학교 생명과학 I에서 배운 멘델의 유전법칙을 이용하여 제시문 (라)의 가공된 실험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또한 유전자 연관의 염색체 상에서의 의미와 감수분열과정의 이해, 이 과정에서의 연관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4〉 연관과 염색체의 관계, 더 나아가 염색체와 DNA의 관계를 체세포 분열과정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5〉 돌연변이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와, 유전자의 작용순서 및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④ 지구과학

[출제 의도]

1)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과 과정의 모든 분야(지질, 대기, 해양, 우주 등)를 포괄하는 내용을 다루었으며, 암기 위주의 단편적인 지식보다 원리에 대한 융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2) 다양한 지구과학적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구와는 다른 가상 행성의 운동과 다양한 고체 및 유체 구성 요소들을 통섭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설명 및 분석]

〈문제 1〉 제시문 (가)에 있는 표를 활용하여 외부 은하들의 상대속도를 파악해야 한다. 외부 은하들의 상대속도가 거리에 따라 비례하여 더 커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 의미는 우주팽창임을 논해야 한다. 또한 그 비례상수를 활용하여 우주의 나이와 크기를 추론해야 한다.

〈문제 2〉 제시문 (나)를 참고하여 우주선이 주어진 공전주기를 가지고 B행성 주위에 원궤도를 돌도록 하기 위한, B행성 중심부터 우주선까지의 거리와 초기속도의 크기를 도출해야 한다. 초기 속도의 방향을 만유인력의 방향과 조화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개념을 논해야 한다. 케플러의 법칙과 뉴턴의 법칙을 행성 탐사라는 주어진 상황에 맞도록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3〉 지표에서 일어나는 고기압성 경도풍에 미치는 힘을 기술하고, 그 힘들의 조합을 설명해야 한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B행성의 남반구에서의 경도풍의 현상을 논해야 한다. 해수의 운동의 근본 현상인 지형류의 원인을 기술해야 한다. 대기와 해양의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가상 행성에서의 유체 운동이 밀도의 차이와 행성의 자전에 영향을 받는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4〉 화산의 구성 암석과 형성 연령의 분포상 대륙의 화산호는 점성도가 높은 마그마로부터 동시적으로 형성되며, 해양의 화산섬 열도는 점성도가 낮은 마그마로부터 동에서 서로 순차적으로 형성되었음을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화산 분포의 특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각 판의 구성과 이의 움직임을 유추해야 하고, 비교적 고정된 위치에서 마그마를 분출하는 열점의 존재를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B행성의 해저에는 지각 판을 밀어내는 중심축인 해령과 대륙 밑으로 삽입되는 지각 판에 의해 형성되는 해구의 존재 및 관련된 지각 구조들을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5〉 그림 2에서 보인 지진파 속도 및 밀도 변화의 특징으로부터, B행성의 지표에는 100km 두께의 지각 판이 형성되어 있고(A층), 3000km 깊이까지는 암석질의 맨틀이 차지하며(B층), 4000km 깊이까지는 금속질의 고체 외핵(C층), 6000km 중심까지는 금속질의 액체 내핵(D층)이 차지하고 있음을 유추해야 한다. 특히 지구와는 다르게 외핵이 고체, 내핵이 액체로 형성되어 있음을 물성변화에 따른 S파의 소멸이 금속질 층으로의 전이(B-〉C) 이후에 발생함을 파악해야 한다. 적당한 두께의 지각 판의 형성과 중심의 금속질 액체 내핵에서 일어나는 대류로 인한 자기장의 형성을 설정하고, 이로부터 위에서 제시된 B행성의 다양한 유체 및 고체 지표 환경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행성의 다양한 시스템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5. 2015 대학별 적성 전형 분석과 대책

2015학년도 대입에서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대학 수와 모집인원은 13개 대학 5천 850명으로 전년도 30개 대학 1만 9천 420명 모집과 비교하여 대폭 감소하였다.

구분	15학년도		14학년도	
	대학 수	모집인원	대학 수	모집인원
수시	13개교	5,850명	30개교	19,420명

올해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가천대, 고려대(세종), 금오공대, 대진대, 서경대, 수원대, 을지대(성남), 을지대(대전), 한국기술교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성대, 한신대, 홍익대(세종) 등 13개교이다.

전년도 적성고사를 실시하였다가 올해 폐지한 대학으로는 가톨릭대, 강남대, 강원대, 경기대(수원), 경기대(서울), 경북대, 단국대(천안), 동덕여대, 명지대(용인), 명지대(서울), 안양대, 울산대, 충북대, 평택대, 한국외대(글로벌), 한밭대, 한양대(에리카) 등 17개교이다.

가천대는 수시 학생부적성우수자 전형으로 1천 285명을 선발하여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 중 모집 규모가 가장 크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60%와 적성 40%로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이 선발한다.

고려대(세종)은 일반전형으로 445명을 선발하고, 학생부 55%와 적성 45%로 전형하는 데,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인문계는 국어A/B, 수학A/B, 영어 중 1개 영역 3등급 이내, 자연계는 국어A/B, 수학A/B, 영어, 과탐 중 1개 영역 3등급 이내가 적용된다.

금오공대는 일반전형1로 400명을 선발하고, 학생부 38.8%와 적성 61.2%로 전형하는 데,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인문계는 국어A/B, 수학A/B, 영어, 탐구 중 2개 영역의 합이 8등급 이내(국어A형 지원자의 국어 등급은 +1), 자연계는 국어A/B, 수학A/B, 영어, 탐구 중 2개 영역의 합이 9등급 이내(수학A형 지원자의 수학 등급은 +2)가 적용된다.

서경대는 일반전형1(적성고사)로 190명을 선발하고 학생부 60%와 적성 40%로 전형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다.

수원대는 일반전형(1)로 420명을 선발하고, 1단계는 학생부 100으로 모집정원의 25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 학생부 58.8%, 적성 41.2%로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이 합격자를 선발한다.

을지대(성남)은 교과적성우수자로 326명을 선발하고, 학생부 60%와 적성 40%로 전형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일반전형2로 272명을 선발하고, 학생부 60%와 적성 40%로 전형하는 데,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인문계는 3개 영역 중 2개 영역 합이 7등급 이내 - 영어(필수), 국어 · 탐구(선택) 중 상위 1개 영역, 자연계는 3개 영역 중 2개 영역 합이 7등급 이내 - 수학(필수), 영어 · 탐구(선택) 중 상위 1개 영역
※ 단, 수학의 경우 1등급 가산 → 3개 영역 중 2개 영역 합이 8등급 이내가 적용된다.

한성대는 적성우수자로 288명을 선발하고, 1단계는 학생부 100으로 모집정원의 40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 학생부 60%, 적성 40%로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이 합격자를 선발한다.

홍익대(세종)은 학생부적성전형으로 216명을 선발하고, 학생부 55%와 적성 45%로 전형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여 인문계는 국어B, 수학A, 영어, 사탐/과탐 영역 중 2개 영역 평균 4등급(광고홍보학부: 3등급) 이내이고, 자연계는 국어A, 수학B, 영어, 과탐 영역 중 1개 영역 4등급 (건축공학부: 3등급) 이내이다.

[표] 2015 대학별 수시 적성시험 실시 현황

대학명	전형명	모집인원	학생부	적성	수능 최저
가천대	학생부적성우수자	1,285	60	40	없음(x)
	농어촌(학생부적성)	59	60	40	
	특성화고교	59	60	40	
고려대(세종)	일반전형	445	55	45	있음(0)
금오공대	일반학생1(적성검사)	400	38.8	61.2	있음(0)
대진대	적성고사전형	362	60	40	없음(x)
서경대	일반학생①(적성고사)	190	60	40	없음(x)
	농어촌학생(적성고사)	56	60	40	
성결대	일반전형2	164	60	40	없음(x)
수원대	일반전형(1)[2단계]	420	58.8	41.2	없음(x)
	사회배려대상자전형	6	58.8	41.2	
	농어촌학생전형	104	58.8	41.2	
	특성화고출신자전형	39	58.8	41.2	
	일반전형(2)[2단계]	420	58.8	41.2	
	유공자자녀전형	7	58.8	41.2	
을지대 (성남)	교과적성우수자	326	60	40	없음(x)
	사회기여및배려대상자	40	60	40	
	농어촌학생	28	60	40	
	을지사랑드림	17	60	40	
	특성화고교출신자	9	60	40	
을지대(대전)	교과적성우수자	21	60	40	없음(x)
한국기술교대	일반전형 II(전공적성)	272	60	40	있음(0)
한국산업기술대	일반학생1	308	60	40	없음(x)
	농어촌학생	55	60	40	
한성대	적성우수자[2단계]	288	60	40	없음(x)
	농어촌학생	57	60	40	
	특성화고교 졸업자	19	60	40	
한신대	일반학생(적성전형)	178	60	40	없음(x)
홍익대(세종)	학생부적성전형	216	55	45	있음(0)
합계		**5,850**			

[2015 수시 적성고사 학습 대책]

올해 적성고사는 출제 경향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 당국에서 교과형 적성 출제를 가능하면 지양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기 적성고사 방식의 출제가 예상된다.

다만, 학교별 출제 경향은 다를 수가 있으므로 올해 실시되는 적성고사 출제 경향이나 모의고사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대비한다.

적성고사는 객관식 시험으로 출제되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항을 풀어야 하므로 응시생 간의 점수차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학생부 성적이 부족해도 적성시험을 잘 보면 2등급 정도를 충분히 역전하기도 한다.

적성고사의 출제 유형은 대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크게 언어영역과 수리영역으로 구분되고 대학에 따라 외국어 영역이 추가되기도 한다. 계열별로는 문항수의 차이가 있지만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 문제를 모두 풀어야 한다.

언어영역은 언어 규칙, 언어 유추, 언어 논리, 인성 등이 포함된다. 언어 규칙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 표준어, 표준발음, 어법,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이 출제되고, 언어 유추에는 동의어, 반의어, 언어 관계, 언어 범주, 언어 의미, 어휘선택, 문장구조, 속담, 관용어 등이 출제되고 있다.

수리영역은 수리 계산, 수리 추리, 공간 지각, 공간 추리, 자료 해석 등이 포함된다. 수리적 능력을 평가하는 경우는 기초적인 수학적 계산 능력을 묻는 유형이 많으며 집합추론, 명제추론, 관계추론 등 논리력을 평가하는 문제 등이 나오고 있다.

적성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는 그동안 적성고사를 보았던 대학들의 기출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에서 발표한 예시문항 등을 참고하여 시험의 출제 유형을 잘 익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적성 문제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안배가 중요하다. 적성고사는 속도검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꾸준하게 한다.

[별첨자료] 전국연합학력평가 개인 성적 자료의 이해

자료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영 역		원점수	
		배점	득점
국어(A형)		100	81
수학(B형)		100	75
영어		100	94
사회탐구	생활과 윤리	50	35
	한국사	50	48

1. 원점수 (예시)

원점수는 해당 영역의 문항 중 수험생이 정답을 한 문항의 배점을 합한 점수이다. 국어, 수학, 영어영역은 각각 100점 만점이고, 탐구영역은 과목당 50점 만점이다.

따라서 국어, 수학, 영어 3개 영역과 탐구영역 2과목을 모두 선택한 수험생의 원점수 만점은 400점이 된다. 이 중 수험생이 정답을 한 모든 문항의 점수의 합이 원점수 총점이 된다.

그러나 많은 대학에서 국어, 수학, 영어영역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고, 탐구영역 중에서도 2과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기 때문에 원점수 총점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원점수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는 수험생이 자기의 원점수를 아는 것이 앞으로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2. 표준점수

영역/선택과목별로 난이도가 다르고 응시 집단의 규모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원점수로는 점수의 우열을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점수로 변환한 것을 표준점수라 한다.

영 역		표준점수	
		범위	득점
국어(A형)		0 ~ 200	118
수학(B형)		0 ~ 200	138
영어		0 ~ 200	132
사회탐구	생활과 윤리	0 ~ 100	62
	한국사	0 ~ 100	68

표준점수는 해당 영역/선택과목에 응시한 수험생이 얻은 원점수로부터 그 영역/선택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평균과 수험생 개인의 점수와의 차이를 표준편차를 단위로 하여 변환한 것이다. 국어, 수학, 영어영역은 평균이 100점, 표준편차가 20점인 분포로 변환하며,
탐구영역과 제2외국어 및 한문영역의 각 과목은 평균이 50점, 표준편차가
10점인 분포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변환한다.

① 국어, 수학, 영어영역의 표준점수
{(원점수 - 평균)/표준편차} *20 +100

② 탐구영역, 제2외국어 및 한문영역의 표준점수
{(원점수 - 평균)/표준편차} *10 +50

따라서 표준점수는 시험의 난이도와 수험생 집단의 성격과 규모에 관계없이 같은 척도로 변환한 표준화된 점수이다.

표준점수는 원점수와 선형(일차)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점수 분포의 형태가 원점수의 분포와 일치한다. 만약 원점수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이루면 표준점수의 분포도 정규 분포를 이루며, 원점수의 분포가 치우친 형태의 분포인 경우 표준점수의 분포도 치우친 형태의 분포가 된다.

국어, 수학, 영어영역의 점수는 0에서 200점까지, 탐구영역은 0에서 100점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

실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원점수를 제공하지 않고 표준점수만을 제공하고 있다.

3. 표준점수에 의한 등급 / 석차 / 백분위

가. 학급석차 / 학교석차

학급석차와 학교석차는 학급과 학교 내에서의 영역별 석차와 응시생수를 나타낸 것으로, 아래의 표에서 이 수험생의 국어(A형)는 학급인원 33명 중 17등, 학교 내에서 300명 중 95등임을 나타낸 것이다

영 역		표준점수에 의한 등급/석차/백분위			
		학급석차	학교석차	전국백분위	등급
국어(A형)		17/33	95/300	85.43	3
수학(B형)		15/30	45/183	94.61	2
영어		7/35	35/320	95.09	2
사회탐구	생활과 윤리	2/2	67/96	69.56	4
	한국사	7/27	10/41	93.69	2

나. 전국백분위

전국백분위는 영역별로 표준점수에 의한 석차를 산출하여 비교 집단(전국)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100을 만점으로 환산한 수”를 말하는 것으로, 한 수험생이 얻은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얻은 수험생들의 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뜻한다. 따라서 백분위는 한 수험생의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알려준다.

■ 백분위와 석차백분율의 차이

석차백분율은 한 수험생의 석차를 전체 응시생 수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상위에서부터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며, 백분위는 한 수험생이 얻은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얻은 수험생들의 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므로 상반되는 관계이고

(대략적인 석차백분율) = 100 - (백분위) [1)]

로 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석차백분율이 1.00 이면 백분위는 99.00이다.

예를 들어 한 수험생의 국어(A형)의 전국백분위가 85.43이었다면, 전국에서 85.43%의 수험생이 이 수험생보다 표준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곧, 이 수험생의 국어(A형)의 전국석차백분율은 대략 14.57이 되는 것이다.

1 동점자수를 고려하지 않은 대략의 석차백분율이다.

백분위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전국 백분위만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제공되지만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는 전국 응시집단에서의 백분위를 소수 둘째 자리까지 제공되어 전국에서의 성취 수준을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다.

(대략적인 영역 석차) = (해당 영역 응시자수)× (100 - 백분위) ÷ 100

한편 비슷한 점수대에 많은 수험생이 몰려있을 경우 백분위의 차이가 크더라도 실제 점수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비슷한 점수대에 수험생 수가 적다면 백분위의 차가 작더라도 실제 점수의 차이는 클 수 있다.

다. 등급

등급은 영역별로 산출된 표준점수에 의하여 9등급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수시 모집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으로 최저 학력 수준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등급은 당락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등급의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등　　급	1	2	3	4	5	6	7	8	9
비　율 (%)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전체 9등급 중, 상위 4%에 해당하는 수험생에게는 1등급을 부여하고, 상위 11%까지 중 1등급을 제외한 수험생에게는 2등급을 부여하여 순차적으로 9등급까지의 등급을 부여한다. 이때, 등급의 경계선에 있는 동점자는 상위 등급으로 처리한다.

4. 응시자수

영 역		응시자수
국어(A형)		268,373
수학(B형)		218,555
영어		368,200
사회탐구	생활과 윤리	171,028
	한국사	60,382

응시자 수는 해당 영역의 전국의 응시자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왼쪽 표와 같을 경우, 국어(A형)은 전국에서 268,373명이 응시하였고, 수학(B형)은 218,555명이 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응시자 수를 이용하여 전국백분위를 산출하며, 응시자 수와 전국백분위를 이용하면 해당영역의 대략적인 전국 석차를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의 표에서 국어(A형)의 경우 전국 응시자 수가 268,373 명이고, 전국 백분위가 85.43이므로 전체 응시생 268,373명의 85.43% 가 이 수험생보다 낮은 점수를 얻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수험생의 석차백분율은 14.57% (100 - 85.43 = 14.57)이므로, 석차는 268,373 x 14.57/100 = 39,102 이고, 대략 39,102 등 정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대략 동점자의 중간 석차 정도로 볼 수 있다.)

5. 해당 등급 전국 인원수(해당 등급 전국 인원 비율)

영 역		해당등급 전국 인원수(해당등급 전국 인원 비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국어(A형)		12,882 (4.80)	19,806 (7.38)	31,373 (11.69)						
수학(B형)										
영어										
사회탐구	생활과 윤리									
	한국사									

표준점수에 의한 해당등급 전국 인원수는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전국의 인원수를 나타낸 것이고, 아랫줄의 ( )안의 숫자는 해당 영역의 전국 응시 인원에 대한 해당 등급 인원의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위의 표에서 국어(A형)의 1등급 인원수가 12,882명이고, ( )안의 비율이 4.80%라는 것은 국어(A형)에서 전국의 12,882명의 수험생에게 1등급을 부여했으며, 원래 구성비 4%인 1등급을 동점자로 인하여 4.80%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부여했다는 의미이다. 2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19,806명이고 그 비율은 7.38%라는 뜻이다. 따라서 2등급까지의 수험생은 12.18%(4.80+7.38)가 됨을 알 수 있다.

6. 세부평가 영역별 득점, 전국평균

국어(A형)				수학(B형)				영어			
영역	배점	득점	전국 평균	영역	배점	득점	전국 평균	영역	배점	득점	전국 평균
화법				계산				듣기			
작문				이해				말하기			
문법				추론				읽기			
독서	35	10	17.05	문제해결				쓰기			
문학											

이 부분은 각 영역별로 세부평가 영역을 구분하여 배점과 수험생의 원점수 득점, 전국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국어의 경우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의 평가영역별로 만점(배점), 수험생 개인의 득점과 전국 평균점수가 표기되어 있으며, 수학은 계산, 이해, 추론, 문제해결력으로, 영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전국평균과 자신의 득점을 비교하여 부족한 세부 영역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충 학습을 통하여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전국평균보다 자신의 득점이 낮거나, 높더라도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 그 세부 영역이 취약한 부분이므로 보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어느 문항이 각 세부 능력에 포함되는지는 매 시험별로 개인 성적표 뒷면에 인쇄되어 주어진다.

7.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는 비교적 정답률이 높은 문항인데도 수험생이 오답을 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보다 성취도가 뒤진 문항을 뜻한다. 해당 문항을 다시 점검하고 그 문항의 평가 요소를 파악하여 보충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문항의 평가 요소는 정답 해설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	
국어(A형)	5, 13, 18, 21, 32
수학(B형)	
영어	
생활과 윤리	
한국사	

8. 기타 참고 자료(영역의 조합에 의한 백분위)

기타 참고 자료		
산출방법 / 영역	백분위	인원수
국+영(또는 수+영)	94.58	325,864
국+수+영		
국+수+영+사(또는 국+수+영+과)		
국+영+사(또는 수+영+과)		
사탐 2과목(또는 과탐 2과목)		

기타 참고자료에서는 몇 개 영역들을 조합하여 표준점수의 합에 의한 전국에서의 백분위를 소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수험생은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반영하는 영역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이표에서의 인원수는 백분위를 산출하기 위한 근거 인원수로서 해당 영역 조합에 모두 응시한 인원수이다.

국어+수학+영어

국어, 수학, 영어의 표준점수 합으로 산출한 전국 백분위와 근거 인원수를 표기한 것이다. 각자의 선택 유형에 따라 국어(A)+수학(A)+영어, 국어(A)+수학(B)+영어, 국어(B)+수학(A)+영어의 3가지 유형 조합이 있다. 참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국어와 수학을 동시에 B형으로 선택할 수 없으므로 국어(B)+수학(B)+영어의 유형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수험생이 국어(B), 수학(A), 영어를 선택하고, 국어+수학+영어의 백분위가 94.58이고 인원수가 325,864이라면, 전국에서 이와 같은 유형 조합을 선택한 수험생이 32,864명이고 그 중 94.58%(대략 308,202명)가 이 수험생보다 세 영역의 표준점수의 합이 낮다는 의미이다.

국어+수학+영어+사탐 / 국어+수학+영어+과탐

수험생의 탐구영역 선택에 따라 사탐 선택자는 국어+수학+영어+사탐으로, 과탐 선택자는 국어+수학+영어+과탐으로 산출한 백분위와 근거 인원수를 표기한 것이다. 이때, 수준별 유형이 있는 영역에 대하여는 동일한 유형을 선택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표준점수에 의한 정보가 제공된다.

■ 국+수+영, 국+영+사 등의 몇 개 영역 조합에 의한 백분위를 서로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영역의 조합을 알 수 있다.(백분위의 수치가 큰 조합이 본인에게 유리한 것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영역을 파악하여 학습할 수도 있으며, 각 대학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을 살펴 지망 대학을 선택하여 준비할 수도 있다.

단, 위의 기타 참고 자료에 나타난 백분위는 해당 영역들의 표준점수를 단순 합산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대학에서 정한 영역별 반영 비율, 반영방법(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백분위, 또는 일부영역은 대학자체변환점수 등 다양함), 가중치 등에 따라 백분위가 달라지게 되고, 이에 따라 추정 석차도 달라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9. 영역의 합 백분위 변화

영역의 합 백분위 변화	
영역	국+영+사
3월	88.82
4월	82.15

국어+영어+사회탐구영역 조합에 의한 백분위를 지난 3월과 4월 자료를 비교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나타내어 성적 변화(성적 상승 또는 하락)의 추이를 알 수 있다.

10. 문항별 채점표

영역＼문항	1	2	3	4	5	…
국어(A형)	1	4	1	4	5	
	1	5	1	4	5	
	O	X	O	O	O	
	A	C	A	A	B	
…						

채점표는 영역별 문항별로 번호순으로 수험생이 표기한 답, 정답, 채점결과, 정답률을 나타낸 것이다.

수험생이 표기한 답은 1,2,3,4,5 무표기, 중복표기 등으로 정답은 1,2,3,4,5 로 표기되며(수학영역의 주관식은 세 자리 이하의 정수로 표기됨), 채점결과는 맞은 문항은 O로 틀린 문항은 X로, 정답률은 전체 수험생의 80%이상이 맞춘 문항에는 A, 60%이상 80%미만이 맞춘 문항에는 B, 40%이상 60%미만이 맞춘 문항에는 C, 20%이상 40%미만이 맞춘 문항에는 D, 20%미만의 수험생이 맞춘 문항에는 E 로 표기하였다. 따라서 정답률이 E인 문항이 가장 어려운 문항이고, 정답률이 A인 문항이 가장 쉬운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의 표의 국어(A형) 1번 문제에서 이 수험생은 자신이 1번으로 답을 하였고 정답도 1번이므로 1번 문제는 맞았다(O로 표기)는 뜻이며, 정답률은 A이므로 전체의 80%이상의 수험생이 맞춘 비교적 쉬운 문항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국어(A형)의 2번 문제는 정답이 5번인데 이 수험생은 4번이라고 답했으므로 틀린 것이며, 정답률이 전체 수험생의 40% 이상 60%미만이 맞춘 C이므로 중간 수준의 문제라는 뜻이다. 이것은 틀린 문항에 대한 검토와 상대적 난이도를 살펴 자신의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Part 3

학생부 종합전형 전략 (구 입학사정관전형 전략)

임 병 욱

- 인창고 교감
-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자문위원
- 대교협 입학사정관 전문 · 양성 강사

〉 학교생활기록부의 이해

》 2015대입 대학별 학생부 종합전형의 소개

Ⅰ. 학교생활기록부의 이해

1.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환경변화

가. 입학사정관 전형의 평가요소 및 방법

·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학업성취도,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생활 충실도, 학업의지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 입학사정관 전형은 서류 심사, 면접, 토론 등 다양한 평가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입학사정관 전형의 평가요소 및 평가기준 모형(예시)

평가요소	평가기준	종합평가
〈교과 관련 요소〉 · 교과성적----------교과학습발달상황 · 학년별 성적 추이---------- 〃 ---------- · 학업관련 탐구 활동--------- 〃 ---------- · 교과 관련 교내 수상실적------수상실적 · 방과후학교 활동등---교과학습발당상황	학업의지 및 전공 적합성	종합평가(holistic approach)에 의한 최종 등급 평가 ⇒ 합격·불합격 결정
〈창의적 체험활동〉 · 독서 활동----------독서활동1,2년 · 자격증 및 인증---------자격증 및 인증 · 진로탐색 · 체험활동------창의적체험활동 · 동아리 활동---------- 〃 -------- · 봉사활동---------- 〃 ------- · 방과후학교 활동등-----교과학습발달상황	창의성	
〈학교생활 충실도, 인 · 적성〉 · 공동체 의식 · 자율활동, 동아리, 종합의견 · 리더십---------- 〃 ---------- · 학업의지----------교과학습발달상황 · 특별활동--------창의적체험활동으로 변경 · 출결 상황 ----------출결상황 · 교사의 평가-----9가지 특기사항,종합의견 · 교우관계 등 ·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	인성	
	학업성취도	
〈학습환경〉 · 가정환경----------인적상황 · 학교 여건----------고교프로파일 · 지역의 교육여건----------고교프로파일 · 학업수행의 장애극복 등---------종합의견	성장잠재력 및 발전가능성	

위 표에 드러나는 평가요소는 교과활동과 교과외활동을 아우르고 있으며 평가방식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함께 함을 보여주고 있다. 활동의 영역과 자료는 교내 활동을 위주로 하며 개인적,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도록 하여 타고난 배경과 역량에 의한 것이 아닌,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철학을 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정환경, 학교 여건, 지역의 교육여건, 학업수행의 장애극복 등 사정관의 평가에서 환경적, 태생적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편차를 감안하여 평가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여, 입학사정관제가 잠재적 역량이 뛰어나지만 사교육에 의해 길러지지 않은 미완의 인재를 찾아내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나. '동일 학교 지원자 평가시스템'의 도입

학교생활기록부가 이제는 질적 성장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 내신과 비교과로 대비되는 큰 영역의 내용 중 비교과 영역은 학교의 프로그램과 교사들이 관심에 따라 실로 다양하고 섬세한 가능성, 잠재력, 인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 9가지 비교과 영역에 모든 교사가 관여할 수 있고, 기록할 수 있으나 문제는 동일 학교에서 지원한 학생들의 학생부가 조사까지 틀리지 않고 똑같으면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대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마치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의 표절을 가리기 위해 98개 대학 공통으로 검색을 실시하는 것처럼 **대학내 동일 고교 생활기록부 유사도 검색기**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K대, C대에는 '동일 학교 지원자 평가 시스템'이 있다. 버튼만 누르면 동일 학교 지원자들의 학생부가 뜨는데 지원자는 다른데 내용이 똑같은 학생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당연히 **교사의 평가인 '특기사항'을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다. 수상경력 특기사항, 독서활동 특기사항, 교과학습 발당상황 세부능력 특기사항,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종합의견 및 행동특성 등을 집중적으로 본다.

이 평가 시스템이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하여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 다음해에도 적발된 해당학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준다는 점이다.

다. 생활기록부II - 입학사정관제 8할, 인생 9할

입학사정관제가 평가하는 학생의 내용상 평가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인지적 특성으로 사고력 : 이해력, 분석력, 논리적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과 적성 : 관련분야에 대한 소질, 학업적성, 대학 또는 학과 수학 능력 등- 그리고 표현력 : 의사소통능력(토론/설득력) 등이다.

또 다른 평가의 요소는 정의적 특성인데, 인성 : 자신감, 적극성, 리더십, 책임감, 목표지향성, 자기조절능력, 도덕성, 사회성 등과 흥미 : 지적호기심, 열정, 학습동기 등이 있으며 태도 : 가치관, 학습태도 등이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학생의 인지적 특징을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얼마나 지적능력을 키우려는 노력을 했고, 그 추이가 발전적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정의적 특징을 평가하는 키워드는 **진정성**이다. 인성적 목표지향이 본인의 참뜻과 의도에 의해 발현되었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22개 평가 항목이 생활기록부에는 교사의 '특기사항, 세부능력, 종합평가' 등의 항목으로 기록되어 나타난다. 이에 교사가 평가해야 할 기준은 자기주도성과 진정성의 여부에 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생활기록부가 1,2,3학년 담임만의 관리형이었다면, 오늘날의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과 대면하는 전교사의 평가서이고 추천서이며 이는 입학사정관제의 8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2 - 졸업 후 5년 보관

가. 인적사항 - 성별, 주민번호, 사진만 제공
나. 학적사항 - 폭자위 기록
다. 출결사항 - 폭자위 기록
라. 수상경력 - 모든 교외상 어디에도 기록 금지
마. 진로희망 - 1,2,3학년(수시)
바.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기술 관련 자격증만 기록

경제이해력검증시험 (TESAT)	S · 1 · 2 · 3급	한국경제신문사	10.11.10~13.11.09
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 매경TEST	최우수, 우수	매일경제신문사	10.12.22~13.12.21
국어능력인증시험	1 · 2 · 3 · 4 · 5급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11.10.8-13.10.07 (09.10.08 ~ 11.10.7)
KBS한국어능력검정	~~1,2+,2-,3+,3-,4+급~~	KBS한국방송공사(?)	11.01.23 ~ 13.01.22(09.01.23 ~ 11.01.22)

사. '창의적 체험활동 - 2013년 7월 31일부로 나이스 연동
아. 교과학습 발달상황(5,000자)
자. 독서활동상황(2,500자)-1,2,3학년(수시)
차.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2,600자) - 1,2학년(수시) - 폭자위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입력 가능 최대 글자수

(교육정보시스템, 2013.03 현재)

영역	세부항목	최대 글자수 (한글 기준)	비고
1. 인적사항	학생 성명	20자	
	학부모 성명	15자	
	주소	300자	
	특기사항	500자	
2. 학적사항	특기사항	500자	
3. 출결상황	특기사항	500자	
4. 수상경력	수상명	100자	
5.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명칭 또는 종류	100자	2010학년도 이후는 고등학교만 해당
6. 창의적체험활동상황	자율활동 특기사항	2,000자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2,000자	
	봉사활동 특기사항	2,000자	
	진로활동 특기사항	2,000자	
	봉사활동실적 활동내용	250자	
7.교과학습발달상황	일반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개인별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5,000자	중학교(2,500자)
	예체능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개인별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동일	중학교(2,500자)
8. 독서활동상황	독서활동상황	2,500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600자**	
10. 학년이력	전공 · 과정 비고	250자	고등학교
	23,800자 / 매학기 기록가능 특기사항 글자수 119,000자/ 3학년 1학기까지 기록 가능한 특기사항 글자수		

영역/항목	학년당 입력글자수 범위(고교 기준)		비고
	현행	개선	
진로지도상황	-	· 희망사유 200자	*신설
창의적체험활동 (4개 영역)	· 자율활동 2,000자 · 동아리활동 2,000자 · 봉사활동 2,000자 · 진로활동 2,000자	· 자율활동 1,000자 · 동아리활동 500자 · 봉사활동 500자 · 진로활동 1,000자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특기사항)	· 일반과목(전체) 5,000자 · 예체능과목(전체) 5,000자	· 과목별 500자	*과목별 제한 설정
독서활동상황	· 영역(인문, 사회, 과학, 체육 · 예술)별 각 2,500자 · 과목별 각 2,500자	· 공통 1,000자 · 과목별 각 500자	*영역 통합 : 인문, 사회, 과학, 체육 · 예술 → 공통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2,600자	· 1,000자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 : 교육부보도자료 2013년 10월 25일

라. 교사의 역할 변화

- 동기부여 제안자

자기주도학습이 혼자 하는 학습이 아닌 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학습자를 제대로 이끌어주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교사는 학습 동기 부여자로서, 학습자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극을 부여해야 한다. 왜 자기주도학습이 필요한지, 그 방식과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러한 동기유발에도 원리가 있다. 우선 학습자의 흥미, 능력에 맞는 학습활동의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풍부한 학습 경험과 그 경험의 심화를 위한 단원학습의 유형을 탐색하기 위해서 학습 단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경험과 학습 내용을 결부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내용에 대한 힌트나 윤곽을 알기 쉽게 하고, 친밀감이나 관심도를 높이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학습자는 현재의 능력과 새로운 학습 내용이 결부되어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경험과 학습 내용의 결부뿐만 아니라 흥미, 관심과 학습 내용을 결부시킴으로써 학습동기를 유발시킬 수도 있고, 성공감을 체험하도록 하여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은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형성에 크게 공헌한다.

- 대등한 토론자

토의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면대면 상황에서 둘 이상의 사람들이 정보나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과정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가장 중시하는 토의는 상호간의 깊이 있는 이해, 비판적 사고, 분석적 사고, 평가력이나 종합력 등 보다 높은 수준의 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된다. 토의는 타인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학습 방법으로 상호 신뢰의 발판이 되고 상대를 배려하는 원리를 깨닫게 한다.

- 냉철한 평가자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학습자는 스스로 평가한다. 분명히 학습 과정에서 '얼마나 학습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효율적으로 학습하였는가'의 문제는 학습자 자신이 가장 잘 느끼고 알 수 있는 사람이다. 학습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나름의 평가 준거틀을 스스로 세워 스스로의 평가적 능력이 학습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는 기본적으로 학습을 교수하지만 모든 교수에 평가가 따르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교사가 평가자로 역할을 할 때는 평가를 위한 평가보다는 평가가 진행되는 구조와 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의 공개는 자기주도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플랜을 세우고, 자신을 평가하는 방향의 가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2014 학교생활기록부의 이해

가. 인적사항

기본관점 - 인적사항은 기본적인 인적 정보를 알아보는 것에 국한하지 않는다. 제한적인 사항이 대학에 전해지므로 내용을 구별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핵심Tip1.

대학에 전해지지 않는 주소, 특기사항 등의 사항은 자기소개서, 추천서로 보완하여 자신의 역경과 환경을 대학에 알려야 한다.

핵심Tip2.

특히 이혼 가정의 경우, 역경 극복의 사례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한다. 생활기록부에는 부모가 기록되어 있어도 사실상 이혼 상태일 경우 어려움과 극복과정을 잘 진술하여 써야 한다.

제6조(인적사항)

① '학생'란에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하되, 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한다.

② '가족상황'란에는 부모의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특기사항'란에는 학생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한다.

▶해설

· 학생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일치하여야 한다.

· 부모의 인적사항은 기본적으로 입력해야 할 사항이다.

※ 부모의 인적사항은 학생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입력함을 원칙으로 함.

※ 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입력함.

· 주소를 누가 기록하여 학생의 거주 관계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입학 전 부모 사망의 경우 '(사망)'으로 입력한다. 다만, 학생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재학 중 부모가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 대학 및 입학사정관 평가 지표의 이해

1. 수시전형에서 학생의 성별, 주소, 가족상황, 특기사항 제외으므로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통하여 보완한다.

2. 동명이인 확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3. 자기소개서에서 가족 소개 요구에서 참고할 수 있다.

· 주의 - 제외되는 항목이 있어, 가족소개, 성장 배경, 역경 극복 등을 요구하는 자기소개서에 상세한 기술과 내용 소개가 필요하다. 사정관의 정성적 평가 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

· 주의 - 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입력함에 유의하여 평가한다.

학 생	성명 : ○○○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011212-3○○○○○○ 주소 : ○○도 ○○시 ○○구 ○○동 40 ○○아파트 ○○○-○○○○ ○○광역시 ○○구 ○○3길 11(○○동, ○○아파트)
가족 상황 부	성명 : 한○○ 생년월일 : 19○○년 03월 02일
가족 상황 모	성명 : 강○○ 생년월일 : 19○○년 04월 05일
특기사항	2013.05.02 부 사망 **(←재학 중 사망한 경우)**

학 생	성명 : ○○○ 성별 : 여 주민등록번호 : 041212-4○○○○○○ 주소 : ○○도 ○○시 ○○구 ○○동 40 한국e-아파트 ○○○-○○○○ ○○도 ○○시 ○○구 ○○2길 11, ○○○동 ○○○호 (○○동, 한국e-아파트)
가족 상황 부	성명 : (사망) **(←입학 전 사망한 경우)** 생년월일 :
가족 상황 모	성명 : 김○○ 생년월일 : 19○○년 10월 02일
특기사항	

※ 특기사항 입력에 동의한 경우의 입력 예시

- 예 1) 2013.05.02 부 사망. 예 2) 아버지가 미국에서 근무 중임.

■ **입력 유의 사항**

· 성명은 주민등록등본의 성명을 그대로 입력한다. 특히 학생의 성이『유』씨와『류』씨, 이름에『님』과 『임』또는『년』과『연』등이 있는 경우에 입력 작업에 유의한다.

· 이혼 후 재혼하지 않은 경우의 부모

부모가 이혼하여 부와 함께 사는 경우 '모'란에는 호적에 있는 모(생모)를 입력하고, 모와 함께 사는 경우 '부'란에는 호적에 있는 부(생부)를 입력한다.

※ 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입력하되,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입력함.

· 재혼이나 입양으로 재학 중 부모의 내용이나 특기사항이 변동된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정정절차를 거쳐 삭제하거나 정정한다. (부모의 인적사항은 학생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입력한다).

· 부모의 인적 사항은 기본적으로 기록해야 할 사항이므로 입력할 사항은 가급적 공백으로 두지 않는다.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기 전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부모의 성명 란에 '(사망)'으로 입력한다.)

·『가족상황』란에는 부모의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하고,『특기사항』란에는 학생 이해에 도움이 될 사항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한다.

· 학생의 이름이 외자이더라도, 성과 이름 사이에 공백을 두지 않는다. 다만, 성이 두 글자 이상인 경우 성과 이름을 띄어 쓸 수 있다

나. 학적사항

기본관점 - 학교의 적이 어떻게 변동하였는가를 기록하는 주요 사항이 된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로 분류되는 고교 분류체계를 대학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이다. 이것은 학교알리미와 고교프로파일을 통해서 학교급을 파악하게 된다. 개인의 이동과 학적은 차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핵심Tip1.

학적 사항은 특기사항의 기록이 관건이다. 정상적인 졸업일시와 입학일시의 연계성이 문제가 있을 때 그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이 평가자의 관점이 된다.

핵심Tip2.

학교폭력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학생의 이동과 학적 변화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학교급의 이해를 위하여 대학은 학교알리미 사이트를 통하여 학교프로파일을 다운 받아 사정관에게 제공한다.

제7조(학적사항)

① 중 · 고등학교에서는 입학 전 전적학교의 졸업 연월일과 학교명을 입력하며, 검정고시합격자는 합격 연월일과 '검정고시합격'이라고 입력한다.

②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학적변동이 발생한 일자, 학교와 학년, 학적변동 내용을 입력한다.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는 별지 제7호와 같다.

③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해설

· '유예'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로 미루는 것으로 다음 학년도 초에 재취학 안내를 하여야 한다(질병으로 인한 유예, 무단장기결석으로 인한 유예, 미인정 유학에 따른 무단결석 처리 후 유예 등을 포함).

· '면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 유학, 정당한 해외 출국 등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정당한 해외 출국 :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 해외취업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로 처리 기준은 시 · 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 '유급'은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해당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다음 학년도에 1학기 시작 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한다.

※ 유급으로 인하여 중복된 기간 동안의 내용은 삭제함.

○ 고등학교

2011년 02월 15일 ○○중학교 제3학년 졸업 2011년 03월 02일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2012년 06월 20일 휴학)(2013년 04월 15일 제적)	
특 기 사 항	2012.06.20 질병치료로 휴학 2013.04.07 질병으로 사망

2009년 02월 16일 ○○중학교 제3학년 졸업 2009년 03월 02일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2010년 09월 20일 전출) 2010년 09월 21일 △△고등학교 제2학년 전입학(2011년 04월 09일 자퇴) 2012년 03월 02일 △△고등학교 제3학년 재입학(2012년 05월 01일 퇴학) 2013년 03월 04일 ○○고등학교 제3학년 편입학	
특 기 사 항	2011.04.09 가정 사정으로 자퇴 2012.05.01 학교규칙위반으로 퇴학

▣ 대학 및 입학사정관 평가 지표의 이해

1. 학적과 학교급(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을 학교알리미를 통하여 확인한다.
2. 전입, 편입 등의 사유는 사정관 평가의 관심 요소가 된다.
3. 특기 사항은 사정관의 핵심 체크 사항이다.

· 주의 - 특기사항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학적 변동이 잦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수험생은 그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여 대학의 인재상, 모집단위와의 연관성 등을 평가하여 입학사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출결상황

기본관점 - 출결은 본격적으로 성적으로 환산되며 성실성, 자주성, 리더십, 자기조절 능력을 알게하는 근본이다. 질병, 무단, 기타의 사유가 있지만 기타 사항에 유의할 일이다. 이것은 개인의 사정을 알리는 주요 정보가 될 수 있다.

핵심Tip1.

출결사항은 점수로 환산된다. 병결은 제외되며 기타결석은 오히려 사정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임을 알아야 한다.

핵심Tip2.

무단결석, 무단결과, 무단지각 등은 범법행위이거나 학칙 위반이 된다. 학생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핵심 사항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혹 정당한 사유가 무단으로 기록된 경우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에 그 사유를 반드시 밝혀라.

① '수업일수'는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입력한다.

②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는 별지 제8호의 '출결상황 관리'에 따라 질병 · 무단 · 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③ 재취학 등 학적이 변동된 학생의 동 학년의 수업일수 및 출결상황은 학적변동 전(원적교)의 것과 변동 이후의 것을 합산하여 입력한다.

④ '특기사항'란에는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학급담임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 '특기사항'란에는 질병 · 무단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 기타결석의 사유 등을 입력한다.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횟수에 관계없이 '특기사항'란에 입력하지 않는다.

· 특기사항에 기록하는 장기결석의 기간은 학교장이 정하고, 단기결석이라도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 개근인 경우 특기사항에 '개근'으로 입력한다.

▶해설

· 학교의 수업일수는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1.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 제외)

가.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매 학년 220일 이상

나.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205일 이상

다.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190일 이상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매 학년 170일 이상

·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 이후부터 하교시각 사이에 등교를 하면 지각으로 처리한다.

·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전에 하교하는 경우이며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 이전에 등교하였다가 어떤 사유로든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하교한 경우에 조퇴로 처리한다.

· '결과'는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수업의 진행을 어렵게 하거나 수업에 늦게 참여하는 경우 등)로 구체적인 기준은 학교장이 정한다.

· '특기사항'란에는 질병 · 무단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 기타결석의 사유 등을 입력한다.

· '특기사항'란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에 따른 조치사항이 시행된 후 즉시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출결관리]-[출결특기사항등록]에서 해당학생에 대해 '특기사항'란에 입력함.

▶기재요령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전입일만 수업일수로 산정한다.

· 위탁학생의 경우에는 위탁할 때까지 재적교 수업일수와 위탁 이후의 위탁기관의 수업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특성화고등학교 ·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실습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에서 {현장실습}을 클릭하여 현장실습 기간과 내용을 입력하여 출석인정결석으로 등록한 후 일자별로 조회하여 {저장}과 {출결마감}을 수행함.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횟수에 관계없이 '특기사항'란에 입력하지 않는다.

·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장기결석의 기간은 학교장이 정하고, 단기결석이라도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장기결석'이라 함은 학교에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결석 종류별로 장기결석의 사유를 입력함.

※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질병사유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음.

· 개근인 경우 특기사항에 '개근'으로 입력한다.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의 '비고'란에 결석,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를 입력하여 학년말 특기사항 입력의 보조 자료가 되도록 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교육기간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선도위원회는 다름

· 재학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위탁기간과 소년원 송치에 의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교육기간은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운영하는 대안교육과정(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위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의출석일수로 인정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병원학교, 화상강의시스템 이용 수업 등)은 재적학교에서위탁학생관리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예규 제44호, 2012.02.20)를 근거로 함)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무단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 · 도피 등)

(2)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기타 결석

(1) 부모 ·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교외체험학습

- 기간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방법 : 현장(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현장(체험)학습 실시 →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시 · 도 교육청의 교외체험학습(체험활동)제도는 기존대로 유지되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입력하지 않음.

학년	수업일수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			특기사항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1			27	1		10			5					학교생활부적응(27일), 모간병(1일)
2		1	1		2			3						
3				1										가사조력(1일)

■ 대학 및 입학사정관 평가 지표의 이해

1. 사정관은 특히 '특기사항'의 정확한 파악으로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한다.
2. '기타'는 무단의 상대적 개념이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이다. 사정관은 사연을 알아 역경 극복의 내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무단 지각, 조퇴, 결과 3회는 결석 1일이다.
4. 출결 상황은 대학입시에서 성적에 반영되는 주요 사항이다.
5. 질병과 기타 결석은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무단결석만 점수에 영향을 준다.
6. 출석 상황은 학생의 성실성과 가정의 환경을 간접 조망할 수 있는 자료임
· 주의 - 전교학생회장, 전교부학생회장, 전교학생회부장, 학년학생회장, 학년부장, 학급반장, 학급부반장, 학급의회의장, 학급의회부의장, 동아리회장 및 이에 준하는 임원으로 활동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의 경우, 학교생활의 가장 기본이며 당연한 의무인 출결상황은 엄격한 평가와 냉정한 잣대를 요구할 것이다.

학년	수업일수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			특기사항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1														개근
2														개근
3														개근

학년	수업일수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			특기사항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1		2						1			1			
2		15			1									다리수술(10일), 감기(3일)
3				3							1			부모간병(3일)

학년	수업일수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			특기사항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1														개근
2		1			1									
3			5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2013.04.15-2013.04.19, 5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이수(2013.10.14-2013.10.25, 10일)

■ 입력 유의 사항

· 기타결석은 1일 이상인 경우 사유를 입력한다.

· 개근, 정근인 경우 특기사항에 '개근' 또는 '정근'으로 입력한다.

: 3년 개근인 경우도 3학년 출결 특기사항란에 '개근'이라고 입력한다.

(특기사항은 당해 학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전입일만 수업일수로 산정한다(재입학, 재취학, 편입학, 복학도 동일).

·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부터 하교시각 사이에 등교를 하면 지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학교장이 하교시각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음).

라. 수상경력

기본관점 - 수상은 많을수록 좋다. 동시에 전공관련성이 다양할수록 좋다. 학교상만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서 더욱 중요해졌다. 전공관련성, 열정, 자기주도력, 목표지향의 잠재력의 평가요소로 우선 평가되는 사항이 된다.

핵심Tip1.

전공적합성을 말할 때 모집단위 관련 교과의 성적향상도를 우선 평가한다. 전체 성적이 모두 우수하지 않아도, 모집단위 성적의 우수성을 입증할 때 그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모집단위 관련 수상경력이다.

핵심Tip2.

그런데 수상경력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면 곤란하다. 마구 남발하는 상의 효용성도 떨어진다. 대학은 학교알리미, 스쿨프로파일 등으로 수상의 적합도, 적정도, 수상 인원의 적절성 등을 체크하기 때문이다. 장원, 그랑프리, 최우수상, 대상 도대체 누가 1, 2, 3위인가? 등급과 등위를 병기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수상은 동일 실적물로 2인 이상이 수상한 경우에 공동수상을 기록한다.

·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 등)으로 2011학년도부터 초 · 중 · 고등학교 모두 '수상경력' 란에 교내상만 입력하고 교외상은 입력하지 않는다.

· 학교생활기록부 공신력을 높이고, 교내상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상을 남발하지 않는다.

· 모든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교육정보시스템의 교외상 수상대장관리 입력 여부는 학교장이 정하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각종 교외상 관련 대회 참가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나이스에 저장된 교외상 기록 -

▶기재 요령

· 학급, 학년단위의 단체수상(교내체육대회 응원상, 환경미화상 등)은 입력하지 않는다.

※ 학급 단위로 시상을 하기 위해 수상대장에는 등록할 수 있으나 개인별 학교생활기록부 수상 경력에는 등록하지 않음.

· 대회 관련 수상은 교내에서 주최 · 주관한 대회의 수상실적만 등록한다.

·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 직업과정 위탁교육 위탁학생과 국내 학교간 교환학생(도 · 농 교류 등)이 위탁기관 및 교환학교에서 받은 수상은 교내상으로 등록할 수 있다.

※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관련 수상, 학교운영위원장상, 학부모회장상 등은 입력할 수 없음.

▶ 영재교육기관 이수 기록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기록한다.

·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제2항에 의거 영재교육 수료에 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예) ○○영재교육원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 120시간을 수료함.

· 교내 동일 대회로 예선과 결선이 이어지는 대회는 최상위 수상실적 하나만 입력한다.

· 공동수상은 동일 실적물로 2인 이상이 수상한 경우이다.

※'수상명'란에 수상명을 입력하고 ( )안에'공동수상'과'수상인원'을 입력함.

· 동급의 상을 여러 명이 수상한 경우라도 각자의 실적물로 수상한 경우는 개별수상에 해당된다.

※ 개별 실적물로 3명이 은상(2위)을 수상한 경우 개인별 수상실적으로 등록함.

· 교과우수상을 여러 과목에서 수상한 경우는 ( )안에 수상과목을 병기한다.

예) 교과우수상(국어, 영어, 수학, 과학)

· 교과우수상의 과목명은 교과목의 정식 명칭으로 입력한다.

예) 기술 · 가정(○), 기가(×), 수학Ⅱ(○), 수학2(×), 화법과 작문(○), 화법작문(×)

· 표창장인 경우 어떤 내용의 표창인지 알 수 있도록 ( )안에 세부 표창내용을 입력한다.

예) 표창장(선행부문), 표창장(모범학생부문) : 표창장의 '등급(위)'란은 공란으로 둠.

· 등위는 사전에 계획된 등위를 입력한다.

※ 시상 결과 '최우수상(1위)'이 없는 '우수상(2위)'의 경우 '우수상(2위)'으로 입력함.

· '등급(위)'란에 상의 등급과 등위를 병기하되, 상장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입력한다.

예1) 상의 종류가 '금상', '은상', '동상'인 경우 '금상(1위)', '은상(2위)', '동상(3위)'으로 입력함.

예2) 상의 종류가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인 경우 '대상(1위)', '금상(2위)', '은상(3위)', '동상(4위)'으로 입력함.

※ 등위만 있는 경우 등급을 입력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여기관에는 기관명이 아닌 기관장을 입력한다.

예) ○○고등학교장, ○○중학교장, ○○고등학교(×), ○○중학교(×)

· 각종 대회에서 참가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 )안에 참가부문을 입력한다.

예) 과학탐구대회(과학상상화 그리기 부문)

· 동일 대회에서 학년별로 시상하는 경우, 참가대상은 각 학년으로 한다.

※ 자연탐구대회에 전교생이 참가하고 시상은 학년별로 한 경우, 참가대상은 각각 '1학년. '2학년', '3학년'임.
· '참가대상'란에는 관련 대회의 실질적인 참가대상을 입력한다.

예) 전교생(○), 전학년(×), 1학년(○), 1학년 전체(×), 전체 1학년(×), 1 · 2학년 참가동아리(○), 1 · 2 · 3학년 ○○과

■ 입력 유의 사항

· 모의고사와 관련된 교내 수상실적은 입력하지 않음.

구분	수 상 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
교내상	1년개근상		2014.02.13	○○학교장	1학년
	교과우수상(국어, 사회, 기술 · 가정)		2013.07.15	○○학교장	1학년7차일반
	교과우수상(상업경제, 프로그램실무)		2013.07.14	○○학교장	1학년◇◇계열
	교과우수상(전자회로)		2014.02.14	○○학교장	1학년□□과
	선행상		2013.05.05	○○학교장	2학년
	표창장(효행부문)		2013.05.15	○○학교장	전교생
	자연탐구대회(실험부문,공동수상, 3인)	은상(3위)	2013.05.04	○○학교장	전교생
	고무동력기날리기대회	금상(1위)	2013.05.20	○○학교장	1학년
	독후감쓰기대회	장려상(3위)	2013.05.30	○○학교장	1 · 2학년
	정보통신경진대회(정보검색부문)	대상(1위)	2013.06.04	○○학교장	전교생
	컴퓨터경진대회(문서작성부문)	우수상(2위)	2013.09.20	○○학교장	전교생
	과학탐구대회(물로켓부문)	최우수상(1위)	2013.06.20	○○학교장	2학년
	과학의날행사대회(과학독후감쓰기부문)	장려상(3위)	2013.04.20	○○학교장	전교생
	영어말하기대회(공동수상, 2인)	1위	2013.11.21	○○학교장	전교생
	○○축전우수작품(시화부문)	우수상(2위)	2013.10.20	○○학교장	전교생
	논술능력평가시험	1위	2013.04.17	○○학교장	1학년
	동아리발표대회(포트폴리오부문, 공동수상, 5인)	우수상(2위)	2013.11.15	○○학교장	1 · 2학년 참가동아리
	기능경진대회(웹프로그래밍부문)	최우수상(1위)	2013.12.20	○○학교장	△△과 · □□과
	자동차정비기능대회(공동수상, 2인)	장려상(3위)	2013.05.24	○○학교장	1 · 2 · 3학년 ○○과
	학생토론대회(공동수상, 3인)	우수상(2위)	2013.09.30	○○학교장	전교생

·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 등)으로 2011학년도부터 초 · 중 · 고등학교 모두 '수상경력' 란에 교내상만 입력하고 교외상은 입력하지 않는다.

· 동일 실적물로 수상한 인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상명'란에 수상명을 입력하고, ( )안에 '공동수상'과 '수상인원'을 입력한다. 동일 대회로 예선과 결선이 이어지는 대회의 경우는 최상위 기관의 수상 실적 하나만 인정한다.

· 동급의 상을 여러 명이 수상한 경우라도 각자 실적물로 수상한 경우는 개별 수상에 해당함

· 교과우수상의 과목명은 약칭으로 입력하지 않는다.

(예) 기술 · 가정(O), 기가(X), 수학 II (O), 수학2(X)

· 수여기관에는 기관명이 아닌 기관장을 입력한다.

· 개근상은 1년 개근상과 3년 개근상을 구분하여 입력한다.

· 표창장인 경우 어떤 내용의 표창인지 알 수 있도록 ( )안에 세부 표창내용을 입력한다.

예) 표창장(선행부문), 표창장(모범학생부문) : 표창장의 '등급(위)'란은 공란으로 둠.

· 참가대상 : 예) 전교생(○), 전학년(×), 1학년(○), 1학년 전체(×), 전체 1학년(×)

· 학급, 학년단위의 단체수상(교내체육대회의 응원상, 환경미화상 등)은 입력하지 않는다.

※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 직업과정 위탁교육 위탁학생과 국내 학교간 교환학생(도 · 농교류 등)이 위탁기관 및 교환학교에서 받은 수상은 교내상으로 등록한다.

※ 영재교육기관 관련 수상, 학교운영위원장상, 학부모회장상 등은 입력할 수 없음.

· 교과우수상을 여러 교과에서 수상한 경우는 ( )안에 수상과목을 병기한다.

예) 교과우수상(국어, 영어, 수학, 과학)

· 모든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진로희망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교육정보시스템의 교외상 수상대장관리 입력 여부는 학교장이 정하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각종 교외상 관련 대회 참가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스쿨프로파일 제작 및 객관적 증거자료로 필요

▣ 대학 및 사정관 평가 지표

1. 교과와 비교과의 모든 수상은 전공, 학업계획, 고난 극복 등의 평가 대상이 되며, 결코 분리되어 평가되지 않는다. 교과와 수상, 활동 등을 종합검토하여 평가한다.
2. 교내상의 전교생 대비 수상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은 사정관이 반드시 밝혀내는 주요 사안이다.
3. 특별전형의 경우, 수상의 등급과 서열/ 평점을 대학은 공지하여야 한다. 대학에서 각종 대회의 '대회의 시상 인원, 대회 역사(연도)' 등을 조사하여 대회의 권위와 등급을 정하고 수상의 권위와 등급을 공지할 필요 있음
4. 학교장상만 기록할 수 있다.
5. 교과목우수상의 경우 학교별 시상 범주를 확인하여 객관적 지표로 활용 가능
6. 생기부에는 3개년 동안 교과 및 비교과 분야의 수상 현황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수험생의 특기, 관심과 노력, 인성과 개성, 리더십과 봉사성, 잠재력과 전공적합성, 그리고 열정과 공동체정신까지를 파악할 수 있다. 수상명, 등위, 수여 기관, 참가 대상 등은 수상의 성격과 권위를 가름하는 요소가 되므로 면접 자료 및 사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7. 모집단위 관련 수상의 많으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마.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기본관점 - 고등학교만 기록할 수 있다. 동시에 교육부가 인증한 '기술'관련 자격증만 기록한다. 그러나 자신의 특징을 살릴 수 있으면 61개 자격증을 활용할수록 좋다.

핵심Tip1.

자격증은 전공적합도, 취미, 열정과 잠재력을 함께 보증하는 증서다. 문학도로서, 국어학자로서, 아나운서나 PD를 꿈꾸는 학생에게는 국어능력인증시험, KBS한국어능력검정 등이 유용하다. 경영, 경제, 무역, 회계, 통계학과 등 경상계열 학생에게는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 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 매경TEST 등이 유용하다 하겠다.

핵심Tip2.

한국사인증시험, 한자능력시험 등 학생들이 자주 접하고 있는 시험은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없지만 모집단위 연관성이 매우 높은 자격인증 시험이다. 자기소개서에 기록하여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다. 중학교는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을 기록하지 않는다.

①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을 입력하며 원본을 대조한 후에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있는 내용으로서 고등학생이 재학 중에 취득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인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5호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입력 가능한 것은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부록 3]'을 참조함. - 13개부처 61개 자격증이 기록 가능함

구분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2급	13-K4-010622	2013.08.30	대한상공회의소
	전산회계운용사 2급	13-L2-001357	2013.08.21	대한상공회의소
	정보처리기능사	13404101715C	2013.10.15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기기운용기능사	13403081539G	2013.07.24	한국산업인력공단
	한식조리기능사	13801130210J	2013.02.01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과기능사	13401080508H	2013.12.04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기술자격(ITQ)A등급-한글엑셀	A001-2013103-002317	2013.04.05	한국생산성본부
	정보기술자격(ITQ)A등급-한글파워포인트	A001-2013103-002317	2013.04.05	한국생산성본부
	인터넷정보관리사 2급	IIS-1304-001858	2013.12.15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회계 2급	2213833235	2013.05.19	한국세무사회
	리눅스마스터 2급	LMS-1303-001205	2013.09.17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문서실무사 2급	071PT51-20001713	2013.08.04	한국정보관리협회

※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의 관련 정보는 http://www.q-net.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부록3]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 (2013.03 현재)				
소관부처	자격종목	등급	자격관리자	공인기간(기공인기간)
방송통신위원회(10)	공무원정보이용능력평가(NIT)	-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9.02.17~13.02.16(03.02.17~09.02.16)
	네트워크관리사	2급	(사)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12.01.20~16.01.19(02.01.11~12.01.19)
	디지털정보활용능력(DIAT)	초 · 중 · 고급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9.02.17~13.02.16(03.02.17~09.02.16)
	리눅스마스터	1 · 2급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1.01.15~15.01.14(05.01.15~11.01.14)
	인터넷정보관리사	전문가1 · 2급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1.02.17~15.02.16(01.01.12~11.02.16)
	정보기술자격(ITQ)시험	A · B · C급	한국생산성본부	12.01.20~16.01.19(02.01.11~12.01.19)
	e-Test Professionals	1 · 2 · 3 · 4급	(주)삼성SDS	11.02.17~15.02.16(01.01.12~11.02.16)
	PC Master(정비사)	-	(사)한국정보평가협회	12.02.23~16.02.22(06.02.23~12.02.22)
	PC정비사	1 · 2급	(사)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11.01.15~15.01.14(05.01.15~11.01.14)
	PC활용능력평가시험(PCT)	A · B급	(주)피씨티	11.02.17~15.02.16(01.01.12~11.02.16)
금융위원회(7)	신용관리사	-	(사)신용정보협회	08.02.15~13.02.14(06.02.15~08.02.14)
	신용분석사	-	(사)한국금융연수원	10.01.20~15.01.19(01.01.20~10.01.19)
	여신심사역	-	(사)한국금융연수원	10.01.20~15.01.19(01.01.20~10.01.19)
	자산관리사	-	(사)한국금융연수원	11.01.05~16.01.04(05.01.05~11.01.04)
	재경관리사	-	삼일회계법인	10.04.01~15.03.31(07.04.01~10.03.31)
	회계관리	1 · 2급	삼일회계법인	10.04.01~15.03.31(07.04.01~10.03.31)
	CRA(신용위험분석사)	-	(사)한국금융연수원	08.02.15~13.02.14(06.02.15~08.02.14)
기획재정부(4)	국제금융역	-	(사)한국금융연수원	10.01.20~15.01.19(01.01.20~10.01.19)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	S · 1 · 2 · 3급	한국경제신문사	10.11.10 ~ 13.11.09
	외환전문역	1 · 2종	(사)한국금융연수원	10.12.01~15.11.30
	경제경영이해력 인증시험 매경TEST	최우수, 우수	매일경제신문사	10.12.22~13.12.21
교육부(1)	브레인트레이너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11.09.21~14.09.20 (09.09.21~11.09.20)
법무부(1)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사)한국포렌식학회/한국인터넷진흥원	12.12.12~17.12.16
안전행정부(3)	옥외광고사	2급	한국옥외광고협회	12.02.06~14.02.05(03.02.06~12.02.05)
	정보시스템감리사	-	(사)한국정보화진흥원	11.02.17~16.02.16(03.02.17~11.02.16)
	행정관리사	1 · 2 · 3급	(사)한국행정관리협회	12.02.01~15.01.31(04.02.01~12.01.31)

[부록3]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 (2013.03 현재)				
소관부처	자격종목	등급	자격관리자	공인기간(기공인기간)
문화체육관광부(7)	국어능력인증시험	1 · 2 · 3 · 4 · 5급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11.10.08 ~ 13.10.07 (09.10.08 ~ 11.10.07)
	실천예절지도사	-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12.02.17~15.02.16(06.02.17~12.02.16)
	종이접기마스터	-	(사)한국종이접기협회	11.02.27~13.02.26(06.02.27~11.02.26)
	KBS한국어능력검정	1,2+,2-,3+,3-,4+급	KBS한국방송공사(?)	11.01.23~13.01.22(09.01.23~11.01.22)
	한국실용글쓰기검정	12준23준3	(사)한국국어능력평가협의회	10.12.21~13.12.20 (07.12.21~11.12.31)
	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12.01.01~15.12.31(08.01.01~11.12.31)
	SQL자격	전문가개발자	(재)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13.01.04~17.12.31
지식경제부(14)	샵마스터	3급	(사)한국직업연구진흥원	09.01.17~14.01.16(04.01.17~09.01.16)
	패션스타일리스트	.	(사)한국직업연구진흥원	10.11.17~12.11.16
	정보기술프로젝트 관리전문가(IT-PMP)	-	대한정보통신기술(합)	11.09.30 ~ 13.09.29 (09.09.30 ~ 11.09.29)
	정보보호전문가(SIS)	2급	(사)한국인터넷진흥원	11.09.30~16.09.29(04.01.20~11.09.29)
		1급		10.11.17~12.11.16(05.02.17~11.02.16)
	지역난방설비관리사	-	(사)한국열관리사협회	11.09.30~16.09.29(05.02.01~11.09.29)
	CS Leaders(관리사)	-	(사)한국정보평가협회	11.01.07~14.01.06(09.01.07~11.01.06)
	ERP물류정보관리사	1 · 2급	한국생산성본부	11.09.30~13.09.29(09.09.30~11.09.29)
	ERP생산정보관리사	1 · 2급	한국생산성본부	11.09.30~13.09.29(09.09.30~11.09.29)
	ERP인사정보관리사	1 · 2급	한국생산성본부	11.09.30~13.09.29(09.09.30~11.09.29)
	ERP회계정보관리사	1 · 2급	한국생산성본부	11.09.30~13.09.29(09.09.30~11.09.29)
	GTQ	1 · 2급	한국생산성본부	11.09.30~13.09.29(09.09.30~11.09.29)
	빌딩경영관리사	.	(재)한국산업교육원	10.11.17~12.11.16
	시스템에어컨 설계시공관리사	-	한국냉동공조협회	11.11.29 ~ 13.11.28
	RFID기술자격검정	RFID-GL RFID-SL	(TK)한국알에프아이디 유에스엔융합협회	13.01.01~14.12.31
보건복지부(3)	병원행정사	-	(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12.02.01~17.01.31(07.02.01~12.01.31)
	수화통역사	-	(사)한국농아인협회	11.02.20~16.02.19(06.02.20~11.02.19)
	점역교정사	1,2,3급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2.04.01~17.03.31(07.04.01~12.03.31)
고용노동부(5)	가구설계제도사	-	대한상공회의소	11.02.09~14.02.08(00.12.22~11.02.08)
	기계설계제도사	-	대한상공회의소	11.02.09~14.02.08(00.12.22~11.02.08)
	컴퓨터운용사	-	대한상공회의소	11.02.09~14.02.08(00.12.22~11.02.08)
	문서실무사	1 · 2 · 3 · 4급	(사)한국정보관리협회	11.02.09~14.02.08(00.12.22~11.02.08)
	전산세무회계	전산세무1 · 2급	한국세무사회	12.03.16~17.03.15(07.03.16~12.03.15)

[부록3]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 (2013.03 현재)				
소관부처	자격종목	등급	자격관리자	공인기간(기공인기간)
국토해양부(1)	자동차진단평가사	1 · 2급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10.11.24~13.11.23
경찰청(2)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12.04.06~15.04.05(07.04.06~12.04.05)
	열쇠관리사	1 · 2급	(사)한국열쇠협회	11.01.03~14.01.02(05.01.03~11.01.02)
산림청(3)	분재관리사	분재관리사1 · 2급 분재전문관리사	(사)한국분재조합	08.02.01~13.01.31(02.02.01~08.01.31)
	수목보호기술자격	수목보호기술자	(사)한국수목보호연구회	10.01.15~15.01.14(02.04.01~10.01.14)
	조경수조성관리사	2 · 3급	(사)한국조경수협회	10.11.16~15.11.15
13개 부처	61개 종목	-		

※ 소관부처는 정부조직법 개편 결과에 따라 향후 재분류할 예정임
※ 기존 지식경제부의 '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 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소관으로 변경됨
확인홈피 : http://www.pqi.go.kr

바. 진로희망사항

기본관점 - 진로가 매우 강조되는 시점이다. 중고등학교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진로를 바탕으로 하는 진학지도가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진로관련 커리어넷과 워크넷, 그리고 에듀팟의 기록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진로는 개인의 특기와 희망 직종이 연관성을 갖는 것이 핵심이면서, 동시에 학교급과 학년이 올라가면서 내용이 심화 발전되는 진로성숙도가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는 것이다.

핵심Tip1.

금년부터 1,2,3학년의 모든 기록이 대학에 제공된다. 문과에서 이과로 또는 그 반대로 전과를 했다고 하더 도 진로희망 동기를 분명하게 작성하고 면접에 임하면 상관없다.

핵심Tip2.

진로희망이 변한 이후에 독서, 인턴십, 체험, 봉사활동 등이 어떻게 바뀌었나가 더욱 중요함.
학급담임교사의 진로지도와 관련된 상담 및 권고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영역에 입력한다.

▶기재요령

·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직업에 대한 안내자료를 미리 제공하고 진로희망은 구체적으로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기 또는 흥미'는 특정 사물의 명칭을 그대로 입력하거나 포괄적 개념의 용어로 입력하지 않고 구체적인 용어나 구체적 행동과 관련된 용어로 입력한다.

예) 컴퓨터조립(○), 컴퓨터(×), 야구(○), 운동(×), 모형자동차조립(○), 자동차(×), 없음(×)

· '진로희망'은 구체적인 직업의 명칭을 입력한다.

예) 컴퓨터프로그래머(○), 컴퓨터(×), 의상디자이너(○), 디자이너(×), 없음(×)

· 학급담임교사의 진로지도와 관련된 상담 및 권고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영역에 입력한다.

유의사항

· '특기 또는 흥미',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희망'은 충분한 상담 또는 사전 조사를 한 후 입력하되, 추후 상담 등을 통해 변경된 경우 당해 학년도에는 수정할 수 있음.

· 진로희망사항은 다음 학년도에 정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학년	특기 또는 흥미	진 로 희 망	
		학 생	학부모
1	만화그리기	만화가	의상디자이너
1	클래식음악감상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1	아이돌보기	유치원교사	유치원교사
1	역사책읽기	국사교사	국사교사
1	인터넷검색	대학교수	대학교수
1	동물기르기	생물학자, 생명공학자	생물학자
1	고미술감상	학예연구사	역사학자
1	과학도서읽기	나노공학자	우주공학연구원
1	노래부르기	한의사	조선공학자
1	제과제빵	제빵사, 양식요리사	제빵사, 요리사
1	요리하기	푸드스타일리스트	요리사
1	자원봉사하기	언어치료사	언어치료사

▣ 대학 및 입학사정관 평가 지표

1. 입학사정관의 필수 필독 사항이다.

2. 담임 교사는 진로진학상담교사 등 관계 자료를 분석 진로지도와 관련된 특이 사항을 추천서에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4. 진로성숙도가 중요하다. 1학년 과학자 〉 2학년 핵공학자 〉 3학년 미NASA ---GRE준비 중

1학년 의사 〉 2학년 외과의사 〉 3학년 흉부외과의사

5. 수험생과 학부모의 진로 희망과 담임교사의 관찰 내용, 상담교사의 권고 내용 모두 기록되므로 모집단위와 연관성,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판단하는 귀중한 사정자료가 된다.

▣ 현장에서는 프로그램에 의한 동일한 지도 내용이 발견된다.

· 주의 - 입학사정관이 보는 핵심의 첫째가 진로관련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독서, 봉사, 인턴십, 기타 활동이 수험생의 모집단위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수상과 체험 활동까지 진로와 관련성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물론 다양한 활동과 수상, 독서 등이 권장되어 마땅하지만 입학사정관제의 기본 취지가 내신점수, 수능점수 등이 아니라 자기발전의 노력과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분명 진로관련 모든 행위는 모집단위와의 연관성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사. 창의적체험활동상황 - 다음 장에서

자. 교과학습발달상황

기본관점 - 자기주도학습의 1차적 의미는 '학생에게 성적은 어떤 의미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학생의 석차가 향상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정관은 석차가 향상된 학생의 배경에 관심을 갖는다. 환경적으로 어려웠지만 성적이 향상되었는가? 자신만의 노하우와 의지로 성적을 향상시켰는가? 이런 관점은 사정관 평가의 핵심이다. 이것이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이 발달'한 상황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의 열정과 동기와 방법과 지정학적 환경도 이해하게 된다.

핵심Tip0.

심화과목의 이수여부 판단이 중요하다. 물리II, 생물II, 화학II, 지구과학II 등의 교유과정이 개설되었는데도 이수를 하지 않고 자연이공계, 의학계, 이과대학 등에 응시한 경우, 우수한 학생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고려한다. 내신의 유불리만 계산한 학생인지 확인할 사항이다.

서울교육청의 '거점학교'제도는 자신이 꼭 이수할 음악, 미술, 체육, 제2외국어, 과학 과목의 소속학교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인근 거점학교에서 이수하도록 한 제도로 전공심화 수업을 받을 기회로 볼 수 있다.

- 운영 영역 (학교수) : 음악(5), 미술(6), 체육(7), 과학(7), 제2외국어(4), 직업교육(4)
- 2014년 운영 학교수 : 33교

[참고] 2014 교육과정 거점학교 현황

지역청 / 영역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강서	강남	동작	성동	성북	계
음악		숭실고		영신여고	풍문여고 서울예고			압구정고				5
미술	청량고	선정고	영신고		계성여고 서울예고	상일여고					창문여고	6(7)
체육	신현고	신도고		염광고				서울고	영등포고	성수고	고대부고	7
과학		인창고		창동고	경신고	문정고	덕원여고	양재고	수도여고			7
제2외국어	해성여고				서울 국제고		영일고			건대부고		4
직업		서서울생활 과학고		동산정보 산업고	리라 아트고	서울 컨벤션고						4
계	3	5	1	4	6(7)	3	2	3	2	2	2	33(34)

※ ( )은 음악, 미술 두 과정을 운영하는 서울예고를 중복 산정한 숫자임
※ 서울예술고등학교와 서울국제고는 추후 운영 예정

핵심Tip1.

자기주도학습을 도서관에서, 면학실에서 또는 교실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소극적 개념이고 본질이 왜곡된 것이다. 학습의 동기와 과정은 물론이고 성적향상을 위한 나만의 방식과 습관과 노력이 무엇인가? 이것이 자기주도 학습의 적극적 개념이다.

핵심Tip2.

노트관리법, 질문 방식과 활용, 예습과 복습의 과정, 동아리연구활동, 멘토교사와의 유대, 인강과 EBS의 활용법, 오답노트를 활용하고 정리하는 법, 자기주도학습 플래너의 활용과 사례 등등 나만의 과정과 노하우를 반드시 준비한다.

핵심Tip3.

학생의 진로희망에 따라 교과담임의 특화된 차별성이 주어지면 좋다. 경제, 법과 사회, 생활과 윤리 등에서 경영학과 지망학생, 변호사를 꿈꾸는 학생, 사회복지를 희망하는 학생의 세부 능력 및 수행 평가 기술이 달라져야 한다. 모집단위와 밀접한 학과에서 학생의 진로희망에 맞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관련하여 지도하고 기록물을 남겨 줄 필요가 있다.

⑤ 중 · 고등학교의 '비고'란에는 학교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⑥ 중 · 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과 관련된 세부능력 및 수행평가,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하고, 방과후학교 수강내용(강좌명, 이수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다.

⑦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 중 교양교과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이수여부를 '이수'로 입력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또한,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 교양교과(환경과 녹색성장,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성격의 과목을 선택할 경우에는 과목명 및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이수여부는 'P'로 입력한다.

⑧ '기초 및 심화과정 도입 등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방안'의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학생이 기본과목(기초과목) 또는 심화과목을 이수한 경우 '석차등급' 대신에 '이수'를 입력하고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입력하지 않는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해당 과목의 이수 기준', '수강자수', '이수자수'를 입력한다. 다만, 기본과목(기초과목)은 시범학교이외의 학교도 시범학교와 동일하게 입력할 수 있다.

⑨ 보통교과(체육 · 예술(음악/미술) · 교양교과 제외)의 과목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이고 학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과목의 '석차등급'란에 ' · '을 입력할 수 있다. 다만,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이 2과목 이상인 경우에 '석차등급'란에 '석차등급' 또는 ' · ' 표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입력한다.

⑩ 제8항의 규정은 '기초 및 심화과정 도입 등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방안'의 시범 교육지원청에서 개설한 기초 및 심화과목을 포함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 운영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범학교'를 '시범 교육지원청'으로 본다.

▶해설

· 글로벌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 ·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편하였고, 수준별 · 맞춤형 교육여건 조성과 함께 모든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현시켜줄 수 있는 교수 · 학습과 평가 제도의 확립을 위한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방안』(2011.12.13)에 따라 학업성취의 수준을 평가하는「성취평가제」가 도입되었다.

- 성취평가제는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가'라는 평가의 본래적 의미를 강조하는 평가제도이다.

- '성취기준'은 각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한 것으로 교수 · 학습 및 평가의 실질적인 근거로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 학생이 무엇을 공부하고 성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실질적인지침이 된다.

- '성취수준'은 학생들이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도달한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취기준에의 도달 정도를 몇 개의 수준으로 구분하고 각 수준별 학생들의 지식, 기능, 태도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성취기준 단위의 성취수준(상, 중, 하)과 학기 단위의 성취수준(A-B-C-D-E 등)으로 구분된다.

· 2013학년도 중학교 1 · 2학년의 성적 표기 방식을 'A-B-C-D-E'로 변경하고, 석차를 삭제하며,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을 병기한다.

※ 체육 · 예술교과는 종전대로 성취도만 산출하되, 명칭만 변경(A · B · C)

- 2013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 · 마이스터고등학교의 1 · 2학년 전문교과는 '석차등급' 대신에 '성취도(A-B-C-D-E)'로 성적을 산출한다.

※ 전문교과 : 농생명 산업 교과, 공업 교과, 상업 정보 교과, 수산 · 해운 교과, 가사 · 실업 교과

· 미래사회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교과교실제, 고교 다양화 정책 등 변화된 정책 환경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착근 지원 및 학업성취에 대한 고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기초 및 심화과정 도입 등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이 발표(2010.04.09)되었다.

- 영어 · 수학과 같이 수준별 선택이 필요한 교과에 대해 학습결손 학생을 위한 고등학교 '기초과정'과 우수한 학생을 위한 '심화과정'을 개설하고 학생이 자신의 능력 · 적성 · 흥미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 ·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 영어 교육과정의 2009 개정 교육과정이 2013학년도 1학년부터 고등학교에 적용됨에 따라 기본과목(기초영어)의 성적을 '석차등급' 대신 '이수'로 표기하고, 해당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을 때는 관련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도록 하였다.

· 고등학교에서 보통교과를 소인수(13명 이하) 교과로 개설한 경우 성적 표기는 시범학교처럼 '석차등급' 또는 ' · ' 표기 중학교 자율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산출한다.

· 중학교의 선택과목 중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교양교과 성격을 지닌 과목의 이수시간은 계획된 시간으로 입력하고 이수여부는 1 · 2학년은 'P'로, 3학년은 '이수'로 처리한다.

▶기재요령

· 과목별 성적일람표(학기말)의 합계점수는 100점으로 환산하여 작성한다.

· 지필평가, 수행평가, 학기말평가의 성적처리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다.

· 2013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 교과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에 따라 변경 · 적용됨에 따라 동일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되는 2013학년도 학년과 2 · 3학년의 영어 교과에 해당하는 과목이 달라진다.

※ 2013학년도 1학년의 영어 교과는 [교육과정]-[편제및시간배당기준관리]-[편제및시간배당관리]에서 등록 → 교과(학교) 탭 → '교과(학교)'의 '고등학교선택교육과정'에서'교과-보통교과-기초-영어 편제' 선택 → '학과/과정' 및 '학기' 선택 → 과목찾기 → '단위수' 입력(시수는 자동 계산됨) → 저장함.

· 기초영어 과목을 운영하는 경우 기초영어 과목은 기본과목으로 '석차등급' 대신에 '이수'를 입력하고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을 때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입력하지 않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해당 과목의 이수기준', '수강자수', '이수자수'를 입력한다.

※ 기본과목의 편제는 [교육과정]-[편제및시간배당기준관리]-[편제및시간배당관리]에서 수정할 '과목명'선택 → '성적처리유형'란을 '일반'으로, '기본심화과목'란에서 '기본심화과목여부'에 체크 → 저장함.

※ 기본과목의 성적처리는 [성적]-[성적처리]-[기본/심화과목 이수/미이수관리]에서 해당 과목을 '이수/미이수' 처리함.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 기록 예시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수강자수)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수강자수)	
영어 …	기초영어 …	4 …	87/70.1(10.1) …	이수(12) …	…	…	…	
이수단위 합계								

· 일반고등학교에서 체육 · 예술 교과(군)의 전문교과를 보통교과로 개설한 경우 3등급으로 성적처리를 해야 한다.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있다(입력여부는 교육적 유의미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함).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이수시간은 계획된 시간으로 입력하되, 이수시간 입력 기준(예시: 출석률 80% 이상 등)은 당해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함.

※ 당해 학기에 개설한 과목과 관련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만 입력할 수 있음.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입력 예시

- 음악 : 1학기 방과후학교 클래식기타반(20시간)을 수강함.

2학기 방과후학교 클래식기타반(20시간)을 수강함.
- 영어 : 1학기 방과후학교 실용영어회화반(20시간), 영어문학반(40시간)을 수강함.
- 과학 : 2학기 방과후학교 과학실험반(60시간)을 수강함.
·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을 입력할 수 있다.
예)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과목을 이수함(일반물리학Ⅰ, 45시간, 3학점, 2013.08.23).
· 발명교실을 수료한 학생은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 제3항에 의거 발명교실교육실적을 관련 교과(기술 · 가정 또는 과학)에 입력할 수 있다.
※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는 초급(기초) · 중급 · 고급(심화) 또는 특별과정 등 발명교실 정규과정 교육실적 자료를 입력함(학교자체 실시 과정 제외).
예)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발명교실 '발명 · 특허 기초(또는 고급)과정(20시간)'을 수료함.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1등급을 체육 관련 교과에 입력할 수 있다.
·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공인어학시험(토플, 토익, 텝스 등) 성적, 각종 교내 · 외 인증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과 '특기사항'란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력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학교장이 정한다.
※ 특기사항은 학기별로 입력할 수 있으며, 동일 과목에 대해 '1학기'와 '2학기'에 내용을 각각 입력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에 '(1학기)', '(2학기)'와 같이 입력함.
· 재취학, 재 · 전 · 편입학한 학생의 성적 일부가 중복된 경우 재취학, 재 · 전 · 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 귀국학생 교과목 및 성적의 기록
- 유학(미인정유학 포함)하고 귀국한 학생의 유학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란은 공란으로 둔다.
※ 동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대상이 아님.
※ 재외 한국학교([부록 2] 참조)에서 전입오는 경우 전입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할 수 있음(단, 성적산출 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음).
· 훈령 제616호의 적용을 받았던 학생이 복학 등의 사유로 제671호 이후 훈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양식은 변경하지 않고 해당 학기 성적을 입력하고 '비고'란에 해당사유를 명시하며 학교는 기존 출력물을 함께 보관한다.

▣ 유의사항
·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공인어학시험(토플, 토익, 텝스 등) 성적, 각종 교내 · 외 인증 사항, 발명특허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의고사 관련 원점수, 석차, 석차등급은 입력하지 않음.
▶ 기재예시
[고등학교 일반과목]

[1학년]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 고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석차등급(수강자수)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석차등급(수강자수)	
수학	공통수학	4	수	1(3)/240				복학(1)
이수단위 합계								

※ '비고' 란의 사유는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인식 가능하도록 간단한 단어 형태로 입력하며, 상세내역은 학적사항을 참고함.

· (1학기)국어 : 토론의 과정을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수업을 통해 보여줌. 1학기 방과후학교 고시가반(40시간), 고전소설반(30시간)을 수강함.

· (2학기)국어 : 일반적인 논거보다는 다소 독특한 논거를 찾아 자신의 주장을 글로 표현하는 참신성이 돋보이는 학생임. 언어의 변화로 큰 재앙이 일어났다는 바벨탑 이야기, 언어 변화로 인한 홋카이도 민족성의 말살, 1차 대전 이후의 헝가리-오스트리아 제국의 분할의 기준이 언어였다는 점 등 특이한 사례를 논거로 하여 인간이 언어의 부분집합이라는 독특한 명제를 만들어 내었음.

· (1학기)작문 : 레비 스트로스의 〈슬픈열대〉와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등 영역별 필독서를 읽고 쟁점 사항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글을 쓰는 수업을 진행하였음. 각 도서를 빠짐없이 읽고 분석하는 성실함을 보여주었으며, 우리 현실과 연관시켜 이해한 내용을 한편의 글로 완성하는 데 있어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음.

· (2학기)독서 :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독서교실에 참여하여 전 과정을 이수함 (2013.11.18.-2013.11.26, 8시간).

· (1학기)법과정치 : 사이버 공간의 불법 다운로드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건전한 법문화와 법의식의 중요성을 잘 설명함. 또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침해된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함.

· (2학기)법과정치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사례에 관심이 많아 분쟁의 발생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함. 특히 청소년기의 법률문제에 대한 모의재판 시나리오 쓰기에서 분쟁 장면들을 현실감 있게 구성하고, 대립되는 법적 쟁점을 추출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줌.

· (1학기)동아시아사 : 독도와 관련된 일본과 우리나라의 고 문헌 · 지도 등을 분석하여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역사적 연원을 통해 조리 있고 설득력 있게 발표함.

· (1학기)경제 : 현실경제에 대한 관심이 크고, 구체적인 창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모의투자를 통해 창업 노하우를 얻음.

· (1학기)기하와벡터 : 3차원 공간 감각이 뛰어나고, 벡터를 활용하여 기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남. 기하와 벡터의 고등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능력이 높고 이러한 개념을 활용하여 자연 과학 및 공학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함.

· (1학기)과학 : 염산의 농도에 따른 반응속도의 효과, 전류와 자기장 실험, 빛의 세기와 광합성 속도 등의 실험활동에서 실험조의 조장으로 세심한 실험 과정과 정확한 결과 관찰을 통해 실험을 훌륭하게 수행하였음.

· (2학기)체육 : 농구경기에서 가드로서 뛰어난 드리블 능력과 함께 경기를 조율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교과 시간의 모둠별 농구시합에서 학급 학생들에 의해 최우수선수로 뽑힘.

· (2학기)체육 : 판단력이 빠르고, 근력과 민첩성이 뛰어나 구기운동(농구)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으며, 정의적 측면에서도 봉사정신, 리더십이 강하게 나타남.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1등급임.
(1학기)음악 : 각종 악기를 잘 다루며 특히 바이올린 연주를 잘함. 음악시간에 바이올린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가요를 서양고전음악으로 편곡, 연주하여 동료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음.
· (2학기)미술 : 조소 재료의 성질을 풍부하게 느끼고 입체적 특성을 살려내는 의식이 강하며, 공간의식이나 발상에 있어 남다른 창의성을 지님.

▣ 대학 및 사정관평가 지표

1. 입학사정관을 Admission Reader라 하는 것은 교과관련의 성취도의 변화와 수험생의 고난극복과정이 밀접하기 때문이다. 가정의 경제적 고난이 아니라 교과별 성취능력이 어떻게 극복되었는가를 사정관은 아주 섬세하게 관찰한다. 학업발달과 성취도의 자기주도성은 학생의 인격을 드러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2. 전공이나 모집단위과 관련이 깊은 교과목에 대한 방과후학교 수업이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대학에서 실시한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UP 수업에 관한 기록 등이 중요한 평가 참고 사항이 될 수가 될 수 있다.(단, 대교협 주관 UP프로그램에 참가한 경우, 대학명을 쓰지 않는다.)
3. 교과 지도교사의 신뢰와 애정이 실린 기록사항은 사정관에게 무게있는 어필을 할 수 있다.
4. 교과의 성취도는 물론, 각종 대회의 수상, 이수증, 참가기록 등도 교과와 관련하여 살핀다.
5. 진로지도사항과 관련하여 일관성이 있도록 교과지도 교사도 유념해야 한다.

■ 입력유의 사항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록한다.
· 고등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등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입력여부는 교육적 유의미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하고 관련교과가 없는 경우 학급담임교사가 입력함).
-단, 이 경우 방과후학교 수업 이수 여부를 **'성적관리위원회'의 규정으로 몇 %이상 출결한 자를 이수로 인정할 것인지 규정이 사전 정해져 있고, 그 규정을 지킨 경우에만 기록가능하다.**
※ 방과후학교 활동상황 입력 예시(입력시간은 수강한 시간임)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프라모델반(20시간)을 수강함.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학실험반(60시간)을 수강함.
·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공인어학시험(토플, 토익, 텝스 등) 성적, 각종 교내 · 외 인증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과 '특기사항'란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록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학교장이 정한다.
· 고등학교에서 일반과목에 대한 교과담당교사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학급담임교사의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최대 글자 수는 한글 5,000자(영문 기준 10,000자)이다.
※ 예체능과목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최대 글자 수도 한글 5,000자(영문 기준 10,000자)임.

■ 꼭 알아야 할 사항 - 대입성적의 반영

1.성적 등급

등급	누적 비율	등급 비율	30명	100명	200명
1	1~4 %	4 %	1	4	8
2	~11 %	7 %	3	11	22
3	~23 %	12 %	6	23	46
4	~40 %	17 %	12	40	80
5	~60 %	20 %	18	60	120
6	~77 %	17 %	23	77	154
7	~89 %	12 %	26	89	178
8	~96 %	7 %	29	96	192
9	~100 %	4 %	30	100	200

2. 등급의 예시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누적인원	7.12	19.58	40.94	71.2	106.8	137.06	158.42	170.88	178
반올림값	7	20	41	71	107	137	158	171	178
등급인원	7	13	21	30	36	30	21	13	7

3. 동석차가 발생하면 · 중간석차로 계산

-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자 수-1)/2**
- **예시 1 (이수자수 96명인 과목에서 1등 동점자가 7명인 경우) :**
  이수자수가 96명인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1등급 학생은 4명이나 현재 1등인 학생이 7명이므로, 중간석차 백분율을 적용하면 4.17%이므로 모두 2등급을 부여.
- **예시 2 (이수자수가 130명인 과목에서 1등 1명, 2등 동점자가 6명인 경우) :**
  이수자수가 130명인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1등급 학생은 5명이나, 예시의 경우 2등인 학생 6명은 1등급 인원을 초과하므로 중간석차 백분율을 적용하면 3.46%로 이 학생들은 1등급을 부여.

4. 대학은 등급을 환산하여 반영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0	95	90	85	80	75	70	75	60
8	7	6	5	4	3	2	1	0
100	99	98	97	95	93	89	85	81
100	99.5	99	98.5	97	94	88	79	68
100	99.75	99.5	99.25	99	97	94	90	85

(등급을 다양한 점수대로 환산하여 반영함, 대체로 등급이 하락할수록 반영 점수 폭이 떨어짐)

5. 대학은 석차백분위를 반영

평균 / 표준편차	90	80	70	60	50
10	60	70	80	90	100
15	56.67	63.33	70	76.67	83.33
20	55	60	65	70	75
25	54	58	62	66	70

(표에서 보듯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표준편차가 클수록 점수는 낮게 반영함)

표준화점수	3.0	2.9	2.8	2.7	2.6
석차백분율	0.13%	0.19%	0.26%	0.35%	0.47%
백분위	99.87	99.81	99.74	99.65	99.53
(표준점수1)	80	79	78	77	76
표준화점수	2.5	2.0	1.5	1.0	0.5
석차백분율	0.62%	2.28%	6.68%	15.87%	30.85%
백분위	99.38	97.72	93.32	84.13	69.15
(표준점수1)	75	70	65	60	55
표준화점수	0	-0.5	-1.0	-1.5	-2.0
석차백분율	50%	69.15%	84.13%	93.32%	97.72%
백분위	50	30.75	15.87	6.68	2.28
(표준점수1)	50	45	40	35	30

(표준화점수(=Z점수)는 응시생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달라진다.)

- **응시생들의 점수 분포(평균, 표준편차)가 달라지면 표준점수는 달라질 수 있다.**

$$Z = \frac{100 - \overline{X}}{S_X} = \frac{100 - 70}{10} = 3.0 \qquad Z = \frac{100 - \overline{X}}{S_X} = \frac{100 - 70}{15} = 2.0$$

$$Z = \frac{100 - \overline{X}}{S_X} = \frac{100 - 60}{10} = 4.0 \qquad Z = \frac{100 - \overline{X}}{S_X} = \frac{100 - 60}{15} = 2.7$$

5. 대학의 평가지표

- 충분한 변별력의 문제일까?
- 동점자를 최소화했나?
- 표준편차를 적정하게 설정했나?
- 평균점수가 적당했나?
- 모집단위와 적성에 알맞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가?
- 국어/영어, 수학/과학, 사회/도덕, 예체능 교과군 반영의 현실화

카. 독서활동상황

기본관점 - 독서활동상황은 교과지도교사, 학급담임 누구든 입력한다. 자신의 전공과 모집단위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인문, 사회, 과학, 체육 · 예술 영역을 다양하게 읽어, 교양인의 자질을 완성하는 지표이다. 미국 SAT지도위원회의 추천도서는 모두 세계명작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대학추천도서를 고교에서 재추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재고할 일이다. 특히 고교추천도서만으로 독후감을 작성하도록 지도하는 경우 심한 문제점을 노출하게 된다. 독서는 자율적, 주체적 활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심Tip1.

학교 권장도서로만 책을 읽어 전교생의 독서기록이 동일한 경우가 아주 많다. 대학은 권장도서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기록으로 학생을 기록해 주는 학교에 대하여 분명한 확인을 한다. 독서는 개성과 취향과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당연히 자율적이고 개성적이며 주체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생명이다.

핵심Tip2.

독서지도에서 아주 유의할 것은 '학생의 이해 정도'를 기록하는 것이다. 읽지도 않고 표절한, 포털사이트에서 긁어서 작성한 글을 그대로 기록해 주는 일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당사자에게도 아주 불리한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 학생이 작성한 글을 그대로 옮겨 적는 일도 경계할 일이다. 학교평가에서 매우 불리한 평가를 받는다. 동일한 도서명, 저자, 평가를 긁어 학생에게 붙여주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학생이 매우 불리해진다.

① 중 · 고등학교의 개인별 · 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입력한다.

② 독서분야, 독서에 대한 흥미, 이해 수준 등을 종합 서술형으로 정리하여 교과지도 교사가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임교사도 입력할 수 있다.

▶해설

· 독서활동은 교과별로 해당교과관련 독서활동을 입력하되, 특정 교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영역(인문, 사회, 과학, 체육 · 예술)으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등의 증빙자료는 학생 개인이 보관하되, 상급학교에서 증빙자료 요구 시 제출한다.

· '독서활동상황'란에는 종합서술형으로 독서활동을 입력하되, 학생이 감명 깊게 읽은 주요도서명도 구체적으로 입력하여 학생의 독서활동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재요령

· 독서활동 내용은 학기를 구분하여 입력한다.

※'(1학기)', '(2학기)'는 교육정보시스템에서 학기별로 입력 시 자동으로 입력됨.

· 독서활동의 내용이 특정 교과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학급담임교사가 인문, 사회, 과학, 체육 · 예술 등 영역을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다.

· 학생의 독서활동 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서명과 저자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독서활동의 내용(독서분야, 독서에 대한 흥미, 이해수준, 독서 후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유의사항

· 독서활동상황은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함.

▣ 대학 및 사정관 평가 지표

1. 읽지 않은 책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서울대 지역균형전형 3권도서 제출하기에 8,500여 종이 제출되며 5,000여 종이 인터넷에서 표절 제출함)
2. 독서포트폴리오, 독서기록장, 독서노트 등의 기록은 개인이 보관하고 상급학교에서 요구 시 제출한다.
3. 독서경시대회, 독서퀴즈, 독서이벤트, 하루 책읽기, 독서마라톤 대회...등 행사가 다양한 편이다.
4. 대학에서 3 ~ 5권의 읽은 책 소개하기를 자기소개서에서 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출된 독후감은 1단계 통과 후 면접 및 토론 자료로 활용한다.
5. 독서의 동기와 과정, 책 속에 책 안내, 읽은 후의 감상과 비평 등이 평가 대상이다.
6. 독서는 진로관련, 적성과 비전 관련 서적을 주체적으로 읽어야 한다. ~ 권장도서, ~ 대학 필독서 등에 구애받을 일이 결코 아니다.
7. 동일 도서에 대한 동일 평가를 고교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지정도서, 권장도서라고 해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8. 고교생의 수준으로 읽기 어려운 내용을 과장하여 기록하는 경우 오히려 학생과 학교의 명예에 금이 간다. 내용을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도서를 선정하여 잘 이해하였다고 기록하는 수가 있다.
9. 면접 시 자신이 읽고 소화한 내용을 확인한다.
10. **동일 고교 생활기록부는 대학에서 검색하는 기능이 있다. 학생의 기록을 복사한 것, 타학생과 동일하게 작성된 것 등은 불이익이 따른다. 유의할 일이다.**

· 유의 -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등의 증빙자료는 학생 개인이 보관하되, 대학에서 증빙 자료 요구 시 제출하도록 한다. '독서활동 상황'란에는 종합서술형으로 독서활동을 기록하며, 학생이 감명 깊게 읽은 주요 도서명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학생의 독서활동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대입 전형에서 면접시험자료나 사정 자료로 반드시 활용한다. 형식적으로 기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독서 내용을 확인하고, 결과물을 정리하는 절차가 학교와 학생에게 꼭 필요하다.

▣ 독서기록은 인문, 사회, 과학, 체육 · 예술 분야의 분포가 진로 및 모집단위 관련성을 가지고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다양한 정보를 편식하지 않게 읽었는가도 평가 대상이다.

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본관점 - 생활기록부의 하이라이트이다. 3명의 담임이 1년간 관찰, 상담 등으로 예의 주시한 내용을 수시로 메모하고 기록한다. 인성과 리더십은 물론 자기주도성과 책임, 협동심 등의 내적 역량이 기술되는 핵심 파트이다. 또한 교우 관계성, 교사의 평가 등이 종합기록 될 수도 있고, 자기계발과 꿈과 이상에 대한 깊은 통찰의 기록도 가능하다.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과 관심과 활동이 구체적으로 종합 정리되어 추천서에 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성을 평가하는 7대 핵심 인성평어 즉,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 관리, 관계지향성, 규칙 준수 등의 용어를 ( )에 쓰고 그 사례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핵심Tip1.

생활기록부의 전내용을 요약 기록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 사유와 동기 과정을 부연할 수도 있다. 담임교사의 꾸준한 상담과 관찰, 그리고 대화로 학생의 인성과 지성은 물론 교우관계와 대내외적 역량의 변화를 기록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학교생활기록부의 핵심 평가란이 된다.

핵심Tip2.

고1, 2학년 담임의 기록만 대학입시 수시에 제공된다. 정시에는 모두 제공되지만 1,2학년 때의 기록이 중요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학년 담임의 기록이 2,3학년 기록과 유사할 필요가 없다. 담임의 개성과 관점에 따라 기록하면 된다.

핵심Tip3.

1학년 담임은 학생의 진학 로드맵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구상을 완료하여 기록하기 시작해야 한다. 학부모와의 상담과 심리검사, 적성검사, 학력평가와 내신발달과 추이를 충분히 감안하고 기록을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염두에 둘 일은 학생의 진로 희망과 모집단위에 대한 열정, 충성도, 즉 관련 활동에 대한 동기와 과정을 안내하고 기록하는 일이다. 종합의견을 기록할 때 이를 고려하고 생활기록부 10개 항목이 그 진로에 대한 준비와 과정으로 이어져 '수험생이 이 분야, 이 학과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구나 그리고 우리 대학, 우리 과에 오는 것이 타당하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야 한다. 물론 작위적이고, 조작된 표현이 드러나면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Root(진로 탐색 활동 및 관심, 진로 탐색활동의 빈도, 그로부터 선택 이유와 타당도, 해당 분야에 관한 열정)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2학년 담임과 교과에서는 Stem(진로체험, 전공탐색, 대학탐방, 독서 활동, 연구 활동, 인적성의 적합성, 진로성숙도 등)의 근간을 쌓아가는 때이다. 창의적체험활동이 직접 손에 닿는 활동이 될 것이고, 문이과로 나뉘면서 더욱더 줄기를 쌓아가는 기회가 많아진다. 여기서 어떠한 과정이 선택되었고, 준비와 참여의 태도는 어떠하다는 내용을 기록할 일이다. 잠재력이 노출되기 시작하고, 리더십과 협동과 배려의 다양성을 관찰 기록하여 줄기를 굵직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단, 특정 대학, 특정 학과를 목표로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학생은 꿈이 바뀔 수 있고, 성격과 성적 및 활동 관심도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학과, 특정대학보다는 유사학과군을 타킷 법주로 삼고 로드맵을 그려가다가 고2 후반을 지나면서 구체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3은 Fruit(결과물 · 각종 수상과 인증, 매스컴 보도, 연구 자료집, 각종 발표 등)의 일관성을 엮어주는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 곁가지는 쳐내고 대학과 모집단위가 결정된 후에 활동과 과정을 선택과 집중으로 풀어내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3년간의 기록이 이렇게 진로와 학업적합성에 대한 Roadmap-Tree로 형성된다면 좋을 것이다.

추천서에 준하게 작성하라는 지침처럼, 사정관의 관심과 초점은 '종합의견'이다. 가장 섬세하고 날카롭게 읽고 그 의견을 반영함을 알아야 한다.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②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해설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 조치사항이 시행된 후 즉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한다.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생활]-[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해당학생에 대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학교생활기록부 반영기록'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함.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 중 경미한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의 경우 현재 졸업 후 5년간 보존하는 것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개선하였다.

※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

·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받은 학생이 이후 긍정적인 변화 모습을 보일 경우, 변화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기재요령

· 종합의견은 학기를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으며, 학기별로 입력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에 '(1학기)', '(2학기)'와 같이 입력함.

·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제2항에 의거 영재교육 수료에 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예) ○○영재교육원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 120시간을 수료함.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교사가 학생을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한 행동특성, 진로적성검사, 인성검사 등 각종 심리검사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등을 바탕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잠재력, 인성, 인지적 특성, 자기주도적학습 능력, 창의성 등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 특히 학생의 인성 관련 내용은 핵심 인성 요소를 ( )안에 입력하고, 객관적인 근거 및 누가기록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 핵심 인성 요소 :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 관리, 관계지향성, 규칙 준수 등

※ 핵심 인성 요소는 기재요령에 제시된 것 이외에 교사가 발굴하여 작성할 수 있음.

예) (배려) 특수반 친구를 도와주고 스스럼없이 친구로 지내면서 학습활동을 도와주었으며, 학급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등 또래 상담자로 주 2회 활동함.

※'성실한 학생임.', '착한 학생임.' 등의 추상적인 표현만으로 입력하지 않음.

· 장점과 단점을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단점은 변화 가능성과 함께 입력할 수 있다.

유의사항

· 행동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학생생활]-[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 입력유의 사항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 장점과 단점을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단점은 변화 가능성과 함께 입력한다.

·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영재교육 수료에 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수상은 기록 불가능)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교사가 학생을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한 행동특성, 진로적성검사, 인성검사 등 각종 심리검사 결과나 학력평가, 특별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등을 바탕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잠재력, 인성, 인지적 특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창의성 등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 특히 학생의 인성 관련 내용은 핵심 인성 요소를 ( )안에 입력하고, 객관적인 근거 및 누가기록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 핵심 인성 요소 :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 관리, 관계지향성, 규칙 준수 등

(관계지향성) 학습이 부진한 학생, 특수학생, 투병 중인 학생 등 학교생활이 어렵거나 적응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잘 도와줌으로써 주변에 항상 친구가 많고 대인 관계가 원만함.

(갈등관리) 자신의 장래 희망 직업과 진로에 대한 부모님과의 의견차이로 갈등이 발생해 학습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였으나, 주변 친구들의 학급 또래중재 상담활동과 진로에 대한 부모님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자신의 진로를 확고히 하며 학습에 의욕을 보임.

※ 핵심 인성 요소는 기재요령에 제시된 것 이외에 교사가 발굴하여 작성할 수 있음.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학생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성실한 학생임.', '착한 학생임.' 등의 추상적인 표현만을 기록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한다.

· 문장은 명사형 어미로 끝내고 마침표를 찍어야 함 예) '~함.', '~임.' 등

▣ 대학 및 사정관 평가 지표

1. 학교생활기록부Ⅱ에만 기록되므로 학생이 내용을 검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다.

2. 즉 학생에게 내용 검토를 위해 복사하여 나누어 줄 때 '행동특성 및 발달상황'이 출력되지 않는 생활기록부Ⅰ을 복사해 주어야 한다.

3.'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은 학생에 대한 3인 교사의 3색 추천서이자 지도 평가서라고 볼 수 있다.

4.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란에 있을 것이다. 담임교사가 그나마 신심으로 최선의 기록을 하는 칸이다. 기록의 사실성, 공정성, 학교계획과의 일치성을 대학은 신뢰한다.

5.'책임감 있는', '예의바른', '성실한', '모범이 되는', '착한', '학급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하는', '묵묵히 맡은 일을 하는' 등의 상투적인 표현은 학생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수식어 앞에는 그 사례를 적시하고 이러한 수식어를 붙여야 한다.

6. 교과학습발달상황이 우수한 학생일지라도 3인 교사 중 하나라도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시 그 학생에 대한 신뢰성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유의 - 대부분 학생의 긍정적인 면만 서술하기 때문에 수험생의 단점이나 약점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사정관이 더 먼저 알고 있다. 그러므로 면접과 추천서 확인 및 토론과 발표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확인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검증하는 절차이기도 한 것이다.

인용 자료출처 : 훈령, 해설, 기재요령 등. 201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육부

3. 창의적체험활동

가. 학생이 쓰는 생활기록부- 에듀팟과 나이스의 연계

'창의적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www.edupot.go.kr)'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학생 스스로 기록하고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자기소개서는 물론, 학교의 행사와 발표, 특별활동과 체험, 봉사는 물론 자신의 연구활동 등을 모두 스캔하거나 첨부파일로 첨부하여 올릴 수 있다. 교사는 이 내용을 수정하고 인증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컴퓨터에 앉아 즉석에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체험활동을 기록하고, 행사, 독서, 봉사 등의 소감을 써 내려가기는 결코 쉽지 않다. 준비하고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문제는 에듀팟 서버와 교사의 나이스 서버가 따로 떨어져 있어 인증과 확인 검토에서 매우 불편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편이 2013년 7월 31일부로 해결되었다.

교사는 나이스 상에서 바로 에듀팟에 올라온 학생의 글을 볼 수 있고 참고하여 생활기록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 사진은 그것을 캡춰하여 보인 것이다.

업무포털
나이스 공지사항
나이스광장
문의 전화 안내
나이스 1600-2226
(정보화담당관)
대국민서비스
나이스 원격지원
업무행정서비스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에듀팟 로그인
에듀팟 홍보 동영상
홍보관
활용관
0079 에듀콜
1544-0079
1365
CareerNet
EDUNET
창의·인성 교육넷

fighting!
fighting!

창의인성교육넷
창의·인성교육
창의적체험활동
지속가능발전교육
가상체험관
커뮤니티
제7회 창의경영학교 한경

창의인성교육넷
창의·인성교육
창의적체험활동
지속가능발전교육
가상체험관
커뮤니티
새로운 가치 창출, 더불어 살 줄 아는
창의적 인재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자원지도(CRM)

나. 창의적체험활동상황

기본관점 - 이 활동은 내가 좋아서 하는 활동으로 자기찾기 활동이며 교과외활동의 핵심이다. 활동은 진정성에 의한 다양성과 자기주도성, 인성, 창의성, 협동성 그리고 리더십을 볼 수 있는 핵심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 활동을 지원하는 사이트가 창의적체험활동종합지원시스템(=에듀팟)이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외에도 방과후활동의 구체적 내용과 느낌을 에듀팟에 탑재하고 담당교사의 승인을 받으면 생활기록부기록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핵심Tip1.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네 가지는 학생이 택하고 가장 좋아서 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당연히 자율성, 지속성, 무상성의 원리로 활동할 것이다.

봉사활동은 특히 인성과 관련된 것으로 학년당 20시간 기준이지만, 입학사정관제를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100~150시간 이상의 평균 봉사시간이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핵심Tip2.

단, 도서벽지, 산간 오지의 학생일 경우 학교 프로파일에 학교의 지정학적 위치와 봉사활동 가능 유무에 대한 섬세한 기록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과 학교에 의한 구분을 하지만, 개인 활동의 다양한 봉사, 시간과 육체를 허신하는 봉사활동이 당연함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④ 제1항의 '진로활동' 특기사항에는 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의 변화와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상담 · 권고한 내용 등 진로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⑤ 제1항의 동아리활동 중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실적은 활동 인정기간 동안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 활동시간, 팀에서의 역할, 포지션, 대회출전경력 등을 입력하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⑥ 제1항의 동아리활동 중 청소년단체활동의 실적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단체활동과 학교의 승인을 받은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 구분하여 '동아리활동'란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기재요령

·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직업에 대한 안내자료를 미리 제공하고 진로희망은 구체적으로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기 또는 흥미'는 특정 사물의 명칭을 그대로 입력하거나 포괄적 개념의 용어로 입력하지 않고 구체적인 용어나 구체적 행동과 관련된 용어로 입력한다.

예) 컴퓨터조립(○), 컴퓨터(×), 야구(○), 운동(×), 모형자동차조립(○), 자동차(×), 없음(×)

· '진로희망'은 구체적인 직업의 명칭을 입력한다.

예) 컴퓨터프로그래머(○), 컴퓨터(×), 의상디자이너(○), 디자이너(×), 없음(×)

· 학급담임교사의 진로지도와 관련된 상담 및 권고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영역에 입력한다.

유의사항

· '특기 또는 흥미',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희망'은 충분한 상담 또는 사전 조사를 한 후 입력하되, 추후 상담 등을 통해 변경된 경우 당해 학년도에는 수정할 수 있음.

· 진로희망사항은 다음 학년도에 정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영역	세부활동 내용	
	자연환경보호활동	깨끗한 환경 만들기, 자연 보호, 식목 활동, 저탄소 생활 습관화, 공공시설물, 문화재 보호 등
	캠페인활동	공공질서, 교통안전, 학교 주변 정화, 환경 보전, 헌혈, 각종 편견극복 등
진로활동	자기이해활동	자기 이해 및 심성 계발, 자기 정체성 탐구, 가치관 확립 활동, 각종 진로 검사 등
	진로정보탐색활동	학업 정보 탐색, 입시 정보 탐색, 학교 정보 탐색, 학교 방문, 직업 정보 탐색, 자격 및 면허 제도 탐색, 직장 방문, 직업 훈련, 취업 등
	진로계획활동	학업 및 직업에 대한 진로 설계, 진로 지도 및 상담 활동 등
	진로체험활동	학업 및 직업 세계의 이해, 직업 체험 활동 등

영역	세부활동 내용	
자율활동	적응활동	입학, 진급, 전학, 기본생활습관 형성, 축하, 친목, 사제동행, 학습·건강·성격·교우 등의 상담활동 등
	자치활동	학급회, 학생회 협의활동, 모의 의회, 토론회, 자치법정 등
	행사활동	시업식, 입학식, 졸업식, 종업식, 전시회, 발표회, 학예회, 경연대회, 학생건강체력평가, 체육대회, 수련활동, 현장학습, 수학여행, 문화답사, 국토순례 등
	창의적특색활동	학생·학급·학년·학교·지역특색활동, 학교전통수립·계승활동 등
동아리 활동	학술활동	외국어회화, 과학탐구, 사회조사, 컴퓨터, 인터넷, 신문활용, 발명, 다문화탐구 등
	문화예술활동	문예, 창작, 회화, 조각, 서예, 전통예술, 현대예술, 성악, 기악, 뮤지컬, 오페라, 연극, 영화, 방송 등
	스포츠활동	구기, 육상, 수영, 체조, 배드민턴, 인라인스케이트, 하이킹, 야영, 민속놀이, 씨름, 태권도, 택견, 무술 등
	실습노작활동	요리, 수예, 꽃꽂이, 조경, 사육, 재배, 설계, 목공, 로봇제작 등
	청소년단체활동	스카우트연맹, 걸스카우트연맹, 청소년연맹, 청소년적십자,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등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등)
	또래조력활동	또래 상담, 또래 중재(조정, 중조)
봉사활동	교내봉사활동	학습부진 친구, 장애인, 병약자, 다문화가정 학생 돕기 등
	지역사회봉사활동	복지시설, 공공시설, 병원, 농·어촌 등에서의 일손 돕기, 불우이웃돕기, 고아원, 양로원, 군부대에서의 위문 활동, 재해 구호, 국제 협력과 난민 구호 등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이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긍정적인 행동특성의 변화 내용이 있는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해 줌으로써 낙인효과를 예방한다.

영역	시수	특기사항 내용
자율활동	정규교육과정 시수 (행사활동은 별도 행사시수 포함)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포함)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 · 주관하여 실시한 활동
동아리활동	정규교육과정 시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포함)	정규교육과정 동아리활동, 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 단체활동,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학교교육계획과 개인계획 시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사항이 있는 학생
진로활동	정규교육과정 시수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 주관하여 실시한 진로지도와 관련된 사항

※ 특기사항 입력 가능 예시

- 자율활동 : 학생자치회 임원수련회, 과학선도학교 프로그램 활동, 수학체험전 등
- 동아리활동 : ○○천문대 탐방 등
- 봉사활동 :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포함)과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실적 관련 특기사항
- 진로활동 : ○○교육청 진로캠프,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진로캠프, 직업체험 등

※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 체험활동 참여 : 교육부, 시 · 도교육청 및 직속(산하)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주최 · 주관한 체험활동은 입력 가능

※ 정규교육과정에 의해 해외에서 실시한 자율활동은 시수만 인정하며, 그 이외의 해외 창의적체험활동은 시수와 특기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음.

※ 대학이 주최 · 주관하는 진로체험활동의 경우 학교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한 활동은 기재 가능하나, 학생이 개별적 또는 그룹단위로 참여한 활동은 입력하지 않음.

· 전출 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는 전출일까지의 기록(모든 영역의 누가 기록 자료,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중 자율활동은 시간수, 동아리활동은 부서명과 시간수, 봉사활동은

누가기록, 진로활동은 시간수)을 입력하여 전송하고 관련 증빙자료(봉사활동 확인서 포함)는 원적교에서 보관한다.

· 학생의 학업 중단(유예, 면제, 휴학, 자퇴) 후 복귀(재취학, 복학, 재 · 편입학)로 학년도 간 훈령 적용이 다른 경우, 이전 훈령에 의해 작성된 특별활동상황 및 창의적 재량활동자료는 훈령 제282호의 창의적 체험활동 서식에 맞추어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자치 · 적응 · 행사활동, 창의적 재량활동은 자율활동으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으로, 계발활동은 동아리활동으로 자동으로 반영된다.

- 다만, 이전 훈령에 있었던 교외체험활동상황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학생의 학업 중단 후 학기를 달리하여 복귀하는 경우에는 업무담당교사(학급담임교사 등)가 창의적 체험활동 서식에 맞추어 해당란에 영역별 내용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자율활동]

·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과정에서 드러나는 행동 특성, 참여도, 협력도, 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고 상담기록 등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 학교교육과정 또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한 학생 상담활동, 자치법정 등은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 자치활동의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활동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말, 2학년은 3. 1부터 학년말, 3학년은 3. 1부터 졸업일까지를 기준(학기단위로 임명하는 경우는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 기준)으로 입력한다.

※ 학교 사정에 따라 임원의 활동기간이 학기 또는 학년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등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명기간을 활동기간으로 입력함.

※ 학생자치회 임원 활동기간을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와 같이 학기단위로 임명하는 경우 해당학년의 자율활동 영역에 나누어 임원 활동기간을 입력함.

· 자치활동 관련 내용을 특기사항에 입력할 때에는 구체적인 임원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전교', '학년', '학급' 등을 입력하고, 재임기간을 ( )안에 병기한다.

예) 1학기 전교학생회 부회장(2013.03.01-2013.08.22)

· 자율활동 중 행사활동 시간은 시업식, 입학식, 졸업식, 종업식, 전시회, 발표회, 학예회, 경연대회, 학생건강체력평가, 체육대회, 수련활동,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학교에서 주최 · 주관하여 시행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 행사활동의 시간은 교육과정상의 계획된 시간과 별도 시수로 확보된 행사활동의 실시 시간을 포함하여 입력함.

[동아리활동]

· 동아리활동 영역은 자기 평가, 학생상호 평가, 교사 관찰, 포트폴리오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특별한 활동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 학교교육과정 편성 · 운영에 따라 학교 · 학년 단위로 복수 동아리활동 부서를 운영할 수 있음.

·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생의 자율동아리활동과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16개 청소년단체활동으로서 학교장이 사전에 승인하여 참가한 활동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동아리활동 '특기사항'란에 활동 내용과 활동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2013.03 현재)

연번	청소년단체	소관부처 (소관법령)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1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RCY)	보건복지부 적십자사조직법 제2조	02-3705-3705 (02-3705-3777)	http://rcy.redcross.or.kr
2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여성가족부 민법제32조	043-221-2918 (043-221-2919)	http://www.chunghyo.or.kr
3	세계도덕재무장(MRA/IC)한국본부	교육부 민법제32조	02-2662-7360 (02-2662-7361)	http://www.mrakorea.or.kr
4	청소년교화연합회	여성가족부 민법제32조	02-735-8165 (02-722-6623)	http://www.yeba.or.kr
5	한국4-H본부	농촌진흥청 한국4에이치 활동지원법	02-428-0451~3 (02-428-0455)	http://www.korea4-h.or.kr
6	한국YMCA전국연맹	여성가족부 민법제32조	02-754-7891~5 (02-774-8889)	http://www.ymcakorea.org/
7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여성가족부 스카우트활동 육성법	02-733-6801~8 (02-738-3013)	http://www.girlscout.or.kr
8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여성가족부 민법제32조	02-738-1501(내선2) (02-732-5843)	http://www.rotarykorea.org
9	한국스카우트연맹	여성가족부 스카우트활동 육성법	02-6335-2000 (02-6335-2020)	http://www.scout.or.kr
10	한국우주소년단	교육부 민법제32조	02-739-6369 (02-722-6455)	http://www.yak.or.kr
11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특허청 민법제32조	02-569-7231 (02-569-7228)	http://www.kyic.org
12	한국항공소년단	미래창조과학부 민법제32조	02-953-7543~4 (02-953-7545)	http://www.yfk.or.kr
13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법	02-886-8522~4 (02-886-8521)	http://www.sekh.or.kr
14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여성가족부 민법제32조	02-723-6165~6 (02-723-6167)	http://www.paramita.or.kr
15	한국청소년연맹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연맹 육성법	02-841-9291 (02-845-8138)	http://www.koya.or.kr
16	한국청소년봉사단연맹	여성가족부 민법제32조	02-2663-4163 (02-2663-4177)	http://www.civo.net

■ 대학 및 사정관 평가 지표

1. 대학별로 입학사정관의 설문과 학교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학교 활동을 파악하고 있다.
   - 지도교사의 성명, 이멜, 휴대폰, 연간지도계획까지도 확인한다.
2. 학교 교육계획서, 스쿨프로파일의 핵심 기재사항이다.
3. 학교의 인성과 진로를 위한 마인드가 드러나는 핵심사항이다.
4.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3년간 최저 20시간을 봉사활동을 해야 점수화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도서벽지와 오지산간의 경우는 학교프로파일에 학교의 지정학적 상황을 잘 설명해야 한다.
5. 인성과 리더십,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활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인성적 내용의 봉사 활동은 필수적이다.
6. 동아리나 클럽 대표는 리더십 전형의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학교별 임명 여부와 학생의 구체적인 활동 결과와 학생들의 호응도, 지속적이고 솔선한 유의미적 활동인지를 평가한다.
7. 학생회장, 동아리대표, 신문 방송반원 등의 리더십 전형 해당 학생들의 평가는 자체의 자격보다 이들이 어떤 과정으로 리더가 되었고, 재임기간 중 활동한 결과물, 활동과정 등이 평가의 요소가 된다.
8. 창의적 체험활동이 교육과정으로 들어왔지만, 학교 계획에 의한 시간표상의 활동 외에 에듀팟 활동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2013년 7월부터 연동되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9. 경희대, 단국대, 숙명여대 등에서는 에듀팟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주의 -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도 리더십의 개념은 변화하고 있다. 학급회장단이 구성하는 학생회, 직선제가 아닌 별도의 운영위원회, 동아리회장단, 계발활동대표들, 자율지킴이, 멘토봉사단 등등 고교의 리더활동은 다양하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대표로서의 타이틀이 아니라 활동의 다양성과 동기와 과정, 그리고 결과물이라 할 것이다.
10. 봉사 활동의 진정성이 문제다. 즉 자율성, 무상성, 지속성, 공익성과 즐기며 시행하고 나의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쳐왔는가를 정리하고 기록해야 한다.

■ 입력유의 사항

· 특기사항은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한 많은 학생에 대하여 기록한다.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충실히 입력한다.

· 봉사활동 실적 입력 시 시작일과 종료일이 같을 경우는 시작일만 입력한다.
진급처리 된 후 이전학년도의 봉사활동 기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이므로 해당 학년의 봉사활동 실적란에 입력을 하여야 한다.(교무업무시스템에서 진급 처리된 후에도 학교생활기록부정정을 통해서 전학년도 실적을 추가 입력함).

· 특기사항에 정량적인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정량적으로 기록한다. 예) 월 1회, 6회, 헌혈 2회 등

· 자치활동 관련내용을 특기 사항에 입력 시 구체적인 임원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전교''학년' '학급'등을 기재하고, 재임기간을 병기한다.
예) 1학기 전교학생회 부회장(2005.03.01-2005.08.31)

· 봉사활동 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활동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특별활동상황'의 '봉사활동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 봉사활동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에는 ( )안에 '학교' '개인'을 기재한다.
예) (학교) ○○학교, (개인)한국스카우트연맹, (개인)○○

Ⅱ. 2015대입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의 소개

1.가천대학교

1. 2014학년도 입시 결과

가. 가천프런티어의 평균 내신은 3점 중반대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내신성적으로 당락이 좌우된 건 아니다. 실제로 합격생들의 성적 분포를 보면 내신성적이 높다고 하여 합격을 하고 내신성적이 낮다고 하여 불합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가천대의 입학사정관 전형은 평가자료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만 사용하고 있다. 가천대는 포트폴리오와 교사추천서를 받고 있지 않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는, 합격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다 상세하게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면접평가의 경우는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진학의지를 침착하게 잘 설명한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아무래도 입학사정관 전형이 사전에 진로를 탐색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사전 준비가 면접에서도 잘 발휘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2. 2014학년도 전형을 통해 본 실수들

가. 우선 수시모집요강에서 교외수상실적이나 공인어학성적은 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제출을 금한다고 명시하였는데, 의외로 이러한 부분을 제출한 학생들이 있었다.

나. 또한 자기소개서에 가천대를 지원한 학생이 타대학명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자기소개서 양식이 대교협 공통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한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자신이 사전에 준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인데 학교명을 잘못기입하면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지원학과 명도 정확한 학과명이 아닌 비슷한 학과명으로 기입한 학생들이 더러 있다.
가령 한국어문학과를 국문과라고 기입한다든지, 이러한 경우는 학교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다. 다소 성의가 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3. 2015 가천대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요소
학생부위주 (종합)	가천의예	15명	1단계 : 서류 100% (4배수) 2단계 : 면접 50% + 1단계성적 50% ※가천의예 [최저학력기준 적용]
	가천프런티어	489명	
	사회기여자	98명	
	취업자	47명	
	농어촌	59명	
	교육기회균형	40명	

선발인원 대폭확대 되어 591명→748명으로 늘었다. 가천미래인재 전형 폐지되고 가천프런티어 전형으로 통합됐다.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가천의예전형 제외)되었고, 면접 시 기초학력을 파악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면접문제도 폐지되었다.

4. 팁 :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대비

면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진정성 여부입니다. 최근 들어 자기소개서 대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가천대 면접의 주요 기능중의 하나는 자기소개서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것이다. 만약 자기소개서를 타인의 힘을 빌려서 작성했을 경우, 보통 면접에서 많은 허점을 보인다. 그러므로 이 자리를 빌려서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자신의 힘으로 작성하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은 자기소개서와 학생부의 내용을 잘 숙지하라고 권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자기소개서에는 자신의 활동 내용을 세세히 잘 기술하여 면접까지 올라갔는데, 막상 면접 시 관련된 활동에 대해 면접관이 자기소개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파고들면 대답을 제대로 못하여 면접 점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 들어가면 면접 때 오히려 상당히 답변하기에 힘들어 질 수 있다.

(자료제공 : 가천대 오현석 입학사정관)

2. 가톨릭대학교

1.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결과

· 고교 수 증가 및 지원자 수 증가했다. 잠재능력우수자전형의 경우 매년 고교 수와 지원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고교와 학생들의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다.

·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들이 지원했다. 교과 성적이나 비교과 활동 중 한 영역에서만 뛰어난 지원자의 비율이 낮아졌으며, 본인의 목표를 가지고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 모두에 충실한 지원자의 비율이 증가.

· 입학사정관전형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했다. 매년 가톨릭대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전형별 사교육 정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전형은 적성과 논술 등의 일반 전형에 비해 사교육의 영향력을 적게 받는다고 본교 재학생의 설문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이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인성평가를 강화했다. 최근 인성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가톨릭대학교 역시 본교의 인재상을 반영한 인성인재 선발을 위해 노력하였다.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에서 학생의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특히 스테파노전형 가톨릭고교장추천유형에서는 체험형 인성면접을 처음 도입하여 인성인재 선발에 앞장섰다.

2. 2014학년도 전형을 통해 본 실수들

· 자기소개서 표절 및 진실성 부족

- 전년도에 비해서 유사도 심의 건수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타인의 자기소개서를 표절하는 사례가 있었 고, 엄정한 심의를 통해 불합격 및 감점 조치를 취하였다.
- 자기소개서는 본인의 진실된 노력의 과정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과정 없이 결과만 나열하거나 모든 활동에서 본인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처럼 본인의 노력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 본인의 지원 전공에 대한 이해 부족

- 종종 본인의 지원 전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학업계획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학생들이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지원 전공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추어야 하며, 자기소개서 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3. 2015학년도 가톨릭대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요소 및 방법
수시 학생부위주(종합)	잠재능력우수자	165	1단계 : 종합평가 100% (3배수 선발) (학생부 교과 · 비교과 + 자기소개서) 2단계 : 면접 20% + 1단계 성적 80%
	스테파노	72	
	교육기회균등 I	22	
	학교장추천(의예과)	19	

구분	평가 방법	평가 내용
1단계	전임 및 위촉사정관 2인이 지원자 서류를 종합평가	자기주도성,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을 종합평가(정성평가)
2단계	평가위원 3인이 개별면접	전공소양, 인성 및 가치관 등의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가(정성평가)

〈 학생부 종합전형: 잠재능력우수자 서류평가 〉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적 자세
인성	공동체 의식
전공적합성 전공적합성	지원전공 관련 활동
	대학수업 이수 능력 : 교과 성적 및 추이
발전가능성	성장잠재력 및 발전가능성

(각 평가 항목별로 '어떤 사고를 갖고, 어떻게 행동하였으며,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를 고려하는데, 이때 지원자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4. 팁 :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대비

· 문제풀이식 면접에서 심층면접으로 변화

2015학년도부터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면접 방식은 단순화 된다. 별도의 토론 문항 혹은 문제지가 주어지는 방식이 아닌, 전공교수와 입학사정관이 지원자의 전공소양과 역량, 인성 및 가치관, 서류 내용의 진실성과 가치를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본인의 노력과 변화의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줘라.

본인이 지원 학과를 위해 어떤 동기와 열정을 갖고 있는지, 어떤 노력과 변화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다.

(자료제공 : 가톨릭대학교 이소연 입학사정관)

3. 건국대학교

1.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결과

· 2014학년도 건국대학교는 입학사정관전형으로 705명(선발인원의 약22%)을 선발하였음. 합격생이 서울경기에 국한되어 있다가 지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이는 건국대학교의 인지도 상승이라 생각된다.

·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2012년부터 신입생 다양화 프로젝트를 진행함. 신입생 다양화 프로젝트는 정보취약지역으로 지원자와 합격자를 배출하지 않은 도서벽지 소재 고교에 가서 입학사정관제 취지를 설명하고 입학전형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입학사정관이 방문한 고교에서 2013학년도에는 지원자만 있었는데 2014학년도에는 지원자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합격자도 배출했다.

2. 2014학년도 전형을 통해 본 실수들

· 지원 전공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지 모르는 경우, 정말 이 지원자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가에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 지원 전공에의 관심과 노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지원자가 왜 이 전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가 나타 나지 않는데, 학교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했다면 자료에는 그것이 지원 전공관련해서 초점화되면 좋았을 것이다.

· 자신의 강점을 잘 나타내면 좋을 것이다. 학생부에 기록된 자신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자료로 자기소개서가 작성되었으면 한다.

3. 2015학년도 건국대 학생부 종합전형

- 선발인원과 모집단위 확대와 전형방법의 간소화
- 선발인원: 705명–〉853명 (KU자기추천전형은 385명–〉 575명)
- 모집단위 확대: 영어교육과, 일어교육과, 체육교육과, 국제학부에서도 선발예정
- 전형방법 :
  1단계(3배수 선발) 서류100%
  2단계 면접100% 예정

4. 팁 :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대비

〈 건국대 KU자기추천전형 〉

· 서류 - 학교생활기록부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임. 자기소개서는 공통양식 활용할 예정임. 자기주도활동보고서도 간소화할 예정임.

· 면접 - 기존의 1박2일 면접은 사범대 선발대상자에 한해서 진행될 예정임.

· KU자기추천전형은 개별면접과 발표면접으로 진행될 예정임. 개별면접은 제출서류에 기반하여 서류의 진위여부 파악을 위한 면접이고, 발표면접은 주어진 자료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면접임. · 건국대의 대표적인 1박2일 면접이 올해부터는 사범대 선발대상자에 한해서 진행되는 점

(자료제공 : 건국대 입학전형 김경숙 입학전형 전문교수)

4. 경인교육대학교

1.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결과

경인교육대학교의 대표적인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교직적성잠재능력우수자 전형을 들 수 있다.

이 전형으로 뽑힌 학생들은 단순히 내신성적이나 수능성적만이 아닌 교직에 대한 다양한 활동 및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이다. 이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는 교사로서의 꿈을 담고 있는 하나의 스토리인데, 자신이 교사가 되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는 활동이나 계획 등 고교생활 3년간의 모든 활동을 토대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심층면접과 발표, 집단면접 등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또한 인정받은 학생들이 선발됐다고 볼 수 있다.

2. 2014학년도 전형을 통해 본 실수들

경인교육대학교에 입학사정관제도가 도입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학생들이 입학사정관전형을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자기소개서와 심층면접을 보기위해 사교육기관에서 비싼 돈을 들여 컨설팅 받는 등 폐단도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기관에서의 컨설팅의 경우 일률적인 대답과 태도 등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 정형화되기 쉽다. 다양한 경험과 잠재력을 지닌 예비교사의 선발이 목표인 대학에서 단순히 짧은 시간 사교육에 의존해온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을 지양하려 하고 있다.

3. 2015학년도 경인교육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 교직적성 및 잠재력 지닌 인재 발굴하기 위한 전형
→ 교내활동 충실한 인재 선발 (교외활동 지양)
· 선발방식: 1단계 - 서류평가 100%
2단계 - 1단계성적 50% + 심층면접 50%
· 최저학력기준: 4개 영역 등급 합 10이내
· 고교별 추천인원 : 학교당 추천인원 2~6명 제한(2014학년도) → 모든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 받아 지원 가능
·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4. 팁 :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

교직적성잠재능력우수자전형의 경우 대표적인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부의 교과 성적만을 반영하는 타 전형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학생의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추이, 특별히 잘하는 과목과 부족한 과목 등 전 과목, 전 학년의 학교생활을 고루반영하고 있다. 또한 지원자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던 활동이나 경험, 교직으로서의 사명감이나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었던 봉사, 진로, 자율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정성평가 하게 된다.

(자료제공 : 경인교대 연창모 책임입학사정관)

5. 경희대학교

1.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결과

· 교과 성적이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자 내신 평균 2.2등급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 비교과: 네오르네상스, 학교생활충실자 등 전형간 차이, 학과간의 활동의 수준 차이가 줄어들었으며 활동 수가 많아졌을 뿐 아니라 내용도 충실해졌다. "준비된 학생"의 지원이 많아졌다고 본다.

2. 2014학년도 전형을 통해 본 실수들

· 활동은 많아졌는데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다. 모든 활동과 독서까지 동기와 배경이 중요하다.

· 자기소개서 내용과 지원학과와 대학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타 학교와 타 전공 작성한 경우를 사용하는 일이 있는데 주의할 일이다.

· 개인 활동자료(포트폴리오)도 동기와 느낀점 등이 과정 설명 없이 실적 위주의 증빙자료만 첨부한 경우도 크게 실수하는 것이다.

3. 2015학년도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2014학년도		2015학년도		변화
네오르네상스전형	580명	네오르네상스전형	900명	▲320명
학교생활충실자전형	400명	학교생활충실자전형	320명	▼80명
고교교육과정연계전형	50명	지역균형전형	210명	▲160명
사회공헌역경극복자전형	100명	고른기회I전형 고른기회II전형	150명 70명	▲120명
창의적체험활동전형	40명	폐지		▼40명
글로벌과학인재전형	210명	폐지		▼210명
-	-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120명	▲120명

-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 대폭 확대되었다. 전년도 1,529명(28.6%)에서 2015학년도 2,062명(37.5%).
- 모든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이 선발하는데, 네오르네상스전형은 의예18명, 한의13명, 치의11명을 선발.
- 개인 활동자료(포트폴리오)를 받지 않고 교사추천서도 선택 서류로 간소화하고 고른기회전형을 강화.

▶ **제출서류 간소화**
- 개인 활동자료(폐지예정)
- 교사추천서(선택서류)

▶ **전형별 지원자격 변경**
- 네오르네상스전형 : 해외고교출신자 지원 가능, 졸업연도 제한 폐지
- 고른기회I :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층, 농어촌학생(정원 내 선발)
- 고른기회II : 군인, 다자녀(4자녀), 다문화, 아동복지시설출신자, 북한이탈주민, 조손가정, 장애인부모자녀, 의사상자, 소방공무원 추가

▶ **지역균형전형, 학교생활충실자전형 전형방법 변경(다단계=> 일괄합산)**
- 학생부 교과성적 70% + 학생부 등 서류 종합평가 30%

▶ **학업적성면접 폐지, 인성면접만 유지**

4. 팁 :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

① 학생부, 자기소개서(대교협 공통양식), 교사추천서(대교협 공통양식)가 필요하다.

② 학생이 준비할 서류는 많지 않지만 자기소개서는 미리 작성하고 추천서를 작성해주실 선생님을 정하고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는 만큼 좋은 추천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원학과 관련 동기와 의미가 학생부에 연계적으로 잘 적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자료제공 : 경희대 임진택 책임입학사정관)

6. 국민대학교

1.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결과

·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에서는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들의 지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만큼 고교에서의 다양한 준비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 2014학년도에는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였다. 지원자의 잠재가능성을 학교생활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의 지원이 가능했다.

· 학생부 내신평균 등급이 다소 상향된 점도 특징이다. 국민프런티어 전형의 경우 최종합격자의 경우 인문계는 2~2.5등급, 자연계는 2.5~3등급이었다.

· 국민프런티어의 경우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40%, 면접 60%(교과적성 30% + 입학사정관면접 30%)이었는데 면접의 영향력이 크게 있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2. 2014학년도 전형을 통해 본 실수들

· 단계별 전형, 일단 면접대상자 안에 드는 게 중요하다. 평가자들은 제출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읽어서 지원자를 평가하므로 제출서류의 일관성이 필요하며, 학교생활기록부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인데 올해 경영학부 경영학전공에 지원한 학생이 학생부의 9번 항목인 독서활동상황에 1학년 때는 공란이고 2학년 때는 5권을 책을 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소개서의 지원 분야 진로계획을 위해 준비 해온 노력으로 1학년부터 경영학과 관련된 책을 즐겨 읽었다고 기술했다.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 자기소개서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 내용과 연결고리가 있다면 진정성을 평가받을 수 있다.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궁극적 꿈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3. 2015학년도 국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명	모집인원(명)	전형요소 및 방법	최저학력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90 인문계:48 자연계:42	· 1단계 : 학생부교과 30% + 서류평가 70%(3배수) · 2단계 : 1단계 성적 50% + 면접 50%	없음
농어촌학생	104 인문계:55 자연계:47 금속공예학과: 1 도자공예학과: 1	· 1단계 : 학생부교과 30% + 서류평가 70%(3배수) · 2단계 : 1단계 성적 50% + 면접 50%	
기회균형	59 인문계:32 자연계:27	· 1단계 : 학생부교과 30% + 서류평가 70%(3배수) · 2단계 : 1단계 성적 50% + 면접 50%	
특성화고졸재직자	164 법무학과: 48 기업경영학부: 116	서류평가 40% +면접 60%	

국민프론티어전형

· 전형방법: · 1단계 : 학생부교과 30% + 서류평가 70%(3배수)
· 2단계 : 1단계 성적 50% + 면접 50%
· 모집인원: 403명- 인문계:213/ 자연계:190
· 지원자격: - 2013년 2월 이후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3학년 1학기까지 3개 학기 이상 본교 지정 교과목 석차 성적 있는 자
· 참고사항: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

입학사정관전형에 비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의 비중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는 30% 반영되고 제출된 서류평가가 70%이므로 비교과 비중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성적 평가에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통한 성장이 더욱 중요다. 실패해도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을 높게 평가한다. 전공 관련 교내활동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팁 : 서류 및 면접

· 증빙서류 제출 없이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준비한다. 자기소개서 내용 중 의미 있는 교내활동으로 언급한 것 있었다면 지원자가 한 활동, 과정 등이 학생부, 교사추천서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열심히 한 활동 통해 잠재가능성을 충분히 어필될 수 있이도록 솔직하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 평가의 기본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근거한 사실이기 때문에 학생부는 가장 중요한 평가영역이다. 자기소개서에 공인어학성적이나 외부스펙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금물이다. 성실한 학교생활 안에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 성장되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 교사추천서는 반드시 고3담임이 아니어도 무방하고 지원자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려, 선생님이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 기존의 교과적성 면접은 없고, 입학사정관 2~3명이 제출한 서류한 연계한 개별 심층면접으로 진행되며 수험생의 전공적합성, 인성 등 평가영역의 요소를 총체적으로 평가한다. 모의면접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은 실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자료제공 : 국민대 김경화 입학사정관)

7. 단국대학교

1.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결과

· 입학사정관제 운영 초기에는 봉사활동이나 비교과 활동만 열심히 한 학생들이 입학사정관제로 많이 지원했는데, 이제는 비교과활동뿐만 아니라 내신성적 관리도 충실히 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다. 합격자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내신등급 평균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죽전캠퍼스의 경우 지원자의 내신등급 평균이 3등급대 후반이며 최초합격자 내신등급 평균은 2등급대 후반이다.

· 서류평가에서는 목표의식이 강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전공관련 비교과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이 1단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 면접평가의 경우는 주어진 과제를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발표한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

2. 2014학년도 전형을 통해 본 실수들

· 자기소개서는 학생부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그 신뢰도가 높은데, 학생부에는 없는 내용을 작성함으로써 자소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보인다.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지원전공과 관련해 자신의 장점을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는 활동을 선별해 지원자의 열정과 잠재력을 평가받을 수 있게 작성해야 하는데 활동실적을 나열하는데 그치는 경우도 있다.

· 면접 시 너무 긴장한 나머지 면접관의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중언부언하는 경우가 많았다.

3. 2015학년도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정원내	DKU인재(479명), 사회적배려대상자(82명), 국가보훈대상자(66명), 취업자(야) (13명), 창업인재(죽전 10명)
정원외	농어촌학생(131명), 특성화고교졸업자 (57명), 기회균형선발(73명), 특성화고졸재직자(야) (268명)

단국대 DKU인재 전형

· 전형방법: 서류 100%
  ※ 학생부, 자기소개서 - 정성적 종합평가
  ※ 에듀팟 포트폴리오 받지 않음
· 특징 : 면접 미실시
  ※ 단, 서류의 확인, 검증 필요하면 출신고교 방문면접이나 유 · 무선 전화통화로 실사 시행
· 지원자격: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한정
  (재수생, 검정고시출신자, 외국고 출신자 지원불가)
·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일단은 학교생활에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업시간에 집중해서 수업을 듣는다면 학생부 교과영역인 내신관리는 자동으로 된다. 비교과 영역에 있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따로 준비할 필요없이 교내에서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잘 활용하면 될 것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교과이수단위로 편성되어 있어 모든 학생이 참여하고 학생부에도 기록이 되므로 형식적인 참여보다는 관심분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는 완성될 것이다.

4. 팁 : 서류 및 면접

· 자기소개서는 대교협 공통양식의 자기소개서를 활용하고 있으며 추가 문항은 받지 않는다.

· 자기소개서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진솔하게,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실적의 나열보다 기울인 노력 중심으로 내면의 성숙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다. 성장과정, 학습경험, 교내외 활동, 지원동기, 진로계획, 장래희망이 긴밀히 연결된 하나의 전체로 일관성있고 유기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항목 간 반대되는 내용이 없도록 기술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또한 대교협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사도검색을 실시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친구에게 보여주어 친구가 표절했다하더라도 당사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에듀팟 포트폴리오 시스템에 학생의 관심분야와 열정, 배운 점과 느낀 점을 기록하는 습관이 되어있다면
에듀팟 포트폴리오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료가 되어 자기소개서 작성 시 많은 도움이 된다.
에듀팟에 작성해 두었던 여러 활동 중에서 지원전공분야와 관련된 활동만을 추려서 자신의 열정과 지원분야를 위한 노력과정을 보여주면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다.

(자료제공 : 단국대 최나영 입학사정관)

8. 동국대학교

1.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결과

· 합격자 사정 결과 동국대학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고교연계 전공체험 프로그램(특강 및 모의 면접) 등에 적극 참여한 지방권역의 재학생 합격비율이 높게 도출되었다.

· 2014학년도 전형에 있어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가 되어 입시가 실시되었으며 이에 모든 제출서류(자소서, 독후감, 포트폴리오 등)에 대한 표절검색 및 제출서류 사전 필터링 등의 평가 절차가 실시되었다.

2. 2014학년도 전형을 통해 본 실수들

· 모집요강에 외부 수상실적(공인어학성적, 교외 기록 등) 미접수로 명시하였으나, 이 지침을 어기고 서류 (자소서, 포트폴리오 등)로 제출한 학생의 경우가 다소 있다.

· 이에 대해, 일정 영역의 평가에 있어 부정적 포인트를 적용한다.

3. 2015학년도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 특징 : 교내활동 통해 전공분야의 뛰어난 자질, 잠재력 지닌 창의적 인재 선발
· 선발방식: 1단계(3배수) - 학생부 종합평가 100%
2단계 - 1단계성적 60%+ 면접 40%
· 면접(전공수학능력평가) 비중 60% → 40%로 축소
서류(특히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 대한 평가비중 강화
·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학교생활우수인재전형 (학생부 교과)

· 특징 : 탄탄한 내신 바탕으로 성실히 교내활동 수행한 학생 선발
· 선발방식: 1단계(3배수) - 학생부 교과 100%
2단계 - 1단계성적 60%+ 학생부 종합평가 20% + 면접 20%
·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입학사정관제의 대표적 전형인Do Dream의 경우 1단계 서류평가 100%에서 수험생의 내신을 단순히 정량적으로 산출적용하지 않음. 15학년도 역시 수험생의 내신관련 부분은 전공관련 적합성・교과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정도로 판단한다. 특히, 비교과 부분은 지원학과 관련된 교내활동 중심의 노력과 고교-대학 연계 활동 참여 정도를 중점 평가한다. 학교생활우수인재 전형의 경우, 탄탄한 내신을 바탕으로 교내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한 학생을 선발한다. 학생부 독서활동상황 기재에 있어서,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중요한 포인트는 지원학과 전공관련 분야 또는 큰 범주의 계열(과학)의 서적들을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독서하였으며, 전공관련 수험생의 지식과 지혜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하다. 이 부분은 면접 시 필수 체크 사항이다.

4. 팁 : 서류 및 면접

- 실제 면접에 있어, 서류평가를 실시한 입학사정관을 해당 면접관으로 1순위 배정하여 실시한다. 그러므로 학생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을 준비하며,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다양한 비교과・교과 활동에 대해서 꼼꼼히 읽어보며, 예상 면접 문제를 작성해보는 것도 긍정적이다.
-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의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전공분야 성장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에서의 질의응답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 학생부 위주(교과,종합) 전형의 제출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일부학과)인데, 학생부 종합 평가항목은 지원동기, 진로계획, 학교생활 충실도,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별 평가이다.
- 자기소개서의 경우 대교협 공통문항을 사용하며, 추가 문항(1~2개)를 구성하여, 학생의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
- 인성평가는 서류평가・면접평가 모든 영역에서 평가 반영된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교우활동, 동아리 활동, 체육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면접에 있어서는 인성・사회성 영역이 독립 평가 항목에 배점되어 있으며, 위에 언급한 활동(교우, 동아리, 체육 등), 타인과의 의사소통능력(교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자료제공 : 동국대 김태훈 입학사정관)

9. 동덕여자대학교

1.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결과

· 입학사정관전형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 내신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골고루 분포한다. 학과별로 편차는 있지만, 대략 2, 3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 합격생들은 충실한 학교생활 바탕 위에 지원한 학과나 전공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관련된 활동을 찾아서 하는 등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과정들이 서류와 면접평가를 통해 일관성 있게 표현되었다.

2. 2014학년도 전형을 통해 본 실수들

· 간혹 학생부와 학생부 이외 서류와의 일치성(관계성)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간혹 발견된다.

· 면접에서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눈물을 보이거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면접경험이 많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면접시간에 이런 일은 수험생의 역량에 대해 오해를 하거나제대로 된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면접은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 2015학년도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동덕창의리더 전형)

· 선발방식:
- 인문 · 자연계열: 1단계(3배수) - 서류평가 100%
  2단계 - 심층면접 60% + 1단계 성적 40%
- 디자인계열: 1단계(3배수) - 서류평가 100%
  2단계 - 심층면접 80% + 1단계 성적 20%
- 미술계열(회화과): 1단계(5배수) - 서류평가 100%
  2단계 - 심층면접 70% + 1단계 성적 30%
- 미술계열(디지털공예과): 1단계(3배수) - 서류평가 100%
  2단계 - 심층면접 70% + 1단계 성적 30%
- 미술계열(큐레이터학과): 1단계(3배수) - 서류평가 100%
  2단계 - 심층면접 60% + 1단계 성적 40%

·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 모집인원 177명 -〉 189명 증가

· 디자인, 미술계열 심층면접 변화: 개별심층면접, 모둠심층면접 1일 면접

2014학년도에 2가지 입학사정관전형을 실시됐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면서 전형명칭이 동덕창의리더전형 하나로 통일되었다. 계열별로 선발방식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별도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으며 뽑는 인원이 작년 177명에서 189명으로 늘었다.
이렇게 뽑는 인원이 늘어난 데에는 동덕나라사랑전형(20명)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편입되었고, 디자인 계열뿐만 아니라 미술계열(12명)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 선발이 이루어지기 때문.
작년 예체능계열 입학사정관전형의 경우는 현장 방문 면접을 별도로 실시했었는데,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예체능계열에서는 개별심층면접과 모둠심층면접이 하루 동안 진행되는 1일 면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선발방법에서 큰 변화 중 하나이다.

4. 팁 : 서류 및 면접

· 자기소개서 - 입학사정관들이 점수를 부여할 때는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 근거를 가장 찾는 곳이 바로 학교생활기록부이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주시는 것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실 수 있다.

· 개별심층면접에서는 주제발표 및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이 20분 동안 이루어진다. 특히 발표주제는 교과 지식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지원자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고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평소 그림이나 영상 등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확장시키는 연습을 해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자료제공 : 동덕여대 김태형 입학사정관)

10. 서강대학교

1.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결과

·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내용이 충실해졌고, 일선 고교의 교내 비교과활동이 예전에 비해 활성화되고 있다

· 형식적인 활동보다는 내실 있는 교육활동이 증가하고 있어서 학생들도 과도한 교외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입학사정관제가 일선 고교에서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2014학년도 전형을 통해 본 실수들

· 보통 학생들은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장래 희망을 설정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사례를 참고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자신에게 득이 되기보다는 실이 되는 경우가 많다.

· 자신의 삶과 행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사례를 찾는 것이 타인의 사례와 차별되는 것이 된다.

3. 2015학년도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 선발 인원 : 243명(전체 모집의 14.8%)

· 지원자격 :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0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또는 국외 정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09년 3월 이후 졸업(예정)자

· 수능최저 : 없음

· 선발 방식 : 1단계(2~5배수) 서류평가 80%
2단계 면접평가 20%. 2단계 일반면접에서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능력, 의사소통능 력, 인성 등을 종합평가

서류평가의 비중이 60%에서 80%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학교생활의 비중이 더 커졌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존 입학사정관 전형의 평가방식처럼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다면평가가 이뤄지는데, 여러 형태의 입학사정관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통합되고 수능최저학력기준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학업능력은 학생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평가가 진행된다. 자신의 재능을 계발하는 비교과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면 그에 버금가는 기초학업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4. 팁 : 서류 및 면접

·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성장환경, 학교생활, 장래 희망과 학업목표 등을 검토해야 한다.

· 자신의 장단점을 살펴본 후에 예상 질문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연습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 학생다운 예의바른 태도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진지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포인트.

· 학생부 종합전형의 제출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리고 활동보충자료이다. 지원자와 추천인이 작성하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대교협 공통양식을 참고하면 된다.

· 활동보충자료를 작년 제출량을 반으로 줄여 A4 용지 5페이지 분량을 요구할 예정.

· 서강대학교에서는 예술, 체육활동도 청소년들이 인성을 가꿔나가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어 2013학년도 입시부터 자기소개서에 이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도록 하여 인성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예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예술적 소양과 감성적인 면을 자발적으로 증진시키려고 노력했는지, 체육활동을 통해 스포츠맨십, 협동심, 배려심, 준법정신 등을 키우려고 노력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 자기소개서와 활동보충자료에는 활동과 수상실적을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자의 삶과 활동을 통해 느끼고 배운 점이 더 중요하다. 지원학생이 생각할 때 고교 생활 중 행한 가장 소중한 체험과 활동을 중심으로 적으면 된다.

· 자기소개서는 공통양식을 사용하며 거기에 학생들의 활동을 더 서술할 수 있도록 몇 항목을 추가할 예정인데,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자신을 입학사정관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생활동안 행한 활동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간략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장단기 학업목표를 설정한 후에 이 목표에 부합하는 대학의 인재상에 맞게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내용들은 실적 나열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이 느끼고 배우고 삶에 도움이 된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또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요구하는 질문에 알맞게 서술하고, 하나의 글처럼 문항간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서술하여야 한다는 것도 유념할 것이다.

(자료제공 : 서강대 유신재 입학사정관)

1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결과

· 입학사정관제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지 2년이 지나 국립대학으로서의 장점과 교내 구성원들의 노력의 결실로 지원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의 질적 향상도가 높아졌다.
· 주목할 점은 전년보다 지원학과에 대한 열정이 강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였고, 학교생활을 충실한 학생들이 그만큼 늘어났으며 내신 성적도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2. 2014학년도 전형을 통해 본 실수들

· 전형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전형 지원하는 경우
· 지원학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자신의 장점을 잘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 자기소개서 질문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술하는 경우

3. 2015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 전공우수자전형 : 186→157명으로 29명 감소
· 자기추천자전형 : 68→86명으로 전년에 비해 18명 증가
· 고른기회전형 : 224→282명으로 대폭 증가
· 전형방법 : 1단계-서류 100(3배수)
2단계-1단계 70%+면접 30%
· 최저학력기준 : 없음

학교생활우수자 전형은 고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을 선발한다! 특정 영역을 잘 하는 학생보다 전체적으로잘 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전공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내신은 이공계일 경우 수학과 과학의 성적만 보고, 인문계는 국어와 영어만 본 다. 활동도 자신이 지원한 학과에 대한 열정을 평가한다.
자기추천자전형은 자신이 어떤 영역이나 부분에 남들보다 잘 하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물론 이것도 지원학과에 맞추어 지원해야 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4. 팁 : 서류 및 면접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비롯한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활동보고서이다. 이 활동보고서는 3가지 5매 이내이다(A4 단면). 학교생활기록부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며, 자기소개서는 질문항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추천서는 교사가 작성하는 것으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사례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작성해 주면 효과적이다.(학생에 대한 상, 중, 하 또는 백분위 평가를 정확하게 체크, 장단점 서술한다.) 활동보고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것을 토대로 자신의 특징이나 장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활동을 기재하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활동을 맨 위에 철하여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5학년도에는 문제풀이식의 구술 또는 심층면접을 할 수 없다. 인성 확인 면접 아니면 전공적성면접은 가능하다. 학교생활에서 개인이 한 활동을 중심으로 확인 면접 또는 전공적성면접을 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작성했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면 답변 못할 것은 없을 것이다.

(자료제공 : 서울과학기술대 조효완 입학사정관 실장)

12. 서울여자대학교

1.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결과

· 2014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수시모집 평균 경쟁률은 13.1 : 1이었고, 주요 입학사정관전형인 바롬플러스 인재전형, 학교생활우수자전형 I, 학교생활우수자전형 II의 경쟁률은 가각 10.4 : 1, 6.5 : 1, 9.0 :1 이다.

· 학생부 교과성적을 정량평가하는 전형인 학교생활우수자전형 I 과 II 의 내신평균(등록자 기준)이 소폭 상승했는데, 학교생활우수자전형 I 과 II로 총 492명(296+196명)을 선발했고, 내신성적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모집단위별로 차이는 있지만 2등급 초반에서 후반 사이면 합격 가능성이 높았다.

· 2015대입은 일반학생전형으로 418명을 선발하므로 비슷한 성적의 학생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2. 2014학년도 전형을 통해 본 실수들

· 입학사정관전형 혹은 정성적 종합평가 전형에 대한오해는 아직도 조금 남아있어 일부 학생들은 비교과활동(임원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만으로 혹은 비교과 활동의 양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다.

· 입학사정관들이 높이 사는 점은 관심 분야의 교과 공부나 비교과 활동을 통해 무엇을 얼마나 깊이 있게 배우고자 했느냐는 노력과 배움의 질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내신 성적은 높지만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이나 목표의식, 주도성이 불분명한 학생들은 서류평가나 면접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힘들다. 나의 강점을 찾아 자신 있게 이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3. 2015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정원내	학생부종합평가전형(255명), 기독교지도자전형(30명), 고른기회전형(55명)
정원외	농어촌학생전형(52명), 기회균등전형(18명),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25명)
※ 고른기회전형(정원내) 신설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전형 확대	

전형방법	면접	수능최저
1단계(3배수) : 서류종합평가 100% 2단계 : 1단계 성적 60% + 면접 40%	O	X

서울여자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원내 전형과 정 원외 전형을 포함해 7개 전형이 있다.
이 전형들의 전형방법은 2가지로 통일되어 있는데 하나는 면접이 있는 단계별 전형이고 다른 하나는 면접 대신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는 일괄합산전형이다.
서울여자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전형과 다르지 않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전형으로 관심 있는 교과목이나 비교과 활동을 통해 진로에 대해 탐색해 자신을 준비해 온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계별 전형인 학생부종합평가전형과 일괄합산 전형인 일반학생전형의 성격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더 적합한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으며, 올해의 학생부종합평가전형은 작년의 바롬플러스인재전형과 동일하며, 일반학생전형은 작년의 학교생활우수자전형 I 과 동일하다.
학생부종합평가전형에서는 1단계 서류평가 100%로 통과자를 선발하고 면접을 실시한다. 서류평가에서 학생부 교과에 대한 정성적 평가와 함께 다른 평가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므로 지원 전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과목의 성적이 중요하다.

일반학생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 70% 반영되며 면접이 없는 대신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정량평가하므로 해당 교과목 성적을 전반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서류종합평가 30%에서는 학생부종합평가전형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이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 정성적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서울여대 일괄합산 전형〉

전형방법	면접	수능최저
학생부 교과 성적 70% + 서류종합평가 30%	X	O

※ 일반학생전형으로 418명 선발
※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백분위 기준에서 등급 기준으로 변경

수능최저학력기준-[인문사회계열]
국(A/B), 영, 수(A/B) 3개 영역 중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각 4등급 이내)
[자연계열]
국(A/B), 영, 수(A/B), 탐구 4개 영역 중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각 4등급 이내)
[단, 수B 또는 과탐을 포함하는 경우 합 8등급 이내(각 4등급 이내)]

4. 팁 : 서류 및 면접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크게 학생부종합평가 전형과 일반학생전형이 있는데 학생부종합평가전형에서는 학생부, 자기소개서(대교협 공통양식), 교사추천서(대교협 공통양식)를 제출하면 되고, 일반학생전형에서는 학생부, 자기소개서(대교협 공통양식)만 제출한다.

자기소개서는 고등학교에서의 학업 경험, 비교과활동 경험과 이러한 경험이 자신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 을 미쳤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과 선생님, 친구 등 주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묻는 인성 관련 문항이 주어질 것이다. 이때 추상적인 언어 보다 구체적 사례가 함께 제시되어야 하고, 학생부 내용을 열 거식으로 반복하는 것은 지양하고 활동에 대한 노력과 과정의 결과 보여주어야 한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발표면접 및 서류확인 면접으로 실시한다. 기존의 교과 중심 문제가 포함된 면접은 실시하지 않는다. 발표면접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가 주어질 것이다. 주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 등으로 근거를 들어 차근차근 설명하시면 되고 서류확인 면접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에서 나타난 경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면접이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검토 후 지원 전공 관련해 예상 질문 만들어 답변해 보는 연습이 도움 된다.

고교 시절 특별히 관심 가지고 공부했던 교과목과 내용, 비교과 활동이나 독서가 이를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었는지 등과, 친구들과의 협력 경험, 타인을 위한 배려의 경험이 자신 특성을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대학 모의면접도 도움 될 것이다.

서류평가와 면접에서 전공적합성 외에도 공동체의식, 협력, 자기주도성, 긍정적 가치관 등과 같은 인성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자료제공 : 서울여대 안효경 입학사정관)

13. 성균관대학교

1.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결과

·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전형으로 대표되는 성균인재전형의 경우, 학생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다보니 교과 및 학업역량의 영향력이 크다. 합격자들의 평균 내신은 1등급 후반~2등급 초반에서 형성되며,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서 골고루 우수한 역량을 드러낸 학교생활 충실형 학생들이 주로 합격하였다.
반면에 교과 내신성적은 매우 우수하나 비교과활동에서 다양성이 다소 부족한 경우, 그리고 내신은 다소 낮지만, 특정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학생도 다양성을 추구하는 성균 인재상에 부합하면 합격하기도 한다.

2. 2014학년도 전형을 통해 본 실수들

· 서류제출 관련
  - 자기소개서 작성 기한 및 서류제출 기한 미엄수
  - 특별전형 지원자격 관련 필수제출서류 미제출
·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
  - 무분별한 복사로 인한 기입 내용 오류

3. 2015학년도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요소	수능최저
성균인재		518	서류 100	적용
글로벌인재		631		미적용
특별전형	지역리더	105	서류 100	적용
	특성화고	25		
	이웃사랑	60		
	장애인등	10		

전형명	수능최저
성균인재	[인문계] 국어A/B, 수학A/B, 영어, 사탐/과탐(1과목) 중 1개 1등급 [자연계] 국어A, 수학B, 영어, 과탐(1과목) 중 1개 1등급 [의예] 국어A, 수학B, 영어, 과탐(2개 과목 평균) 중 3개 1등급
글로벌인재	없음
비고	* 1. 인문계 지원자는 국어, 수학 중 1개 영역 반드시 B형 응시 * 2. 인문계 지원자는 제2외국어/한문을 탐구영역 1개 과목으로 인정

인재상이란 대학에서 길러서 사회에 배출할 인재의 모습을 의미한다. 고등학생은 각 해당 고등학교의 교육철학에 따라 학교생활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에서는 고교에서 그렇게 잘 길러진 인재를 선발하고자 한다.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선생님의 지도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2015학년도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성균인재전형과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글로벌인재전형으로 나눌 수 있다. 두개의 전형 모두 서류 100% 전형이며,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전형이다.

성균인재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중 1개 영역 또는 과목 1등급이다. 즉 5개 가운데 하나라도 1등급이라면 최저기준을 통과하는 것이다.

두 전형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성균인재전형은 학생부 교과를 바탕으로 학교생활을 충실히 수행한 학생들, 글로벌인재전형은 고교 재학기간 중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다. 성균인재전형은 교과를 중심으로 한 의미있는 활동들, 예를 들면 교과관련 교내 경시대회, 탐구활동, 교과관련 인증제 등에서 두각을 드러낸 학생들과 같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

글로벌인재전형은 교내 리더십활동, 동아리활동 등 특정한 활동에서 강점과 두각을 보이는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한다.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 학교생활에 충실한 다양한 유형과 특성 가진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4. 팁 : 서류 및 면접

· 자기소개서는 문장력와 어휘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역량이나 경험을 드러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되 사실 위주로 적을 것

· 추천서는 지원자 본인을 가장 잘 아는 선생님께서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실 수 있도록 할 것

· 많은 사람들이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합격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보완하는 서류다. 자기소개서만 잘 써서 합격할 수는 없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고교 재학 기간의 활동 내용 가운데 핵심 사항 위주로 정리하여 구체적 사례를 덧붙인다면 보완자료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다거나 대필을 해서는 안되며, 유사도검색에서 유사도율이 높게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료제공 : 성균관대 권영신 책임입학사정관)

14. 아주대학교

1.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결과

·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에서는 전년도의 비해 아주대 수시 경쟁률이 향상된 점입니다. (2013학년도 아주ACE전형 8.08:1에서 2014학년도 아주ACE전형 10.81:1) 입학사정관전형 기준으로는 지원자 수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지원자의 평균성적, 1단계 합격자/최종합격자의 학업성적이 다소 향상되었다.

· 주목할 점은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내용이 풍부해졌으며, 일반적인 이야기보단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을 보여준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대교협에서 제공하는 유사도검색시스템 통해 자기소개서 표절여부 검증에 있어서도 유사수준이 매우 낮은 정도를 나타낼 정도로 이제는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2. 2014학년도 전형을 통해 본 실수들

· 지원전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으로 학업설계를 엉뚱하게 설명하는 경우

· 급하게 서류를 작성 제출한 학생들의 타교명 자소서, 분량미달, 정서법의 이탈 등

3. 2015학년도 아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2014학년도	2015학년도
아주ACE전형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1단계 성적 30 + 면접 70 수능최저 없음	아주ACE 일반 219명 아주ACE 고른기회 59명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성적 50 + 면접 50 수능최저 없음

학생부의 비중은 전년과 동일하다. 학생부가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이다. 아주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단계 서류평가는 교과영역 40%, 비교과영역 60%를 반영한다. 비교과 영역에서는 교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한 활동, 그 활동으로 인한 성취를 보여줄 수 있다면 좋다. 지원 전공 관련된 교내활동이 없다면 관련 독서활동 경험을 쌓는 것도 지원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간접경험활동이라 생각한다.

4. 팁 : 서류 및 면접

2015학년도 아주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평가는 '개인 면접'으로 1인당 15~20분 시간동안 입학사정관 2인과 지원자1인이 참여하는 2:1면접으로 진행예정이다. 기본적으로 지원자의 제출서류(학생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고교 3년 간의 학교생활, 인성, 지원동기 및 대학 입학 후 학업계획 등 질의를 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지원자 본인은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며, 자기가 작성하고, 제출한 서류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면접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소개서, 학생부 그 외 별도서류 제출할 필요 없다. 교사추천서, 증빙서류, 포트폴리오 등은 받지 않는다.

학교 안에서 지원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성취 경험한 학업 및 비교과활동에 대해 자기소개서에 표현해야 한다.

2015학년도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은 2014학년도에서 약간의 양식 변형이 예상되지만, 아주대학교 자기소개서는 대교협 공통양식을 적극 활용할 예정으로 양식에 맞추어 여러 번 작성해 보면 좋을 것이다.

(자료제공 : 아주대 고지영 입학사정관)

15. 유니스트

1.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결과

· 과학기술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영재학교/과학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유니스트의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상의 특징인 융합학문과 융합연구를 원하는 학생들이 입학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영학과 공학 간의 융합전공을 추구하고자 유니스트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 2014학년도 전형을 통해 본 실수들

· 일반고 출신 중에서는 교과 성적으로 최우수 실적을 가진 학생들은 수학/과학 교과에서 익힌 지식의 기본원리와 응용분야에 대한 다양한 탐구노력을 좀 더 기울려 주기를 부탁한다. 유니스트와 같은 국내 정상의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에서는 거의 모든 수업이 발표와 토론식으로 진행되며 학부과정에서도 연구 참여 기회가 매우 많으므로 학문을 탐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2015학년도 유니스트 학생부 종합전형

유니스트 탐구역량우수자전형

· 특징 : 수학 · 과학 분야의 탐구역량이 우수한 자를 선발
· 선발방식: 1단계(2.5배수내외) - 종합 서류 평가 100%
2단계 - 1단계 50% + 종합다면면접 50%
· 종합다면면접: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한 지원계열적합성 확인 면접
·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탐구역량우수자전형과 나머지 학업역량우수자전형, 창업인재전형, 지역인재전형, 기회균등전형 간에는 복수지원도 가능하다.

유니스트 학업역량우수자전형

· 특징 : 이공계열 수학/과학, 경영계열 수학/영어 역량이 우수한 자를 선발
*기존 학교생활우수자전형 통합 운영
· 선발방식: 1단계(2.5배수내외) - 종합 서류 평가 100%
2단계 - 1단계 70% + 종합다면면접 30%
· 종합다면면접: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한 지원계열적합성 확인 면접
·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지원 자격이나 평가기준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다만 금년에는 1단계 평가결과를 2단계에도 일정비율로 반영하고자 한다. 이는 고교3년 간 학생생활을 매우 우수하게 한 학생들의 노력을 좀 더 높게 인정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기존 학교생활우수자전형은 학업역량우수자전형과 통합하였다.
금년에 창업인재전형을 신설운영한다. 15명을 선발하여 유니스트에 입학한 후 국가의 미래경제에 큰 도움을 줄 훌륭한 창업역량을 가진 인재로 양성하고자 한다. 정부와 유니스트가 준비한 훌륭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4. 팁 : 서류 및 면접

가장 중요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이다. 추가로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제출받고 있지만 이 두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탐구역량우수자전형과 창업인재전형, 기회균등전형에서는 추가로 기타증빙자료를 받을 계획이다. 고교재학 중에 본인이 수행한 교육활동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나 보완하고자 하는 서류가 있으면 제출가능하다. 다만 공교육정상화와 관련이 없는 실적물은 제출해서는 안 된다.

(자료제공 : 유니스트 김재술 입학팀장)

16. 이화여자대학교

1.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결과

· 입학사정관전형은 공교육을 통해 학교생활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이 우수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교과정에서 학교생활을 충실하게 이수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은 크게 학업우수형과 활동우수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교의 사정관전형은 두 가지 특성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정관전형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를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본인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전형으로 적절히 지원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우수인재전형(교과형), 미래인재전형(활동형)이 이에 해당함. 특히 지역우수인재전형의 경우 국내 일반고 출신학생을 대상으로, 고교별 6명의 학생을 추천받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교육여건상, 다양한 학교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교과공부를 열심히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평가가 진행되며, 이러한 메시지가 지역 고교에 잘 전달되어 올해에도 약 900여개 고교에서 지원자 배출, 200개가 넘는 고등학교에서 합격생이 배출되었다. 최근 5년이내 본교에 1명도 합격생을 배출하지 못한 고교 17개교에서 최초합격생이 나오는 등, 전형결과에서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2. 2015학년도 수시 의예과 선발

모집단위	계열	수시			정시
		일반전형 (논술중심)	미래인재전형 (학생부종합)	특기자전형 (수학/과학)	정시일반
의과대학 의예과	자연	10	7	8	22
	인문	-	-	-	6

· 의예과 선발은, 이 중 수시 4개 전형 중, 3개 전형(일반전형, 미래인재전형, 특기자전형), 정시 일반전형에서 진행됨. 전체 모집인원 53명 중, 수시에서 25명, 정시에서 28명을 선발하며, 정시의 경우 인문계열 학생 6명을 선발하므로, 좋은 기회로 본다.

3. 2015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 인원(명)	전형요소 및 방법	수능최저기준
수시	학생부위주 (종합)	지역우수인재전형	350	1단계: 학생부80%, 서류 20% 2단계: 1단계성적80%, 면접20%	수능최저기준 없음
		미래인재전형	500	1단계: 서류100% 2단계: 1단계성적80%, 면접20%	[인문,자연] 2개 영역 각2등급 이내 [의예과] 3개 영역 합3
		사회기여자전형	15		[인문,자연] 2개 영역 각2등급 이내
		고른기회전형	25		[인문,자연] 2개 영역 합4 이내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 인원(명)	전형요소 및 방법	수능최저기준
정시	학생부위주 (종합)	사회 통합 전형 (정원외)	농・어촌학생	111	[인문,자연] 수능40%, 서류60% [예체능] 수능30%, 서류35% 실기35%	[인문,자연] 2개 영역 합4 이내 [의예과] 3개 영역 합3 [예체능] 2개 영역 합6 이내
			특성화고교	30		
			기초생활수급자 및차상위계층	25		
			장애인등대상자	15		

· 지역우수인재전형의 경우 대체로 내신이 강점인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므로 교과성적 관리를 매우 잘 해야 할 것이다.

· 미래인재전형의 경우 교과 및 학교활동의 우수성을 통해 선발되는 전형이므로, 우리 학생이 모집단위와 관련하여, 열정을 가지고 수행해온 활동을 잘 정리하여 자기소개서에 기술해 볼 것. 지원과 활동계기, 본 인의 어떤 특성이 이 공부를 해 나가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등을 생각해 보고 설득력 있게 기술해 볼 것이다.

4. 팁 : 서류 및 면접

· 서류평가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평가자료는 학생부라고 할 수 있음. 학생부는 가장 공신력 있는 고교생활 기록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활용하여 연계적으로 평가한다.

·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 이외에 수험생 본인이 자신의 특성을 보다 초점을 두어 기록할 수 있 는 자료로서, 사실에 근거한 진정성 있는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의 우수성을 고교 에서 직접 지도하신 교사의 관점에서 기술하는 추천서는 학생의 우수성을 진단하는 보충자료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대교협이 개발하여 보급한 공통양식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학별 문항으로 1개 문항이 추가된다. 따라서 미리 서식을 다운받아서, 질문과 글자수에 맞게 기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추가로 작성하는 자기소개서, 추천서의 경우 작성자에게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며 이를 고려하여 대교협에서는 제출서류 공통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므로, 미리 작성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학생부 자료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기록에 대하여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때에도 제출 서류를 최소화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고 있다.

· 면접비율을 축소한다기보다는, 기존의 교과문제 풀이식 면접을 자제하고 심층면접으로 유도하고 있음으로 이해할 것이며, 2014학년도 사정관전형에서 면접 비율이 30%에서 20%로 다소 축소된 부분이 있으나, 면접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 면접평가를 통하여 주로 평가하는 내용은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성장가능성, 통합인성 등이며 서류평가에서 추가적으로 질문해야 할 사항이나 활동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되기도 한다.

· 심층면접은 면접평가자와 수험생의 상호작용으로 진행되며 면접관의 질문에 따라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진정성 있게 제시하는 것이 관건임. 본인의 생각만을 너무 나열하다보면 면접평가자의 중요한 질문이 생략될 수 있으므로, 제한된 시간 내에 본인의 생각을 조리있게 전달하여 충분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

본인의 경험을 미화하거나 과장하는 것은 평가에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있는 그대로의 진솔한 답변이 최선임을 명심할 것. 면접평가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말하기 스킬이 아니라 수험생의 성장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본인의 역량을 진정성있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다소 서툴거나 말솜씨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어진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제공 : 이화여대 안정희 입학사정관)

17. 인하대학교

1.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결과

· 합격한 학생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러한 내용들이 학생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에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즉 학생이 자신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어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활동과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 등이 자기소개서 등에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합격생들의 학생기록부를 살펴보면 학교선생님도 이러한 학생의 특징과 노력을 잘 이해하시고 학생기록부가 작성했다.

· 때문에 입학사정관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먼저 자기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러한 고민을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선생님이나 부모님과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2014학년도 전형을 통해 본 실수들

· 불과 몇 년 전 만해도 자기소개서에 다른 학교의 인재상을 적는다던지, 다른 학교의 원서 양식을 보내온다던지 하는 초보적인 실수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아쉬운 점은 자기소개서에서는 자신만의 개성과 특징이 잘 나타날 수 있게 적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이 있다. 또한 각 전형별로 선발하려고 하는 인재상이 있는데,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인하대에는 리더십 전형이 있는데 지원자가 학교생활에서의 리더십 활동보다는 일반적인 학업향상 노력이나 전공에 대한 활동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평가에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대학 지원에 앞서 지원하려는 대학과 전형에 대한 인재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하겠다.

올해 개교 60주년을 맞는 인하대학교는 한국전쟁 직후 피폐해진 국가 재건을 위해 인천시와 하와이 이주 교민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만들어진 학교이다. 따라서 개인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나 국가 발전에 대한 남다른 사회적 책무성을 지닌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고 근면, 창의, 봉사 정신이 투철한 인재를 선호하고 있다.

3. 2015학년도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구분	전형유형(전형명)			모집인원	전형 요소	전형방법	수능최저학력기준	정원내외
학생부 종합중심 (945명)	인하 미래 인재 (460)	학교생활우수자		300	1단계: 서류종합평가(100) 2단계: 1단계성적(50) + 면접(50)	* 1단계 3배수 2단계 1배수	미적용	정원내
		리더십		60				
		창의재능		20				
		글로벌 인재	국내	50				
			국외	30				
	인하TAS-P형인재			200	1단계:학생부교과(100) 2단계:1단계성적(30)+면접(70)			
	고른 기회 (338)	기회균형선발제		50				
		국가보훈대상자		40				
		농어촌학생		142				정원외
		특성화고졸재직자		50	1단계: 서류종합평가(100) 2단계: 1단계성적(50) + 면접(50)			
		서해5도지역출신자		3				
계				945				

※학교생활우수자 의예과(5명)는 1단계 6배수 선발 / 글로벌인재전형은 5배수 선발

모집단위	계열	수시			정시
의과대학 의예과	자연	학교생활우수자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논술중심)	정시일반
		5	1	15	14

2015학년도 인하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945명을 선발하며, 이러한 선발 규모는 전체 모집인원 대비 24.5%를 차지하고 있다. 전형은 크게 인하미래인재, 인하TAS-P형 인재, 고른기회로 구분되고 있으며, 작년과 비교하여 가장 큰 특징은 전체 전형에서 면접이 실시되는 점과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미적용 된다는 점이다.
의예과 선발은 정원외 포함 35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수시3개전형 정시1개 전형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생활우수자 및 농어촌학생 전형에서는 수능최저등급 제한이 없다.

4. 팁 : 서류 및 면접

제출서류로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활동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대교협 공통양식을 활용할 계획이며, 활동보고서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소화하거나 자기소개서 양식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교협의 2015학년도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이 발표되면 전형별 제출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인하대 2015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전 전형에 50%이상 면접을 실시하고 있어 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가내용은 일반적인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실시되는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인성관련 면접과 각 계열별 단과대별 특성에 따라 출제된 공통질문으로 진행되는 전공 관련 면접으로 구성된다. 전공면접의 경우 교과문제풀이식이 아닌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알아보는 면접으로서 주어진 문제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면접대비는 특별한 준비를 통한다기보다는 평소에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시간이나 동아리 활동시간에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거나,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과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면접을 앞두고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출제유형이나 경향 등을 파악해서 준비한다면 자신감을 갖고 면접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제공 : 인하대 서재현 입학사정관)

18. 중앙대학교

1.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결과

·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입시 결과, 2014학년도 수시 주요대학의 입시경쟁률이 대체로 하락한 편인데 본교 다빈치형 인재전형은 오히려 경쟁률이 높아졌다. 2013학년도 14.3 대 1인 반면, 2014학년도에는 17.1 대 1로 상승하여 중앙대학교 입학사정관전형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신 성적도 꾸준히 올라가 합격자의 평균 내신이 2점대 중반 정도이다.

2. 2014학년도 전형을 통해 본 실수들

· 아직도 입학사정관전형을 조금 이해하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 같다. 비교과 활동만 많이 하면 높은 점수를 받는다, 누가 더 많은 활동을 하는지로 경쟁한다는 느낌을 준다. 동아리를 자율동아리를 한 학기에 4~5개를 무작정 가입한다던지, 봉사활동을 고교생으로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작정 많이 참여한다던지 하는 사례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는 양적으로 풍부하다기보다는 고교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도 질적인 측면을 다져나갈 수 있는 학생들인데 스펙쌓기라는 말은 더 이상 입학사정관전형에서 해당하지 않는 단어이다.

3. 2015학년도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수능 최저기준
학생부 종합	일반형	433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	×
	심화형	289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	
고른기회		592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	×

구분	학생부 종합평가(일반형) 평가방법
서류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근거로 지원자의 교과 성적 및 비교과활동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면접	학업준비도, 인성 및 의사소통능력, 서류의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인별 심층면접
구분	학생부 종합평가(심화형) 평가방법
서류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근거로 지원자의 심화학습능력, 학업잠재력, 학교생활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면접	학업준비도, 인성 및 의사소통능력, 서류의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인별 심층면접
구분	고른기회전형 평가방법
서류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근거로 지원자의 교과 성적 및 비교과활동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단, 특성화고졸재직가전형에서는 학업능력, 사회경력, 자기계발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면접	학업준비도, 인성 및 의사소통능력, 서류의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인별 심층면접

· 학생부 종합전형(일반형)입니다. 지원자격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기존의 다빈치형인재전형을 생각하면 된다.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학업과 비교과 활동을 충실히 실행해 온,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많은 성장과 성취를 보인 학생을 선발한다.
· 학생부 종합전형(심화형)은 국내 고교에서 심화과목을 이수한 자나 해당 전공분야에서 성장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생이면 모두 지원 가능하다. 제출서류를 근거로 지원자의 심화학습능력, 학업잠재력, 학교생활 충실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 고른기회전형이다. 고른기회는 사회배려, 사회공헌, 사회통합, 농어촌학생, 특성화고졸재직자,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원자격이 나뉘며, 자세한 지원자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평가방향은 학생부종합형(일반형)과 다르지 않다. 3개 전형 모두 1단계는 서류종합평가로 1.5에서 3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는 서류 70%, 면접 30%로 진행한다.

4. 팁 : 서류 및 면접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3가지를 받는다. 작년까지 선택서류라고 해서 우수성 입증자료를 받았었는데, 지원자 부담 경감과 서류 간소화 측면에서 올해부터는 받지 않는다. 추가서류가 없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평가요소에 잘 부합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장점들 위주로 잘 써야 한다. 가정환경 이야기나 두루뭉술한 이야기, 자신의 진심이나 착한 점 등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학업적 장점, 성취한 경험,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우월한 점 등을 최대한 집약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

교사추천서의 경우도 고3 담임선생님께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본인을 가장 잘 아는, 그래서 가장 잘 써주실 것 같은 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다.

학생부 종합형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학생부에 드러나지 않는 자신만의 장점을 꾸준히 개발해서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내 장점이 단순히 예의가 바르고 고민을 잘 들어주고 남을 배려하고 진로캠프 참가를 통해서 열심히 진로를 탐색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 중요하다.

면접은 서류를 기반으로 학생 개인에 맞게 질문한다. 따라서 어떤 공통 문제를 출제하여 풀이하는 형식이나 집단 토론이나 발표 형식은 없다. 신변잡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경험했던 활동과 교과 수업 등을 토대로 학생에 맞는 질문을 한다. 면접을 위해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으나, 면접의 기회가 별로 없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떨지 않도록 연습을 하는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 자신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추하는 것,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실력보다 과하게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자료제공 : 중앙대 차정민 입학사정관)

19. 평택대학교

1.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결과

· 해가 갈수록 입학사정관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교과 영역이 우수하다는 것이 아니라 비교과 영역을 통해 지원한 전공에 대한 내실 있는 준비를 잘 한다는 의미이다. 대학의 입학 사정관전형 같은 경우 교과 성적이 낮더라도 학교생활을 성실히 한 학생, 그리고 전공 관련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 대학교와 전공에 대한 사전준비를 잘한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결과,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입시결과를 보면 고교내신이 5등급 이하인 학생들도 상당수 합격할 수 있었다.

2. 2014학년도 전형을 통해 본 실수들

· 지원자들은 자기소개서를 작성 할 때 학교나 학과에 대한 사전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본인이 지원한 학과에서는 어떠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하고, 지원자는 그러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학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잘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다보니 입학 후 학업계획을 기술할 때, 많은 학생들이 구체적 학업 계획은 기술하지 않은 채 "봉사활동 하겠다." "동아리 활동 하겠다.", "교환학생 가겠다." 등의 일률적이고 식상한 내용들만 쓰는 경향이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택대학교에서는 면접 시 "이 학과에 대해 아는 것을 이야기 해보라" "입학하면 무엇을 배우는지 아는 것을 이야기 해봐라."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

3. 2015학년도 평택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명)	전형요소 및 방법	수능최저기준
수시	학생부위주 (종합)	PTU인재전형	180	1단계: 서류평가 100% - 자기소개서 + 학생부 - 3배수 선발 2단계: 면접평가 100% - 1단계 성적 미반영	수능최저기준 없음

학생부 종합전형은 PTU인재전형 하나의 트랙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PTU는 Potential(잠재력) 이 있고 Talent(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평택대에서 Upgrade 시켜 준다는 의미이다. 전체 선발인원은 15개 학과 180명이며, 1단계 서류평가와 2단계 면접평가로 이루어진다. 1단계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며, 전체 교과 성적을 반영하기보다는 관련 교과의 성적, 추이, 학생부에 기록된 비교과 영역과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발한다. 일단 면접 대상자가 되면 1단계 성적은 더 이상 반영이 되지 않는 제로베이스 시스템으로 평가를 한다. 다시 말해 2단계 면접점수에 의해서 합격 당락이 결정된다. 디자인 계열 또한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비실기전형으로, 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하며, 간호학과를 포함 전 학과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4. 팁 : 서류 및 면접

·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외에 별도의 서류는 받지 않으며 학생부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교외 활동, 수상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간혹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너무 좋으나 그 내용을 학생부에서 확인 할 수 없는 사례들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근거 또는 Fact를 기반으로 작성하시고, 본인의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본인의 강점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강점이 지원한 학과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된다면 더 없이 좋다.

· 면접은 1대 多 면접입니다. 지원자 한명이 3명의 면접관과 약 15분 동안 면접을 본다. 면접질문은 크게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1. 서류검증 · 자기소개서와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 중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 질문.
2. 인성평가 · 지원자의 장단점, 소통능력, 성실성, 진실성, 자발적 봉사활동 등을 평가하기 위해 구체적으 로 질문.
3. 전공기본소양평가 · 심층적인 전공질문은 하지 않으나, 지원전공에 대한 관심도 열정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기초소양질문.

   면접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그 시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다. 면접은 자신이 가진 열정과 재능을 발휘하여 면접관들을 설득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자료제공 : 평택대 이상용 입학사정관)

20. 한국외국어대학교

1.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결과

· 한국외대 입학사정관전형은 2013학년도 수시부터 시작된 수시 6회 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매년 경쟁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경쟁률은 서울캠퍼스 9.7:1로 2013학년도 8.37:1보다 꾸준히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지원고교 및 합격고교가 증가하였으며, 지원자 및 합격자의 내신 성적이 대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입학사정관제가 고교에 확산되고,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지원자의 학생 부 비교과영역도 양적, 질적 모든 면에서 충실해졌다.

2. 2014학년도 전형을 통해 본 실수들

·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자기소개서 작성이다. 한국외대의 경우 자기소개서를 대교협 공통양식을 사용하였는데, 1번 문항의 성장과정을 작성할 때 "저는 O남 O녀의 막내로 태어나 사랑 을 독차지하며 자랐으며...."의 형식으로 작성하거나, 추상적 어구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학생이 많았 다. 또한 학생부의 기술내용과 상반된 내용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학생도 많았다. 자기소개서는 학생부 비교과영역에 나타난 사실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며, 지원자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평가 자료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에 실수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2015학년도 한국외대 학생부 종합전형

<table>
<tr>
<td>[일반]
서울 295명/ 글로벌 306명
총 601명
[고른 기회]
서울 26명</td>
<td>〈전형방법〉
<table>
<tr><th>구분</th><th>서류평가</th><th>면접평가</th><th>비고</th></tr>
<tr><td>1단계</td><td>100%</td><td>-</td><td>3배수</td></tr>
<tr><td>2단계</td><td>70%</td><td>30%</td><td></td></tr>
</table>
* 제출서류 : 학생부, 자기소개서
* 수능최저기준 없음</td>
</tr>
</table>

4. 팁 : 서류 및 면접

·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제출한다. 교사추천서는 받지 않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자기소개서는 대교협 공통양식을 사용한다. 대교협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표절 및 대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 면접비중은 2014학년도 50%에서 2015학년도 30%로 축소된다. 면접방식은 크게 작년과 다르지 않다. 인 · 적성면접으로 다수의 평가자가 한명의 학생을 평가한다. 제출 서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전공적합성, 논리적사고력, 인성 등을 종합평가 한다. 면접을 준비는 제출 서류(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면접관이 제출서류에 대한 질문을 하면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지원한 전공에 대한 열정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중국언어문화학부 지원자라면 중국어를 구사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 전공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면접태도 또한 중요하므로 학교선생님, 친구, 부모님과 면접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자료제공 : 한국외대 이석록 책임입학사정관)

21. 2015 학생부 종합전형 플러스

· **고려대**

· 융합형인재 신설 및 일반전형 감소, 그리고 OKU 특별전형이 폐지되었다.

일반전형	학교장추천	국제인재	과학인재	융합형인재
1227	630	280	250	280
-139명	동일	-20	동일	신설

학교장 추천 : 일반고 대상, 서류 100% 3배수// 1단계 70%+면접30%. 학교당 문/이과 각 2명씩 추천

선발방법	선발비율	반영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1단계	300	서류 100%	인문 : 국어B, 수학A, 영어, 사탐 또는 국어A, 수학B, 영어, 과탐 4개 영역 중 2개 영역 평균 2등급 이내 자연(의과대학 제외) : 국어A, 수학B, 영어, 과탐 4개 영역 중 2개 영역 평균 2등급 이내 의과대학 : 국어A, 수학B, 영어 3개 영역 등급합 4이내
2단계	100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융합형인재 : 선발방법, 선발비율, 반영비율이 학교장 추천과 동일하다. 인문계 최저학력도 동일하다.
자연계열은 국어A, 수학B, 영어, 과탐 4개영역 중 2개 평균 2등급. 의대는 국A영B수 합 4이내

· **연세대**

학생부교과전형은 재학생만 지원 가능. 학교활동우수자전형은 삼수생까지 지원 가능.

수시				
일반전형	특기자		학생부교과	학교활동우수자
	인문학인재, 사회과학인재, 과학공학인재, 국제, 예체능	IT명품인재계열 및 창의인재계열		
738명	927명	41명	257명	373명

-학생부 교과 : 재학생만

구분	선발방법	선발비율	반영비율	내 용
학생부 교과 전형	1단계	300	교과 100%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만으로 모집인원 3배수를 선발
	2단계	100	교과 70% + 비교과 30%	• 2단계 평가대상자들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평가를 실시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및 비교과 평가점수를 환산한 총점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인문-국어B, 수학A, 영어 탐구영역 중 2개영역 등급 합이 4이내
자연(약,치제외)-국어A, 수학B, 영어, 과탐영역 2개 합 5이내(수학B, 또는 과탐 중 하나 이상 2등급이내)
의예,치의예 · 국어A, 수학BB, 영어 과탐 중 3개 영역이상 1등급

-학교활동우수자 : 삼수생까지

학교활동 우수자	1단계	300	교과 100%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종합평가함. •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통양식을 사용하되, 자기소개서에 활동역량 3가지를 추가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역량 3가지에 대해서는 추천서를 통하여 확인함. • 서류평가 결과로서 모집인원의 일정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발함.
	2단계	100	교과 70% + 비교과 30%	•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면접평가를 실시하고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 면접은 인성면접으로서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하고,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교양인으로서의 자질을 확인하기 위한 면접임.

인문-국어B, 수학A, 영어 탐구영역 2개 등급 합이 6이내
자연(약,치제외)-국어A, 수학B, 영어, 과탐영역 2개 합 4이내(수학B, 또는 과탐 중 반드시 하나 이상 2등급이내)
의예,치의예 · 국어A, 수학BB, 영어 과탐 중 3개 영역이상 1등급

· **서울대**

수시에서 지난해보다 253명 감소한 2,364명을 선발. 수시 일반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지 않음.
기회균형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 지역균형전형에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3개영역 2등급으로 강화.
건축학과(건축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의학과 수시에서만 모집.
수시 일반전형의 면접에서 교과관련 문제풀이형 면접이 없어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비중이 강화됨.
건축학과(건축학) 교차지원을 허용, 산업공학과는 교차지원을 불허.
작년 수시 모집에서만 선발하던 건설환경공학부, 건축학과(건축공학), 산업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화학부, 생명과학부 등이 정시에서도 모집.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치의예과 수시에서만 모집.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면접 문항을 공동 출제하며, 공동 출제된 문항을 활용하는 모집단위에서는 동일한 답변 준비 시간과 면접시간을 부여.
공동 출제된 문항을 활용하지 않는 모집단위에서는 교과 관련 문제풀이형 면접 문항을 출제하지 않음.

수시 일반전형 1단계 2배수로 확정 - 서류전형의 강화인

모집단위		1단계		2단계			
		서류평가	선발인원	1단계 성적 (서류평가)	면접 및 구술고사	교직적성 인성검사	총계
인문/자연계열		100	2배수이내	100	100	–	200
사범대학	인문/자연계열	100		100	60	40	200

* 자유전공학부는 2단계에서 별도 배점없이 종합평가(1단계 서류평가+면접 및 구술고사)실시

· **한양대**

● 수능최저기준 폐지 ● 우선선발 폐지

○ 학생부교과전형 (346명)
- 1단계:학생부교과 100%
- 학생부 외 제출서류 없음
- 2단계(면접):학생부 내용 확인
- 수능 면제

○ 학생부종합전형 대폭 확대 (일반:850명, 고른기회:113명)
- 학생부 교과·비교과 100%
- 고른기회 선발인원 확대
- 학생부 외 제출서류 없음
- 수능 면제, 면접 없음

전형	선발방법	전형요소 반영비율 (%)
학생부교과	1단계 (3배수 내외)	학생부교과 100
	2단계	면접 100
학생부종합	일괄합산	학생부종합평가 100
학생부종합(고른기회)	일괄합산	학생부종합평가 100
특성화고졸재직자	일괄합산	학생부종합평가 100

MEMO

2015학년도 대학입시정보설명회

핵심자료집

주최 | tbs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Standard Board for Korean Certified Education Consultants 넘버원 노원